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5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허술한 문화재 관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쌍배불인 운주사 석불감쌍배불좌상(보물 제797호), 팔작지붕과 감실 입쪽 벽면이 파손돼 문화재관리국의 주도하에 95년부터 96년까지 보수를 했으나, 재질이 판이하게 다른 석재로 지붕을 끼우고 철근조각으로 균형을 잡는 등 상식이하의 보수였다.

법하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재 보수를 할 때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보수 지정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사찰에는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부터 탱화 불단 건축 탑 등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의 문화자가 넘쳐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성보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 미술관 등을 건립해 본말사의 유물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예배의 대상인 성보를 법당이 아닌 다른 곳에 모신다는데 대한 반발도 있지만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인력에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처럼 전문학예사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전문가 없이 전시관이 운영되고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학예사를 고용하거나 스님들이 전문지식을 체득해 체계적인 관리 보존을 꾀해야 한다.

성보 목록 작성 관리
전문인력 배치 제도화

사찰 문화재 안내판을 만들거나 사찰전반에 대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신행을 위해 절을 찾는 신도들이야 스님에게 들을 기회도 있지만 잠시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단체관람을 하는 학생들은 사찰 전각이름조차 알기 어렵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안내자료가 절실하다. 사찰에 얽힌 설화, 성보문화재 소개, 스님들의 수행생활 등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다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찾아온 관람객을 불자로 끌어들이는 포교 효과도 거둘 수 있고 사찰 내에서의 관람태도에 대한 교육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남북 종교지도자 '민족화해' 다짐

북경 모임서 교류정례화 합의

99 '북경선언'
- 7·4 남북공동성명 3대원칙 재확인
- 서울·평양 또는 제3국에서 다음모임 추진
- 북한에 인도적 지원
- 민족적 화해와 단합위해 물공과 기도



◇KCRP회장 고산스님이 북경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찌지 니사이 ACRP사무총장, 고산스님, WCRP비무장화해위원회 요시아키 위원장, 장재언 회장.

남한과 북한, 일본측 종교인 대표들은 4월 25~27일 중국 북경 캠린스키호텔에서 종교인 평화모임을 갖고 남북종교인 교류의 정례화에 뜻을 같이 했다. 3자 대표들은 27일 평화모임 마지막 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 북경선언'을 채택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고산스님과 조선종교인협회(KCR) 회장 장재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모찌지 니세이 사무총장 등이 서명한 북경선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상호 관심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다음 모임이 서울/평양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RP 변진흥 사무총장은 "실무협의에서 다음 모임 시기를 내년 3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올 6월 북경에서 실무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실무모임에서 8~9월 회장단의 방북 건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일 종교인대표들은 97년에도 베이징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내년 모임이 이뤄지면 남·북한의 최고위급 종교인들의 세 번째 회동으로 기록된다.

북경선언에서는 이밖에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교적인 양심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끊임없이 불공과 기도를 바쳐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북경 종교인평화모임은 우리나라에서 고산스님을 비롯해 대표단, 참관인 등 30명, 북한에선 장재언 회장을 단장으로 5명, 일본에선 8명이 참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전망과 실천계획'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토론, 선언문 채택을 위한 실무회담 등으로 진행됐다.

KCRP 사무차장 박광수교무(원불교)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부처님 오신날 행사 인터넷 서비스

부다피아 · 달마넷

부다피아는 4월 28일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시내 주요사찰과 각 지역봉축위원회의 행사 일정과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다. 캐릭터는 컴퓨터로 전송받을 수 있다. www.buddhapia.com을 연결해 '행사' 메뉴를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고산)도 28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소는 www.buddhism.or.kr/bongchuk, www.dharmanet.net/~.

정성운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5월 : 실상산문(실상사) · 쌍계사 · 칠불암

5월은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창된 실상산문의 중심도량인 실상사를 찾아갑니다. 경령한 절마당 곳곳에 잘 보전돼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7호) 2기와 석등 등 문화재를 비롯해 귀농학교 농장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쌍계사에서는 차(茶) 시배지와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복각 탱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칠불암에서는 새로 복원된 전통 수행 선방인 아자방에서 참선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출발: 5월 2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日 구세관음상 백제서 만들었다"

김상현교수 주장



일본 법륭사 몽전의 비불(秘佛)인 구세관음(사진)이 재작지 논쟁에 휩싸였다. 일본 학계에서 일본 최고의 불상이자 일본불교의 수호자인 성덕태자상이라고 소개하던 구세관음이 사실은 백제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을 기려 만든 유상(遺像)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일본 학계에서 구세관음을 성덕태자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덕태자의 전신을 백제 성왕으로 여겼던 당시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9면>

몽전 구세관음은 1년에 한번 일반에 공개된다. 처음 공개되던 188년까지도 법륭사에서는 '몽전비불을 공개하면 신벌을 받아 지진이 일어나고 법륭사가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강지연 기자

'조계종' 명칭 삽입 의견 접근

조계종-선학원 연석회의

조계종 법안대책특위(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종단현안실무위원회(위원장 성문)는 4월 27일 조계종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차 연석회의를 열고 양측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측은 선학원 명칭에 '조계종' 삽입, 선학원의 분담금 납부시 행지교육 및 승적발급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칭 변경 후 조계종측이 선학원 인사·재산문제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이를 공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학원측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조계종측이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면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건축법 재개정' 건교부 불가 밝혀

조계종, 건축규제 항목 전사법에 신설 추진

조계종총무원의 건축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4월 23일 재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계종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문화재·사찰 등의 보존은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건교부가 이같이 밝힘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인근지역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통사찰보존법 9조 2항 (2)를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총무원과 문화관광부는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교육원 10월경 '교수·학인회의' 개최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4월26일 전문교육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경 '전문교육기관 교수·학인회의(가칭)'를 은해사 승가대학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전문교육기관의 위상과 방향을 진단하고, 각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성과, 교수법 등의 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사 령
승 논설위원 김징자
의원면직 임연태
편집국 취재2부 차장
1999년 4월 23일자

시방세계 불교문화 예술대전 11면
5월은 가정의 달 6·18·19·23면

본사 부산지사 이전

본사 부산지사가 4월 23일 부산 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협회 빌딩 6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전화·팩스 번호는 종전과 같습니다.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대한불교조계종

제 10대 종정 혜암대종사 추대식

대한불교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종정 추대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3('99)년 5월 11일 (음력 3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참석스님께서는 장삼에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회

증 명 : 서 옹
고 문 : 관응 고송 석주 비룡 운경 도천 원담 탄성 응담 도견 일타 성수 승산 청하 법전 정천 종산 지종 녹원 도원 보성
봉행지도위원 : 월주 범룡 혜정 지관 월운 능가 천운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고산
부위원장 : 종회의장 법등, 호계원장 월서,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현성, 법규위원 벽파

봉행위원 :
원택 만성 일철 양산 성조 종고 계성 도원 현진 화암 대오 정락 도후 현해 혜광 진허 범장 성덕 법타 성타 성주 종현 성오 법조 도영 다정 종걸 현지 보선 중원 법현 부림 도법 범하 법현 종진 장산 정호 혜운 종진 정관 홍교 학봉 선용 성응 휴정 무산 원행 적명 고우 정광 성우 현산 인각 무여 원융 정찬 지환 지홍 은성 청화 명진 종하 지하 정대 정휴 근일 종상 혜창 영배 영담 장윤 영조 지현 성관 종림 광복 세영 마근 도완 정념 지명 진각 장곡 정목 법보 능관 도각 수완 정인 석호 정각 설송 원행 성오 화범 진만 종삼 범종 월우 대원 진원 경훈 현봉 지욱 현응 향적 법안 학담 정우 여연 광조 원명 지홍 유광 장적 무이 태공 봉산 무관 덕운 일수 영진 성법 원각 법광 진기 성정 현근 지성 도공 도현 원우 자승 도진 정안 광우 상륜 진관 명성 태경 묘엄 대행 명우 법성 본각 혜주 일법 수현 운달 지형 도문 계호 경륜 서돈각 송석구 성낙승 허문도 서석재 박상규 박철언 함종한 홍성호 김노언 김종락 이의수 윤석관 김한곤 이병춘 최동원 안종학 변영우 김동기 이종화 류진수 박봉식 권세목 이상무 최종대 곽종형 김제현 강창식 이상현 홍옥진 (무순)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고 산

사 설

종교인 평화모임

4월 25일에서 27일에 걸쳐 북경에서 남북한과 일본의 종교인들이 평화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조선종교인협의회(KCR),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일본위원회(WCRP/JAPAN)가 연석한 이 회합에 우리측에서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을 위시하여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유교 등의 지도자들 30여명이, 그리고 북한측에서는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97년 북경에 이어 두번째인데, 회담을 마친 후, 그동안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1999 북경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의 주요 골자는 삼국이 그동안의 적대관계와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양심과 영적 일치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실천강령으로는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지작업,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결의했다. 고산 총무원장도 인사말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평화를 열어가는데 동북아 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20세기 동북아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그리고 냉전과 열전의 상흔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한과 일본은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 그 고통과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대립부터 접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의 벽 허물기를 시발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해졌다. 작금 정부는 영상을 비롯한 일본의 문화를 수용하기로 하고,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과감히 완화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간간이 터지는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 경제적 문화적 방식은 도구적 목표와 지배예속 관계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구심과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의 열린 가슴과 영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다.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구현을 위해 남·북한, 일본의 종교인들이 두차례 내리 만나 무차대회를 열고 있는 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경선언은 주최측의 "솔직한 의견교환, 성의있는 토의, 만족스러운 회의"라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념은 맥이 빠져 있고, 실천강령은 소략하다. 철지난 7·4 남북성명을 이념으로 내건 것부터 현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주적 판단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강령으로 내건 것 가운데 진정 실천적인 것은 대북식량지원 하나뿐이다. 도대체가 기도와 불공을 드리면서 다음에도 다시 만나자는게 "금후의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실천"이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다른 종교의 참석자들은 논외로 하고 싶다. 불교라도 급속히 현실감각을 키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소화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인드라 그물의 중중무진에 고립된 사실, 나와 무관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화엄의 크나 큰 가르침 아니던가. 자성은 좌선이나 죽은 화두를 통해 자기내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타자 속에서 객관으로 존재하는 그야말로 "실제(實際)"이다.

불교의 시선은 급격히 밖을 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동북아의 평화와 생태의 비전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색신(色身)의 구체성을 얻을 수 있다.

조계사-봉은사-화계사-용주사

'외국인 참선체험프로' 개설

4개 사찰 · 관광공사 · 10개 여행사 협의회 구성

조계사 등 4개 사찰에 국내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참선체험상품'이 개설되는 등 불교관광 상품이 잇달아 개발될 예정이어서 한국불교의 국제포교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포교원과 조계사 등 4개 사찰, 한국관광공사, 10개 여행사 관계자들은 4월29일 서울 강남 봉은사 선불당에서 불교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용주사에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을 조만간 설치·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외국인에게 사찰음식, 다도, 참선, 불교미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 시범사찰을 지정해 운용하고 1~2주일 과정의 사찰 답사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프로그램은 예불참석, 발우공양, 참선실수(實修), 다도실수, 법문 및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나절(4시간, 오전 또는 오후)용, 하루(8시간)용, 1박2일용으로 나눠 진행된다.

반나절용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소개 및 사찰 예절, 사찰 소개, 참선 실수(10분 자세 설명, 20분 참선), 예불 참석, 발우공양, 다도 실수 및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꾸며지며 하루용은 여기에 컵등 만들기가 추가된다. 또 1박2일용은 절에서 하루를 묵으며 사중생활을 체험하며 암자 탐방, 5계 수여식 등을 추가로 운용한다.



◇4월29일 처음 열린 불교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회.

프로그램 안내자는 관광가이드보다는 화계사 스님 등 한국불교를 잘 아는 외국인 스님이나 국제포교사,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포교원의 지원하에 관광공사와 10개 관광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법경스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관광상품은 한국불교의 포교와 세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삼성동 아셈단지와 강남구청,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연결하는 강남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국민화합 평화통일 기원 종교인 예술축제 연다

9일 임진각서…불교등 6대 종교 참여

불교를 비롯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대종교 예술인들이 남북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종교예술축제를 거행한다.

국민화합종교예술인협회(회장 김도현 전 문체부차관) 한국종교서예인협회(회장 홍근수 목사)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5월 9일 오후1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청소년과 일반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하는 '국평제'(국민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통일·환경 휘호대회(교육부장관상 수여) △6대종교 합동기원대회 △예술인 기원 한마당(예술인들이 직접 붓과 도구로 휘호를 창작함) △범패공연과 전통굿(범패이수자 및 전통굿 전수자) △청소년 통일 환경 백일장, 사생대회(환경부장관상 수여) △의료봉사 등으로 진행된다.

김도현 종교예술인협회 회장은 "종교와 예술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며 "국평제를 통해 통일을 염원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회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종정예경실장

대오스님 임명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4월 26일 대오(大悟)스님〈사진〉을 예경실장으로 임명했다. 예경실장은 종정스님의 명에 의해 종정 고유직무를 보필하며,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전 사무를 담당한다.

대오스님은 57년 대전 출생, 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81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84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6년 해인승가대학 졸업 이후 제방선원에서 25안거를 성만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상담교육협 설립추진

조계종 공개간담회 열어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공신력 있는 상담교육 전문기관의 설립·육성과 사찰 및 신도단체의 상담활동이 활성화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불교상담교육(협)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1일 오후2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주영 종회포교분과 간사가 '사찰 상담실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이지현 JTS사무국장이 '기독교내 상담실 유형에 대해' △황선정 자비의전화 연구원이 '불교상담교육의 교육과정' △윤남진 포교계장이 '전문상담 교육기관의 위치와 교육이수자의 포교활용방안에 대하여' 등을 각각 발제했다. 김재경 기자

금강산 순례 계획 확정

종단대표등 1200여명 참가 신청

불교도 금강산순례 행사계획안이 정해졌다. 6월 2일~5일의 주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행사/날짜/장소)

△통일기원법회 및 방생법회/6월 2일/현대금강호 선상 △신계사터 참배 및 약식 법회/3일/신계사터 △문화공연 '아! 그리운 금강산, 민족이여, 통일이여'/3일/온정리 공연장 △전통등 전시회(예정)/2~5일/현대금강호 선상 △금강산 관광/3, 4일/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또는 삼일포) 코스.

애초 계획했던 신계사터에서의 통일기원법회는 북한측이 '종교행사 불허' 입장을 고수해 약식법회로 봉행된다.

한편 이번 금강산 순례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 대표를 비롯해 스님 450명 등 모두 1천2백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단체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액은 전액 북녘동포 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본말사 신도에 신도증 발급안돼 '물의'

통도사 본말사 신도들에게 신도증이 재발급 되지 않아 신도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통도사 말사의 한 신도는 "신도증을 재발급하러 갔다가 통도사 본말사 신도에게는 신도증이 신규는 물론 재발급되지 않으니 다른 사찰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통도사에 대한 징계로 인해 선의의 신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총무원에 통도사 신도들의 신도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재경 기자

영하스님등 징계 확정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4월28일 제15차 심판부를 열어 영하스님등 10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영하-공권정지 9년, 효종-공권정지 3년, 지거-공권정지-2년, 종석-공권정지 1년, 옥문-공권정지 6월, 종호 하종-면직, 탄공 송묵-문서견책.

정성운 기자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 마을. 이곳은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드립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스님들 때문에…

"짧은 출가, 긴 깨달음"
- 출가 4박 5일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한국 불교사에서 승보의 상징적 사찰인 송광사는 올해도 스물아홉번째 여름수련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의 경험과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가까이 모시고, 불교적 삶의 논리와 정서를 체득하는 기회를 마련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교파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함이 아니며, 출가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고 미래지향적 새로운 삶을 설정하는 데 조력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님들과 똑같은 출가적 생활 체험, 즉 습의, 예경, 수행, 간경, 청법, 운력으로 이어지는 "출가 4박5일"입니다.
능력보다는 청정한 승풍을 먼저 생각하는 송광사는 총림(종합수도원)이며, 120여명의 스님들이 상주하는 청정수행 도량입니다. 미술사적, 사상사적 의미 또한 돋보이는 승보종찰 송광사의 여름수련법회에 참석하시면 잔잔한 감동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 아래 일정과 절차를 자세히 보시고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999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 수	기 간	모집인원	대 상
제1차	1999년 7월 4일 - 7월 8일	120명	· 연령 20세이상 65세이하,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제2차	7월11일 - 7월15일	120명	
제3차	7월18일 - 7월22일	120명	
제4차	7월25일 - 7월29일	120명	
제5차	8월 1일 - 8월 5일	120명	
제6차	8월 8일 - 8월12일	120명	
제7차	8월14일 - 8월17일	120명	· 중·고등학생

● 모 집 요 강

1.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1999년 5월 20일부터 6월18일까지 접수
2) 접 수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수련원장 앞
3) 신 청 서 : 신청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①이름(한글,한문)②주민등록번호③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④ 직업(학생법회 신청자는 학교명, 학년을 기재) ⑤전화번호(직장, 자택) ⑥종교 ⑦ 수련법회 참가 경험유 무(최근3년이내) ⑧원하는 차수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학생법회 참가자는 우측상단에 학생법회 참가자임을 표시)

2 자원봉사 활동
일정표는 수련법회와 같으며, 매회 10명 내외로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법회시 참가자의 부모님은 우선 합니다.)

3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송광사 수련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6월23일까지 확정하여 개별통보하며, 통보를 받을 분은 6월30일까지 동참금 7만원(학생법회 동참금 - 4만원)을 통보된 구좌에 온 라인 송금하는 것으로 등록이 확정됩니다. 단 자원 본사자는 동참금이 없습니다.

4. 기타사항
안내전화 : 0661)755-9092, 9093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
전 송 : 0661)755-0408 (팩스로 신청하신 분은 팩스 전송 후 꼭 전화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 주지 현지 수련원장 현고

조계종 두 신도회 '통합 가능성'

양측 지도부 '이미 교감' 방법 놓고 고민
고산스님 권유…8월 이후 가시화 될듯

4월24일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에 선진규 법사가 새로 취임함에 따라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통합 가능성에 그 어느 때보다 눈길이 쏠리고 있다.

4월24일 취임한 선진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4월26일 한 음식점에서 "신도회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될 경우 중앙신도회와의 통합은 당연한 것"이라며 통합의 대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 선 회장은 회장 선출직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고산스님도 "나는 통합의 명수다. 당장 통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선 회장은 "5년만에 전신회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중신회와)경쟁을 붙이지 말고 대중불교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 도와달라"고 말했다. 대불청회장 당시 16개지부를 157개 지부로 조직을 확장시킨 경험이 있다는 선 회장은 50%정도 와해상태에 있는 전신회 조직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1차 10만 염불결사를 임기 안에 3차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역시 통합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궁인창 교화부장은 "전신회와의 통합은 양측 지도부와 이미 교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는 8월20일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공동회장 체제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통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신도회는 4월28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21명의 운영위원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8월20일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신회와 총무원이 협의해 9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5월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5년의 전통을 이어 온 전국신도회와 전국 본·말사 신도회를 주축으로 조직을 구성해 온 중앙신도회는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통합될 경우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통성과 조직력을 갖춘 단일한 거대 신도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조계종 종법상의 신도회 관리규정과 총무원의 자율성 보장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겨놓고 있어 양측 신도회와 총무원의 지혜로운 대화와 양보가 절실하다.

지난 94년 개혁종단 출범이후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지지했던 전국신도회는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다. 총무원 주도로 건설된 중앙신도회는 새로운 신도단체로 발돋움하려 했으나 총무원과의 마찰과 내부 갈등으로 표류해 왔다. 그동안 반쪽 신도회가 지니는 한계를 두 신도회가 뼈저리게 체험한 만큼 이제는 대승적인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거사운동을 펼칠 시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4월24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선진규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주식매수·자금출처 '핫이슈'

허문도 사장 선임이후 불교TV

"혹시 정치적 의도 없나"
정계식씨 사업체 부도

4월22일 불교TV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허문도씨는 23일부터 업무파악에 들어갔으며 28일에는 고산 조계종총무원장을 방문하는 등 교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5월10일 대표이사 선임을 앞두고 주식 매입 문제와 교계 안팎에서의 허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정계식씨의 자금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 btn특위의 시각

특위 위원장 정휴스님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는 반드시 주식 매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주식의 매수 없이 10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허문도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법률적 문제가 파생될 것을 우려했다. "새 경영진이 현재 통도사 지분 20%와 종단 소유의 지분 20%를 합친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대주주로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정휴스님은 "허문도씨의 실질적 재정후원자인 정계식씨가 불교TV 국민은행 부실 채권을 성업공사로 이관된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을 했다"면서 "경매 절차를 통해 불교TV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사유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유화 의혹 제기에 대해 불교TV측의 한 간부는 "성업공사 이관 후에는 부채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씨가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허사장 선임따른 반응

허씨의 불교TV 사장 선임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월26일 강한 어조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5공시절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허씨는 언론사 사장 자격이 없다"며 "불교인들은 명예를 걸고 허씨의 사장 선임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사장은 "이번에 사장직을 맡은 것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며 부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며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이사가 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 정계식씨 자금 능력

4월 29일자 '미디어오늘'은 정씨의 사업체 부도 소식을 전하고 '5공 비자금 언론계 유입의혹'을 제기했다.

제3금융권인 한국엔젤파이낸스 주식회사 대표로 있는 정계식씨(49)는 부산·양산·울산에서 LG정유 주유소를 세 개 운영해 왔으나, 97년 12월 모두 부도 처리된 상태다. LG정유판매 부산 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도 처리로 발생된 채무 27억원을 갚지 못해 주유소가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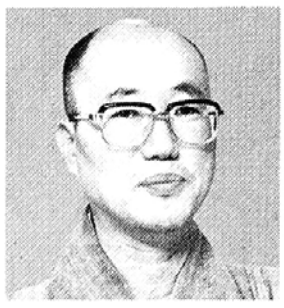
정씨는 또 현재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돼 세 개 주유소의 어음도 부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산 온천동 50평 빌라 자택도 동남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설정돼 있다.

70억원이 넘는 불교TV의 부채와 20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정씨는 30일 "10억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자금은 부산지역 실업가들이 함께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인터뷰 봉축위 집행위원장 원택스님

"국민에 희망주는 축제로"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한 참회와 바르게 정진하는 진솔한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봉축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각종 행사 진행의 지휘와 점검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원택스님(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은 "이번 봉축행사를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연등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 전통문화축제로 지정됐는데….

▲ 부처님오신날이 단지 불교인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등축제에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자랑스러운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거리행사를 연등축제 날인 16일 오전부터 시작해 시민과 외국인의 참여기회를 넓혔습니다.

— 특히 제등행진에 장엄물과 함께 등(燈)에 중점을 둔 이유는.

▲ 등은 지혜와 소원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눠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사찰이나 단체에서 함께 등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부처님 오신 뜻은 무엇일까요?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산 총무원장께서도 '자비의 대중화'를 종단운영의 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나눔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고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길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처이며, 나를 부처로 만드는 도반이기 때문입니다.

원택스님은 "연꽃을 서울시청앞 광장 조형물로 정했다"며 "이는 진흙속에서도 찬란함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겠다는 불교의 다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자장군 죽이기' 의혹의 눈길

군검찰 김태복소장 징역 5년 구형

"구체적 증거없이 종교편향 판결"

군검찰은 4월26일 대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01여단 군법당 건립 관련' 군사재판에서 김태복 장군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5년, 추징금 8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 공소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반박이다. 변호인단은 "법당 신축을 위해 보시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기소한 것은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김장군이 강제전역을 거부하자 군검찰이 전역을 강요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군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는 등 김장군에게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와관련 군검찰과 재판부가 짜맞추기식 재판에 의해 김장군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 군법사들 사이에서는 전 101여단 참모장 황 모 대령(교회장로)과 육본의 고위 관계자(개신교 '비전 2020'의 핵심 간부로 추정)의 조직적인 불교세 꺾기 작전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수뇌부의 강제 전역지시 의혹은 군개혁 차원의 부조리 및 개인비리 척결지시에 따른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소장의 경우는 한 장성의 개인비리가 아닌 육사 후배의 하극상에 의해 제기된 모함성 제보에 의한 수사로서 군개혁 의지자체에 대한 불신마저 느끼게 할 정도다. 4월26일 재판말미에 이상도 변호사가 "군 출신으로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창피할 노릇이다"고 변론한 사실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두 가지 배경은 결론적으로 한 불자 장성의 개인비리 문제가 아닌 현 정권의 종교편향적 정책과 불교계 전체의 대립구도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도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목어

잘못된 자식사랑

돈의 위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농간하는 작태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서러움마저 금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된 책임이며, 대한민국 남자로서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의 어느집 자식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으며, 고생 또한 좋아하는 사람 어느 누가 있겠는가? 돈으로 멀쩡한 자식을 병신으로 만드는 사람은 과연 올바른 대장부로 키우고자 하는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의과대학 출신 군의관이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 판정으로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존경받는 의사의 존엄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

병무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인한 군인 정신을 돈에 팔아먹는 군인도 문제지만, 사회지도층 인사인 사업가, 고위공직자,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이 돈으로 자식의 병역을 면제받다니 사회지도층의 도덕수준이 이 정도인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적발된 207명 중 구속된 100명뿐만 아니라, 비록 꼬리는 잡히지 않았지만 가슴조이며 시치미 떼고 있는 뻔뻔스런 자, 어리석은 자들이 허다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선악업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善惡)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과거·현재·미래의 인과가 휘돌아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 현생을 헛되이 잘못 보낸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뇌물을 주고 받는 것도 악업일 것인데, 내 자식 귀하다고 대신 남의 자식에게 부당한 고통을 준다면 언젠가 그만큼에 해당하는 인과응보가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당사자들은 사천왕의 철퇴를 기다리지 말고 지심참회해야 한다.

법산(본지논설위원·동국대 정각원장)

천연동굴 기도도량
아미산 황룡사

노천 삼존불 점안대법회



■ 주불인 약사여래불과 협시보살 지장보살(왼쪽), 관세음보살(오른쪽)이 노천에 통불로 조성되어 모셔졌다.

♣ 모시는 말씀 ♣



주지 상묵스님

귀의 삼보하옵고,
산하대지는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고 삼라만상은 새로움으로 춤을 추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따라 나듯이 한반도 중심인 이곳 중원땅 아미산 자락에 적멸상으로 나투신 약사여래불(15m) 관세음보살(12m) 지장보살(12m) 점안대법회를 교계원로 대덕 큰스님과 인연있는 신도님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가 청정하다고 하였듯이 산승이 아미산 자락 황룡사에 가부좌 한지 3년 황룡굴에서 솟아나는 감로수로 부처님께 공양하여 그 가피력으로 새로운 천년을 여는 오늘 미래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감로법으로 해탈의 문을 열어 삼업의 때를 씻는 귀의처가 되게 하고자 발원하였습니다. 인연있고 인연지을 신도님들께서는 이 거룩한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삼세의 모든 죄업 참회하시고 성불인연 맺으시어 모든 소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여래불
나무 대자대비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나무 유명교주대원본존 지장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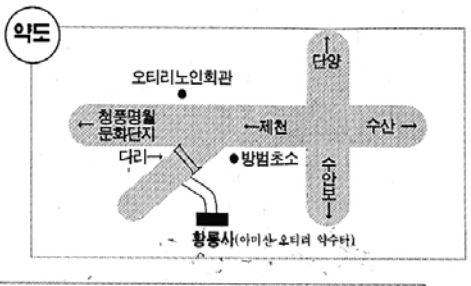
불기 2543년 5월

주지 벽송 상묵(碧松 常默) 합장
천연동굴기도도량 아미산 황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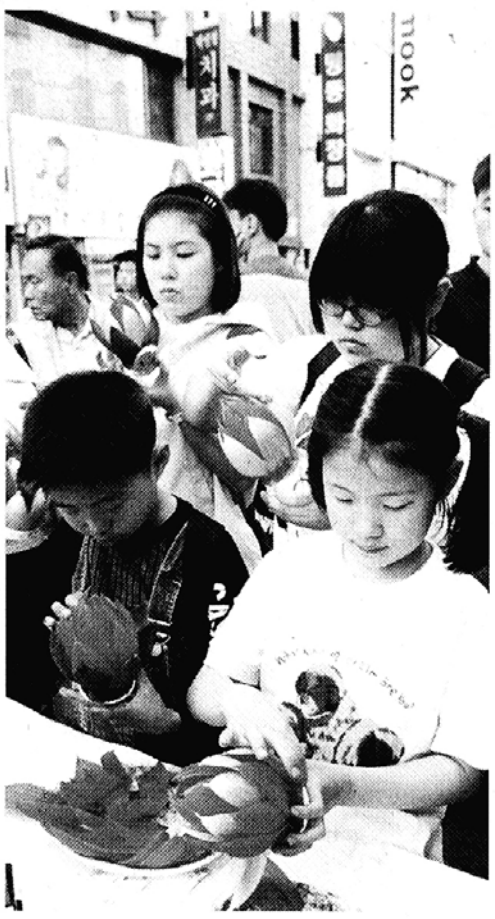
◆증명대법주 정각 대종사 석일화 대종사 석금암 대종사
◆증 명 효성 혜우 혜정 무주 혜안
◆봉행위원장 석혜봉
◆후 원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한국불교 법륜종,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불교TV, 불자가수협회

◐ 일시 : 불기 2543년 5월 12일(음. 3월 27일) 오전 10시
◐ 식순 : · 제1부 : 점안법회 10:00~12:00
· 제2부 : 축하공연 13:00~15:00
◐ 장소 : 아미산 황룡사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 70)
전화 : (0443)647-7728, 647-5591/ FAX : 647-8761

약도



★ 1부 점안법요식에 이어 2부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 법회날 동참대중 모두에게 주지 벽송 상묵 스님의 저서 〈하늘을 거울삼아〉를 1권씩 법공양합니다.



마음 밝히는 컵연등

Focus

종이컵으로 만든 오색연등이 불티가 났다. 4월25일 휴일을 맞은 동성로 대구백화점앞 광장. 평소 시위나 기업체의 관촉행사, 타종교인들의 합창이 벌어지는 이곳에 마음을 밝히는 연등 만들기행사가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청년불자들이 컵연등 시연회를 마련한 것.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보게 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연인 주부 어린이 벽안의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만든 연등을 소중히 들고가는 모습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환한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이윤호 기자

"위기극복은 이타행으로"

인도불교문화협 그나나쟈갓총재 방한 특강

인도불교문화협회 총재 바단타 그나나쟈갓 대승정(68)과 사무총장 유나이트 교수 일행이 국제불교아카데미학회(회장 김광태) 초청으로 4월 24일 방한, 2박3일 동안 국제불교 아카데미, 수원 봉녕사 비구니승가대, 현성정사 등을 방문하고 한국과 인도의 불교교류를 돈독히 했다. 24일 낙원동 국제불교아카데미학회에서 실시한 그나나쟈갓 대승정의 "21세기와 정신문화, 불교와 세계평화" 주제의 특강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인류생활의 두 분야 즉 문명은 소유하는 것이고 문화는 존재하는 것이다. 문명은 일부 위대한 정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는 정도 이상으로 뒤떨어지고 있어 이것이 심각한 불화와 반목, 심리적 공황과 평화의 부재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절망적인 위기에서 인류는 절박하고 시급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인 불교는 내면적인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낙관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깊은 자성과 수행없이 즉 내면적 자기변화없이 즉흥적인 대체방안이란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 수행자가 무소유만을 자랑해서도 안된다. 무소유와 함께 자각을 통한 중생구제, 즉 이타행을 해야 한다. 오늘의 문명이 가져온 위기는 바로 성직자와 지성인을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먼 훗날을 생각하고 문명과 문화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계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방관한 업보라 할 수 있다.



자비가 어느 정도의 지혜로 고취된다면 더욱 깊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 우리가 작은 촛불이라도 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비는 영성과 지속적인 행복의 길위에 광명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위대한 발광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 다가올 문명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생활지표인 카루나(자비) 메타(친절과 사랑) 무디타(이타적인 사랑) 우페카(정신적 초월) 등 영적인 정신을 계발해 불성을 찾는 일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中 시조산·소림사에 용성비 건립

서울 대각사 조실 불심도문 스님은 4월18일 중국 하남성 신정시 시조산에서 시조산 제11대 명인인 용성스님 비명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남성 해외교류협회 임설매 주석과 신정시 이화평 당서기등 중국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조산의 명인은 3천여년전 제1대 명인인 주나라 영왕(靈王)을 시작으로 제4대 명인 노자(老子), 제6대 명인 장자(莊子), 제9대 명인 이태백 등 중국 당대의 큰 인물로 전승되어 왔다. 도문스님은 또한 4월19일 하남성 숭산 소림사에서 용성스님 해동법맥 비명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김재경 기자

교차로

철마부대 3백여명에 수계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현성정사 주지)은 4월 25일 중부전선 철마부대 호국 철마사에서 수계법회를 열고 3백여명의 장병에게 수계하고 군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한 법문 후 위문품을 전달했다.

통천사 낙성법회 증명법사



법장 수덕사 주지는 4월25일 공군서산기지 통천사(주지 동광) 낙성법회에서 증명법사로 참석, 통천사가 공군 불자장병의 요람이 되어달라고 법문했다.

정각원 봉철 수계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11일 오후 4시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춘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전계사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02)2260-3015

결식아동 독거노인에 쌀·성금



법경 능인정사 포교원 주지는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사무소에서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성금 및 쌀(30가구에 20㎏씩)을 전달했다.

호국보탑 사적비 제막식



상륜 승가사 주지는 9일 오전 11시 남북통일기원 호국보탑 공덕비및 사적비 건립 제막법회를 봉행한다. (02) 379-2996

'21세기 불교음악' 특강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13일 오후 3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의 전망'을 주제로 부처님오신날 기념 특강을 한다.

中 동림사와 염불 결연

김재일 전국염불만일회 공동회장은 중국 정토염불의 최초 발상지인 여산 동림사(방장 전인스님)에서 한국과 중국간 염불결연식을 갖고 매년 정례적으로 염불에 관한 불교문화 교류를 갖기 위해 2일 출국했다.



천안 소년교도소 위문



정관수 대한불과회 회장은 4월29일 천안소년교도소를 방문, 참선법회를 봉행하고 빵과 음식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언어와 문자의 고향' 출판회



김화수 추전서당 원장(서예가)은 3일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언어와 문자의 고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불법 전파에 도움됐으면"

불교TV에 14억 보시 이대덕심보살



"힘들게 모은 재산이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불교TV를 살리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20일 불교TV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원도봉산에 있는 싯가 14억원 상당의 준 농림지 7백여평을 기증한 이대덕심보살(81). 76년 도봉산 덕천사를 창건하기도 한 이 보살은 불교TV 개국때부터 영상 포교를 위해 일조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으며 본원사주지 일봉스님의 권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이번 보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따리 장사를 비롯 행상 등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 왔다는 이보살은 "남편의 유언대로 불교 발전을 위해 회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1·2·3 포교운동 전개"

국방부 호국원광사 30돌 이협우법사



"포교는 특수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부처님의 명령이요 분부 말씀입니다."

4월25일 창건 30주년을 맞은 국방부 호국원광사 이협우(43) 주지법사는 이날 기념법회를 열고 "불심의 1 사람이, 주변의 2 사람을, 달마다 3 차례씩 포교하는" '1·2·3 포교운동'을 한 달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법사는 '법을 전하는 사람의 조건'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자신이 불심있는 사람이 되자.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듯 그를 연꽃에 태워 모셔와야 한다. △그를 연꽃 안에 길러 불자로 출산해야 한다. △아기를 키우듯 불자를 양육해야 한다. △참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 보살펴야 한다는 것 등.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상좌인 이 법사는 〈국군법요집〉에 담긴 한글 천수심경을 비롯 새벽예배, 행선축원, 반야심경 등을 직접 독경한 〈믿음을 밝히는 독경소리〉를 비매품으로 제작해 장병불자 및 신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위원 59명 · 전문위원 117명 위촉

2년간 문화재 조사 심의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정책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현 54명) 및 전문위원(현 113명)의 임기가 4월25일자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7개분과 문화재위원 59명과 전문위원 117명을 4월26일자로 위촉하였다. 다음은 문화재위원 59명의 명단이다.

〈제1분과〉 김동현 김은영 정영호 주남철 맹인재 김일진 신현식 윤복자 〈제2분과〉 고병익 강우방 김상옥(범하스님) 안휘준 전상운 정양모 강경숙 최승희 이동환 이수건 이난영 허영환 〈제3분과〉 이원순 한영우 김일진 정동오 최영희 김정배 정재훈 조유전 정옥자 김염자 〈제4분과〉 민길자 신찬균 박영규 정해조 곽대웅 심우성 이성천 김선풍 이종철 백대웅 서연호 허영일 강경숙 〈제5분과〉 안봉원 김윤식 윤일병 전상린 우한정 원종관 김수진 이인규 송준임 〈제6분과〉 한병삼 김동현 조유전 심봉근 최숙경 이기동 김병모 정영화 최몽룡

〈박물관분과〉 최만린 정양모 안휘준 전상운 김윤식 김종규 최승희 김병모 이종철 송준임 주남철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서엔 지혜 담겨 있어요"

애서가상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한국애서가클럽(회장 김덕형)이 선정한 제8회 애서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성암고서박물관장 조병순(77)씨. 그는 지난 60년대초 불교계 분란과 한자사용 억제정책으로 인사동등에 고서들이 무더기로 쏟아나오던 시절부터 40년동안 고서인생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모은 고서는 2만여권, 이중 21권이 국보(3점)와 보물(18점)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보다 40년 앞선 국내 최고의 필사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공개했다. 지난 4월초에는 한·중 금속활 종주국 논쟁의 열쇠가 되는 '어시책(御試策)'을 찾아내기도 했다.

조병순관장은 "선현들의 사유와 철학이 담긴 고서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회원 화합 음성포교 전념"

불자가수회 새회장 남강수씨



"불자가수회 결성 이후 줄곧 뒷바라지를 해 오긴 했지만 내세울 것 없는 제가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자가수들을 한데 묶어 불교홍포에 쓰임새 있는 모임이 되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4월28일 대한불자가수회 제6대 회장에 취임한 남강수(73세)회장. 불자가수회는 가입회원이 2백여 명이지만 방송가수와 무대가수의 정서적 견해차이로 정작 활동회원은 20~30명에 불과한 실정. 이 때문에 남 회장은 "회원간 화합을 도모해 조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10월경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효도콘잔치를 벌이는 등 불자가수회의 특성을 살려 대사회적인 포교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향도 비쳤다. 도필선 기자



영천 만불산 만불사 33m 대불상 제작 광경
영천 만불사 ☎(0563)335-0101

대 불 사

영천 만불산 만불사 아미타불 높이 33m 국내 최대 크기의 부처님을 4월 25일 여법하게 조성 점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의 각 사암에서 대불사를 계획하고 계신 대덕큰스님께 대불사는 아무에게나 조성을 맡기시면 잘못하면 조성도 못하고 돈만 많이 허비하고 마는수가 허다함으로 전문가에게 불사를 맡기셔야합니다.

누구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들 생각은 남을 시켜서 하면되겠지 돈만 많이주면 일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불사비는 몇 배나 들어야 된단 말인지 …

직접 대불을 전문으로 하는 자광조각원에서는 오랜 경험의 기술로 대작불사의 설계와 시공을 직접하므로 아주 비용이 적게 들며 또 대불사는 설계상 중요한 부분이 많아 섣불리 조성하면 원만 상호도 아니려니와 안한것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주 성곡사 입상 25m, 좌상27m, 미타사 입상 40m 등 경력과 경험이 많으므로 상담하시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석불, 목불, 대리석, 테라코타 등으로하며, 황금불, 동불, 석불의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T。0461-733-3485
H。011-436-3485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611-5
대표 金 光 烈
자광불교조각연구소

우리 모임에선

대구구도회 법당 이전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는 5일 대구시 중구 장관동 12-2로 법당을 이전했다. 구도회는 19일 법당이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22일까지 매일 특별법회를 열 계획이다.
(053)654-8533

국방硏 성불회 성지순례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윤동수)는 4월25일 회원 및 회원가족 4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운주사, 금산사 사찰순례를 가졌다.
(042)821-4414

MBC 불교硏 백담사 순례

MBC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4월24~2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백담사를 순례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애초 부산 MBC불교연구회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방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합동 성지순례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서울 MBC불교연구회 단독 행사로 치뤄졌다.
(02)789-2371

우리는선우 봄 정기수련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4월 24일~25일 경북 예천 서악사와 안동 봉정사로 제17차 봄 정기수련회를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에는 선우회원을 비롯, 우리는 선으로서 운영중인 여성노숙자쉼터 화엄동산 입주자 20여명 등 총 80명이 참가했다.
(02)2278-8672

수원교도소 합동법회



수원교도소 직원불심회(회장 고왕식)와 수원구치소 직원불심회(회장 심재환)는 4월 26일 봉녕사 수원포교원 보현사에서 합동법회를 가졌다.
(0331)211-1285

직장불자회 봉축 자비행 "기뻐요"

좋은일하는… 실직자에 무료 급식
불교사회봉사회 소년가장 · 군부대 위문
전북불교회관 경노잔치 · 노인진료 봉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직장 · 직능 신행단체들의 자비행이 활발하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미 지난달부터 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군장병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따주기 봉사, 소년소녀가장 및 거택노인 지원 등 자비실천 분야도 다양하다.

좋은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사무국장 이건식)은 애초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었던 실직자 무료급식을 한달 앞당겨 4월24일부터 원도봉산 홍법사에서 매일 3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또 13일, 20일 오후 2시 본 모임 사무실에서 따주기요법을 지역내 주민들에게 무료로 실시한다.

성훈따주기공덕회(회장 정유진)도 9일 강원도 원통 12사단 을지사를 방문, 따주기로 훈련에 지친 군장병들을 보살펴 줄 예정이다.

또 수원 재가불자들의 모임 금강반야회(회장 이연숙)는 9일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에서 양로원 안팎을 청소하고 조촐한 잔칫상을 차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로하는 등 부처님의 자비행을 벌인다.

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는 10일~20일 10일간 소년소녀가장 6가구와 거택보호자 4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쌀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고 이웃의 따뜻한 정을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5726 신병훈련소 군법당에도 떡, 음료 등을 마련해 방문한다.

심우회(회장 김명원)도 16일 연등축제에서 컵등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군부대, 양로원, 고아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여러달 전부터 연잎을 접어 컵등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은 16일, 17일 오후 2시 군산 흥천사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각각 3천명~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로잔치를 벌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불심을 잡을 계획이다. 22일 오후2시 전북불교회관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진료 및 이 · 미용 봉사도 실시한다.

그 밖에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가 27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떡, 케이크, 과일 등을 보시한다. 국립의료원 법우회(회장 황영희)도 30일 오후4시~6시30분 무의탁 노인 및 실직자 3백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등 각 직장 · 직능 신행단체들이 자비행을 실천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을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지역감정 타파 · 통일운동" 다짐

자민련불자회 창립 4돌 기념법회

한국자유민주연합 불자회(회장 박철언) 창립 4주년 기념법회가 4월27일 서울 마포 자민련 당사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응스님, 총지종 총지화 통리원장, 총화종 남정 총무원장, 조동종 학봉 총무원장, 조계종 현진 포교부장을 비롯 법사종 성순경 총무원장, 선진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김용환 자민련 수석 부총재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자민련불자회 박철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가 위기 극복과 망국적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자민련불자회가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국민대화합과 민족통일을 이뤄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불자회는 이날 법회 보시금 전액을 모아 송암보육원에 컴퓨터를 기증키로 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송캠페인

바른법연구원 법공양도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금강경 실천운동본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송캠페인과 〈금강경〉 관련서 법보시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보다 쉽게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원당 수련원에서 매주 체험위주의 금강경 가르침 실천 수련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른법연구원은 불자들이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하루 1백번 이상 지송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어 및 차량 스티커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을 비롯 독송용 〈금강경〉 등을 개인과 단체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011-9722-9832

이은자 기자

부산교육대 동문회 산악회 창립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산악회(회장 류동길)가 4월24일 통도사 부산포교원 법당에서 대한불교전국산악인회 손현수 총재,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 회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 겸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류동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사 순례를 통해 자기 본연의 성품으로 돌아가고 포교사로서 활동을 더욱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산악회는 지난달 12일 결성됐으며, 앞으로 산행을 통해 신행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제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등포교도소 재소자 150명 수계법회

영등포교도소 수감자 1백50여명이 4월21일 오계를 수지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3명의 스리랑카 스님과 도현스님(정혜사 주지)을 비롯한 6명의 삼소회 회원 비구니 스님 등 국내외 스님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교도소 내에서는 드물게 진신사리 친견과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도현스님은 "그동안 수감자들과 스님들은 죄인과 스승의 입장에서 만나왔다. 그러나 수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진신사리 친견을 통해 너와 내가 차별없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계기로 수감자들이 불교에 좀더 편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날 5계를 수지한 수감자들은 연비 후 꽃비를 맞으며 지난날을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수계법회에 이어서는 수감자 가족 영가천도법회가 봉행됐다.

군법당 법웅사 위문 하불동 강원 모임

하이텔불교동호회 강원모임(지역장 이성모)이 '선사님들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4월24일~25일 원주 야전 1군사령부 군법당인 법웅사에서 있었다.

20대 신세대방과 창가방에서 60대 장로방에 이르기까지 40여명의 지역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모임은 24일 법웅사 주지 이희용 법사의 법문과 사찰소개, 108 참회정진, 원주 불교청년회 축하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회원들이 각자의 불교체험과 불교발전 방안 등에 대한 법담 나누기 시간도 가졌다. 이튿날에는 원주 근교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를 순례하고 야전 1군 사령부 군 장병들과 합동법회를 가지기도 했다.



강원모임은 군장병들에게 합장주와 떡, 음료수 등을 보시했다.



불국사 경주불교문화회관 기공

불국사 부설 경주불교문화회관 기공식이 4월24일 경주여고 앞 부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지 성타스님, 부주지 종상스님을 비롯 이원식 경주시장, 김일윤 · 임진출의원,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등 관내 기관장과 불자 1천여명 이 참석했다. 내년 10월 완공예정인 경주문화회관은 7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유치원(1층) 신행단체 사무실(2층) 회의실(3층) 법당(4층)이 들어선다.



삼화사 비로전 · 극락전 낙성법회

강원도 삼화사(주지 원행)는 4월24일 비로전 · 극락전 준공 및 법당 후불탱화 점안식을 기해 제2회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법회를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 동해사암연합회장 양운스님을 비롯 이상록 삼화사 신도회장, 김인기 동해시장,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국민회의 장을병 의원, 소년가장,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낙성식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4월25일 불교문화원 낙성식을 가졌다. 이날 낙성식은 삼막사 회주 정대스님,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낙성식 이후에는 2부 행사로 가수 장사익씨 등이 출연한 문화공연이 열렸으며 수익금 전액은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으로 기탁됐다.



장산스님 '화엄경 백일법문' 출판회

부산 동명불원 주지 장산스님 〈화엄경 백일법문〉 출판기념법회가 4월22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김수성 국회의원, 민성기 대연성당 신부 등 2백여 명이 함께 했다. 〈화엄경 백일법문〉은 장산스님이 97년 9월부터 백일동안 법문한 내용을 엮은 책으로 〈화엄경〉 원문과 해석, 생활법문 등이 수록돼 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99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진
인도정토사 · 중국정토사 · 한국정토사 · 영종집요 · 아미타경 · 무량수경 · 관무량수경 · 왕생론 · 반주삼매경 · 무량수경종요 · 보왕삼매론 · 미타예참법 · 염불요문 · 염불의례 · 정토미술 · 정토론 · 정토음악	한보광스님(동국대) · 장휘옥교수(동국대) · 최봉수교수(동국대) · 태원스님(송가대) · 주명철교수(동국대) · 정태혁교수(동국대) · 강동균교수(동아대) · 김영미교수(이화대) ·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자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4월 10일~ 99년 5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산 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6월 3일(목) 오후 7시 (동산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17,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 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 가정 — "서로 뜻모아 말과 안색 화평해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경제한파를 겪으면서 우리의 가정은 나날이 해체되고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나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곳은 바로 가족의 품, 우리의 가정뿐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회사일로 지친 남편에게,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끌어온 아내에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라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한마디라도 건네보자. 나날이 따사로와지는 햇살만큼이나 우리 가슴속에도 사랑과 희망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면서 경전속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안팎의 친척 사이에서로 경애(敬愛)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무사불기훙경〉

▨자비스런 부모가 오래 길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다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산왕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와 같다. 〈심지관경〉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타일러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가르쳐주며, 사랑이 자식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또 좋은 사람에게 결혼시키고 수시로 필요한 것을 대어주어야 한다. 〈육방예경〉

▨사람은 마땅히 다섯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물질을 급여함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집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버리고, 마을을 위해서는 한 집을 버리며, 나라를 위해서는 한 마을을 버리고, 몸을 위해서는 대지를 버리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동서화합 위한 불교역할

제언



진관
동서화합불교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더이상 갈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반세기의 분단이 엄청난 민족의 내상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또 다시 동서의 분열로 민족의 미래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동서화합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민족의 앞날에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과거 정치사에서 동서의 갈등이 조장되어 누가 이해를 가졌는가를 따질때가 아니다. 국민의 화합된 힘으로, 우리 불자들의 노력으로 갈등의 질곡을 끊고 민족화합의 장을 열어 화합되고 서로 사랑하는 힘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지계와 화합 정신,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그리고 화엄원융사상으로 돌아가 민족의 화합을 위해 작게는 동서화합을 위해 타지역에 대한 민족사적 이해의 폭을 넓혀 본사별, 사찰별 교류를 확대하고, 타지역과 동서간의 법회를 조직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와 이해를 넓혀 갈등이나 분열이 없었던 한민족임을 다시 확인하여 서로 소외된 지역에 불자들이 먼저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확대하여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승화된 지역화합의 문화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래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민족사의 아픔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방관하고 소극적 역사관으로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현실의 고통구조를 풀어나간다는 수행적 견지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화합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비와 용서를 통해 불국토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가 4월29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지만 기대만큼 많은 스님들이나 사찰이 동참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한다면 불교가 동서화합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현하는 일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 것도 화합이요, 밝은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화합이다. 또 불교의 대중생활도 화합이요, 근본정신도 화합에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가슴을 열고 대화합의 장으로 나서 이 민족을 화합으로 승화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자.

열린마당 — 본사주지 겸직

94년 조계종 개혁종단이 출범하며 '힘의 분배'라는 차원에서 총무원장과 본사주지 등의 겸직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의 종헌 11조는 '본종의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계종의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의 종회의원 겸직금지를 그대로 둘것인가 풀것인가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금지조항 해제 경륜활용"

성덕 〈동화사 주지〉



종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제도 개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그물처럼 꼼꼼하게 짜졌을지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고래라도 드나들 수 있는 틈이 보인다. 그 틈새를 비집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 다툼이 생긴다. 조계종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그래 왔음을 상기하자.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종단 구성원들의 애종하는 마음과 위계질서의 확립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사주지 스님들은 법납 25세·세납 45세 이상인 종단의 중진들이다. 이 분들의 종회의원 겸직금지 해제 주장은 위계의 확립, 경험과 경륜의 나눔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세력의 확장이라는 일도양단식의 풀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교구본사 일만 해도 벅찰 때가 있다. 그러나 말사의 관리와 발전적인 종단운영을 위한, 또 교구본사의 현실과 부합하는 중앙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하고 조언하는 창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교구본사주지 종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

"겸직하면 부작용 더 많아"

청화 〈조계종 종회 부의장〉



94년 조계종 개혁은 종단 침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수에 의해 종단 운영이 좌우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수의 능력 있고, 종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스님들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이었다. 교구본사주지들의 종회의원 겸직금지를 규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였다.

94년 이후 젊고 의욕있는 스님들이 중앙종회에 다수 참여했으며, 활발한 종회 활동을 보여줬다.

그런데 최근 교구본사주지의 종회의원 겸직금지를 풀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94년 당시의 개혁을 되돌리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 겸직금지로 인해 종단에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미처 예상치 못했던 폐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더구나 본사주지스님들이 종회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 안목을 견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든다면, 분담금 조정의 문제와 관련해 본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종단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본사주지스님들이 중앙의 종회의원까지 겸직한다면 본사주지와 종회의원 소임 모두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독자의 소리

통도사불자 신도증 못만들어

본인은 70년에 송광사에서 수계하고 불교에 입문하여 불자가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 이후 통도사와 인연이 닿아 나름대로 정성을 가지고 신행을 해 왔으며 4년전 신도증을 발급받아 불자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정진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회비를 납부하고 신도증을 재발급하려 했으나, 통도사 말사인 한 사찰 담당자로부터 '통도사 소속의 불자'는 신도 확인은 물론 신도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한 지시가 총무원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꼭 발급받으려면 다른 사찰 소속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시비하고 싶지 않아 신도증 재발급을 포기하였다.

스님들간의 힘 겨루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겉다르고 속다른 불교계의 현실과 왜곡된 종단의 포교정책 및 종무행정을 목격하는 것 같아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조계종 신도증'을 가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불자된 신념으로 개의치 않으려 했으나, 우리나라 불교계의 살림살이와 처지가 안타까워 이같이 소견을 밝힌다. 김영철〈부산 사하구 당리동〉

건축법 재개정에 뜻 모아야

현대불교신문에서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관한 기사를 읽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사찰은 단순히 불교계만의 성지가 아니다. 온 국민이 보존하고 가꿔가야 할 문화유적이며 국민들의 귀의처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찰의 일주문 바로 가까이 음식점 등 유흥업소가 들어선다면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은 파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기사가 교계 신문에만 보도되니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종단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적은 홍보전단이라도 전국 각 사찰에 보내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건축법의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서명운동을 전국 사찰별로 펼쳤으면 한다. 임경화〈서울 송파구 문정동〉

목탁소리 — 종정의 拂子

정성운 〈취재1부 차장〉

조계종 종정 추대법요식 때마다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장이 새로 취임하는 종정에게 불자(拂子)와 주장자(拄杖子)를 증정한다. 그런데 올해는 전래돼온 불자와 주장자를 증정할 수 없게 되었다.

총무원은 지난 달 통도사에 공문을 보내 불자와 주장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답변이 없자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통도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도사는 "불자와 주장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정화회의에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정화회의는 지난 1월 월하스님을 종정으로 재추대했고, 종정추대 법요식을 별도로 봉행한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취소하기도 했다.

불자와 주장자를 새로 추대된 종정에게 증정하는 의식은 2대 종정인 청담스님(재임 1966. 12~67. 12) 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의 불자와 주장자가 전해내려오고 있다. 불자는 짐승의 털이나 마(麻)·면(綿) 등 부드러운 것을 묶어 벌레를 쫓거나 먼지를 터는 것이었다. 한국이나 중국의 선종에서는 설법할 때에 손에 들고 위의(威儀)를 드러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설법의 상징으로 쓰였다. 주장자 또한 나침반과 같은 권위의 상징이다.

총무원은 고민 끝에 "종정을 상징하는 불자가 정화회의측에 가 있어 전 종정 성철스님이 개인적으로 쓰던 불자와 주장자를 이번 종정 추대식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자와 주장자는 어디까지나 상징물일뿐 권위와 법통 그 자체는 아니다. 조계종의 권위와 법통은 종헌에 명시된대로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하는 종지의 실현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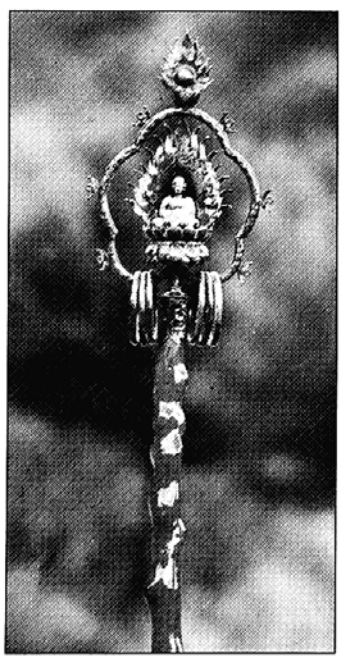
지난 조계종사태가 진정된지 벌써 넉달째이며, 불자들과 국민들은 대부분 현 총무원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대화합의 멋진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계기가 종정추대식과 부처님오신날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전래의 두 상징물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또한번 주어진 화합의 기회이다.

(swju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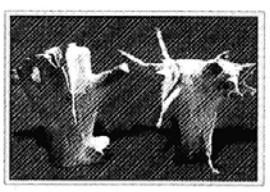
육환장 소리 떨그렁 떨그렁 … 시방세계 꽃이 피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불교전통 수행목공예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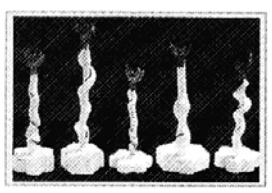
무수수의 세존 그 지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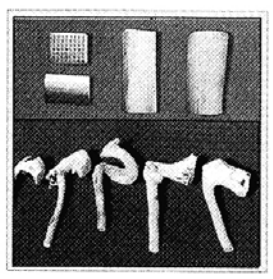
■육환장
구세구난, 법계의 상징물. 고려불화를 모본으로 제작. 108개 한정제작해 법의 상징으로 함. 머리부분은 청동재료로 장엄하고 몸체는 자연목 그대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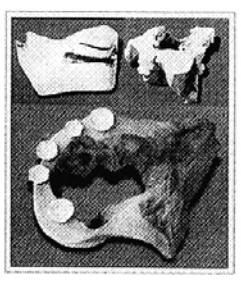
■솔향꽃이 : 十長生木인 소나무 송진목(50년 이상된 소나무가 죽어 20년쯤 되면 『송진목』이 됨)으로 만든 솔향꽃이는 천연향이자 살균제 공기청량제로 여법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묘미와 제행무상의 향기가 천년세월 한결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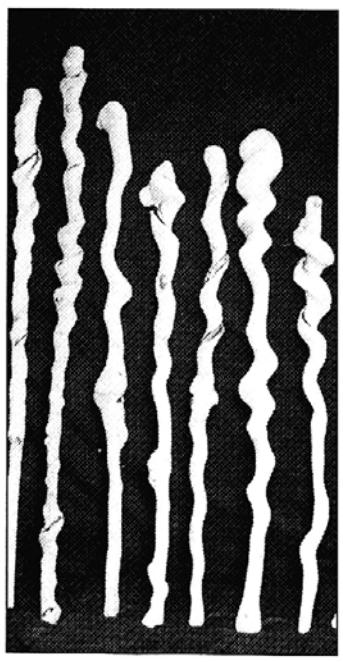
■연화촛대 : 육각형(연화) 받침대 위에 용대를 세우고 연꽃으로 장엄하여 『연화촛대』를 만들었는데, 세상살이도 제할 탓이며, 常樂我淨이 大光明임을 자각하는데 일조하리라 믿는다.



■목침 종망치 : 잠을 편히 자도록 도와주고 목뒤의 어혈을 풀어주는데 목침이 좋으며 종망치는 자연 그대로여서 오래 쓸 수 있다.



■원목 찻상·찻잔받침 : 100년 이상 고목의 나무결과 곡선미를 최대한 살려 만들었다. 소백산 계곡의 자연 고사목을 채취해 다듬었다.



■주장자
정법과 깨침의 상징이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된 자연목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특수건조해 휘거나 좀슬지 않음.

♠모시는 글 붙 보살의 명호는 나무를 붙여서 부른다. 「귀의한다」는 나무(南無)뿐지 않게 나무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석존은 무우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하셨다. 숲에서 안거 교화했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승가의 원형이 되었다. 이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나무 자체가 삼매를 깊게하고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당을 목재로 짓는 등 사찰엔 목공예가 특히 발달했다.
오늘날 승가는 전통이 잘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일부 불사는 수행의 차원을 떠나 상품화 되었고, 수입과 무관심으로 원형을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오탁악세의 지구촌, 世界一花를 위해 한국불교의 맥을 세우고 용맹정진할 때이다.
본 작품들은 백두대간 나무만을 엄선하여 자연 그대로 手作業했는데, 20년 절집 생활이 담겼다. 이 작은 시작으로 세계가 영산회상화 되길 기원드립니다.

- 육환자 연구원 비구 학림 합장 -

◐일 시 : 1999년 5월 2일(일)~ 11일(화)
◐장 소 : 웅전갤러리
(조계사에서 안국동 방향 100m 734-3851)
◐주 관 : 대한불교 조계종 육환장 연구원(0584-653-6788)
◐후 원 : 4·8봉축위원회,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인터넷 동화상으로…CD로

범패의 진수 '만끽'

법현스님 2년 작업…전통불교음악 이해 한몫
영어등 4개 국어로 번역 '범패로 불교포교'

전통 불교음악인 범패와 불교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또 구해·일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동희·효성·법현(영산재 이수자) 스님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5명의 소리가 수록된 '한국의 범패시리즈' CD 1집과 2집이 나와 범패의 보존과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범패 CD를 내고 범패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주역은 동국대 국악과 교수이며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 2년전부터 범패의 인터넷 작업을 해온 스님은 "불교음악에 관한 모든 논문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1년에 서 너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범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패 홈페이지에는 각의식 파트부분으로 나누어 △범패란 무엇인가 △범패의 기원 △범패의 기능, 특징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등 범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코너가 따로 있어 △영산재란 무엇인가 △영산재의 구성-작법무 불구 도량과 장엄 △영산재 의식·진행절차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범패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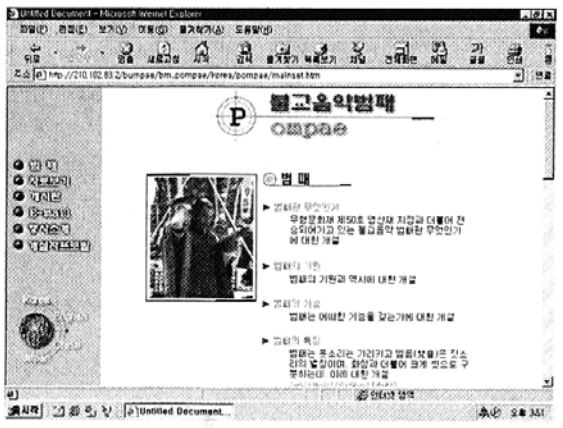
불교의식 코너에서는 불교의식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 하는 분류및 개설, 상주권공재 각배재 영산재 생전예수재 수륙재 등에서 불리는 범패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총 2기가 바이트의 범패 동영상이 제공되며, 이 가운데 일부분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다운로딩(가져오기)을 해야 한다. 동영상은 3가지 리얼 오디오로 작성돼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된다. 법현스님은 "불어와 독일어로도 작성해 한국범패의 세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한편 이번에 나온 범패 CD 제 1집 '산사의 향기'에는 향화게 복청게 다게 요잡 등 6곡이, 2집 '무지개 소리'에는 '복청게' '긔경작법' '도량게' '명발' '법고무반주가락' 등 8곡이 들어있다.

이번 음반은 영산재 인간문화재인 송암스님(봉원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전통불교 의식인 영산재등 범패와 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고 들을수 있게 됐다. '범패'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구운몽, 금강경 문학적 응용 사씨남정기, 화엄경이 모티브"

설성경교수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 펴내



16세기 말 최고 지식인 서포 김만중. 그의 소설속에는 불교의 진리까지 수용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 불교사상을 소설의 핵심 모티브로 삼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대중들의 이념적인 삶을 담아냈다. 서포의 대표적 소설인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저변에 있는 불교사상중 특히 선과 관음과의 관계를 찾아내어 두 소설이 지향하는 세계를 밝힌 책이 나와 흥미를 끈다.

설성경(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펴낸 〈서포소설의 선과 관음〉(장경각 刊)은 선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온 선문화 역사에 소설에서도 선의 경지를 서사체계로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구운몽〉을 통해 전통적 몽류형식을 진일보시켜 선의 경지를 서사체계로 형상하는 선몽의 형식을 창안함으로써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소설에서 선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육관대사와 성진이 펼치는 무언의 대화는 변형된 선의 문답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사씨남정기〉는 발단에서 유씨와 사씨의 결연은 관음화상의 찬시 인연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 속에서 사씨는 관음보살과 흡사한 자비의 상을 갖춘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서포는 〈구운몽〉에서는 〈금강경〉의 핵심사상을 진술하는 원리를 문학적으로 응용했고, 〈사씨남정기〉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남행기 특히 수월관음도의 모티브를 사씨의 남정기로 변형시켰다. 그러나 〈사씨남정기〉는 구운몽과는 달리 불교문화를 대중 신앙에 기대어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차용된 불교사상 등을 비교해 보면 흥미를 더해 준다

이 책에서는 '선과 관음'이라는 전제하에 서포 소설의 창작 계기가 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유학자가 어떻게 불교를 이야기를 하는가 등 유교와 불교이야기의 원융적 조화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삼존불등 한국회화 11점 佛 기메박물관서 복원

2000년 한국실 개관 예정인 프랑스 기메박물관이 5년간의 작업 끝에 최근 한국회화 11점의 복원을 마쳤다. 복원된 회화는 아미타삼존불, 감로탱화, 신중탱화, 풍속화 등으로 그동안 박물관 수장고에 쌓여 있었다.

이들 작품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기메박물관이 지난 93년 한국실 개관을 계획하고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로 피에르 캄봉을 임명하면서부터.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근무한 바 있는 캄봉은 일본·중국 수장고에서 작품들을 찾아냈다.

캄봉은 복원작업이 5년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작품 속에 담긴 정신과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원작업은 한국의 지원으로 외국 박물관에서 유물을 복원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유명 록그룹이 부르는 찬불가

21일 결식아동돕기 페스티벌
그룹 '카르마' 결성 기념무대도

8일 대전서 '아미타' 공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과 대전에서 전문 록그룹사운드의 찬불가 공연이 잇달아 열리는 등 찬불가 포교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1일 오후 7시부터 올림픽공원내 제2체육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불자탤런트 김민종과 미스코리아 출신 이영현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연에는 김경호를 비롯해 그룹 부활, 시나위, 신촌블루스, 할리퀸, 카르마(karma) 등 정상급 록가수들이 출연해 카르마가 작곡한 찬불가와 록 음악 등을 연주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록그룹 '카르마' 탄생을 축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4인조 록그룹인 '카르마'는 보컬 김지웅, 기타 이호준, 베이스 염재민, 드럼 김태윤 등 탄탄한 연주와 가창력이 풍부한 신세대 불자음악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작곡가 유승염(선기획 대표)씨는 "청소년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록음악이란 소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봉축의 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6시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찬불가 전문 록 그룹사운드 '아미타'가 자작곡과 편곡된 찬불가 등 40여곡을 발표하는 음성공양 법희를 갖는다.

충남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록그룹 '아미타'는 드럼과 전자기타, 신디사이저 등 6명으로 구성돼 98년 6월 창단 이후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 '아미타'는 12일 제천 황룡사 법회를 비롯 15일 부산연합 제등행렬 식전행사, 29일 경주불교문화대제전 등의 일정으로 순회 공연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묘향산·금강산 등 5곳 북한, 세계유산 등록 희망

북한이 8만대장경이 보관된 묘향산, 금강산, 고려시대의 고적을 포함한 개성시 등 5개소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교외의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 4월24일부터 북한을 방문했던 히라야마 이쿠오씨등 유네스코 대표단은 귀로에 베이징에서 4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의 송석한 문화차관은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묘향산, 용문대굴, 금강산, 개성시, 평양시 등을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대표단은 고구려 고분의 내부와 주변에 앞으로 1년간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기자재를 설치했는데, 북한은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 7월께 세계유산의 예비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욱 기자

'봉은예술제' 열린다

봉은사신도회 기획·연출
15일 오후 7시 강남구민회관

사찰 신도회가 기획부터 연출까지 총괄하는 대규모 예술제가 펼쳐진다. 강남 봉은사의 '99 봉은 예술제가 바로 그것. 봉은예술제는 신도회가 스스로 아기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문화를 통한 포교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은사(주지 원혜) 신도회가 주관하는 봉은예술제는 15일 오후 7시 강남구민회관에서 막이 오른다. 봉은예술제는 '봉은 왕사찰이여 21세기를 향해 진여히 나팔을 불어라'라는 서막에 이어 화관무, 태평무, 뱃노래와 찬불가가 1부행사를 장식한다. 이어 2부에서는 창, 중창, 독창, 무용이, 3부에서는 정부기교수의 지휘로 봉은사 어머니합창단의 합창이 싱그러운 오월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이번 예술제에서 지휘를 맡은 정부기교수(중앙대 작곡과)는 "국악과 무용 서양음악 재즈가 한데 어우러져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사찰음악회는 곧 포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88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실시했던 봉은예술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문화 단신

동국불교미술인회 '부처님일대기전'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가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제4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가졌다.

개막식에는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월서스님(호계원장), 원택스님(총무부장), 양산스님(문화부장),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찬수(목아불교박물관장), 신응수(문화재기능인협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사진〉



6일 동국문화예술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사진)은 6일 오후 7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제3회 동국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새 천년을 문화예술의 시대로'를 주제로 문화예술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이 펼치는 1부는 기악합주와 범패 공연이 어우러지는 '영축산의 환희', 시낭송과 대금연주의 '찬탄의 향연', 관현악연주와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지는 '어울림의 극치', 김영임씨의 회심곡과 민요 '참회의 아름다움' 등으로 이루어진다. 2부는 단막극 '융합의 미학', 가야금병창인 '법음의 향기', 승무와 교방무 등 '환희의 법열', '불교가요' 등으로 꾸며진다. 입장료는 무료. (02)2260-3607

불교방송 9돌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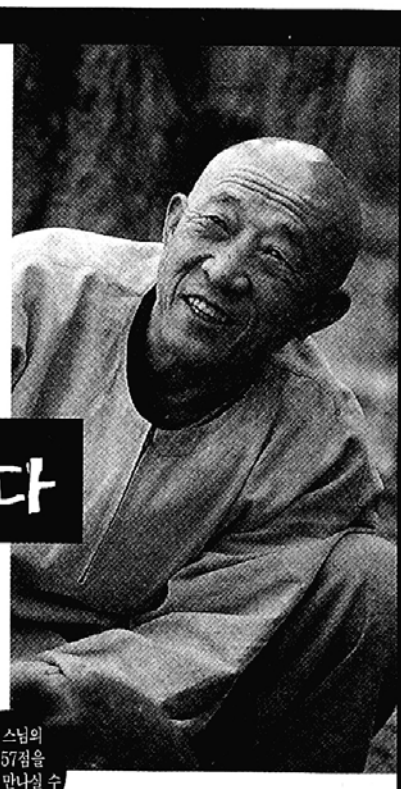
불교방송 개국 9주년 축하 및 후원금 마련을 위한 청광 김용대화백 초청 달마불화 전시회가 10일~15일 불교방송 지하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김화백이 독수리와 달마대사를 주 소재로 그린 16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김화백은 "이번 전시회는 인연한 모든 사람들의 화목한 가정과 건강, 행운을 발원하며 작업을 해나갔다"고 말했다.

즐거운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의 그림이 있는 에세이

참 좋다. 정말 좋구나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인생이야기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국판/264면/8,500원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는 스님…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만사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스님…
개구쟁이 화가 수안 스님이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손바닥 안에 물감 살 돈을 쥐어 준 할머니, 아버지가 사준 꽃신 한 켤레만으로도 평생을 만족해하며 살아온 지체 부자유자 아가씨, 새해 아침에 내의와 양말을 사다 준 걸인들, 기도하는 내 어깨에 앉아 승복 속의 솜을 빼내 가던 새 한 마리, 바닷속의 물고기, 돌보는 이 없어도 봄이 오면 절 마당에 돋아나는 쑥 한 뿌리…. 이 모든 생명체들이 나로 하여금 깊은 심상을 그리도록 한 것뿐이다. 이제 나는 그들로부터 받아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글과 그림을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준다. '저자의 말' 중에서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출판기념회 및 저자사인회
· 5월 19일(수) · 오후 6시 · 출판문화회관 강당
(독자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61-3 남산빌딩 2층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

운주사 선학총서 시리즈 첫권

'불교와 유학' 번역 출간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어 기존의 전통 사상및 문화 등과 대립 융합하는 과정과 선불교의 특색들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선학총서 시리즈가 나온다.

운주사는 선학총서시리즈 첫번째 권으로 남경대학 라이용하이(賴永海)교수의 〈불교와 유학〉을 번역, 출간했다.

총서 전체의 개괄서인 성격을 지닌 이 책은 불교사상과 유가학설의 상호관계를 계통적으로 논했다. 사유양식과 사상, 학술의 특징, 이론 취지 등의 측면에서 불교와 유가의 동이(同異), 서로간의 영향과 침투 등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떤 방면에서 중국의 유학에 영향을 끼쳤을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불교와 유학의 관계를 공정하고 정확한 관점과 논리로 사상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운주사는 〈선학과 현학〉, 〈선과 노장〉, 〈선과 예술〉, 〈선과 시학〉, 〈여래선〉, 〈조사선〉, 〈분등선〉 등 전 7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선학 총서 시리즈는 중국의 전통사상과 불교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인 중국선학을 다루고 있다. 〈값 1만2천원〉

한국 선불교 내면까지 통찰

버스웰교수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송광사 생활등 개인적 경험 바탕
선방예절·고행법등 자세히 기록



"불교학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스님들이 하는 말과 글로써 한국불교 특징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UCLA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로 한국불교와 중국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최근 우리말로 완역된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김종명 옮김·예문서원)에서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지난 74년부터 79년까지 저자가 승려로써 5년간 지낸 송광사 스님들을 비롯 우리나라 선승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또 선승으로서 체험과 우리나라 승가제도에 대한 내용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선승들의 생활상은 물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승보종찰 송광사란 모델을 통해 한국선불교의 특징을 서양인들에게 전하는 한국선불교의 종합보고서인 셈이다.

저자는 "어떻게 실천적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김장만들기, 메주만들기 등 절에서 식생활 허결방법에 관한 부분과 선방 일과표, 선방예절, 선방규정, 고행법 등 선방 생활은 물론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절에서 이탈하는 수좌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또 은사 구산스님의 수행기와 열반에 들때의 상황 등 구산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에서 각별한 사제간의 애정도 느낄 수 있다.

70년대 우리나라 승가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개인적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절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선수행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전개돼, 저자의 필력도 돋보인다.

한국의 초기불교 등 현대불교의 현황까지도 수록해 사료적 학술적가치로서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알리는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돼어 있다. 현재 서양에 한국 불교 현대사를 조명한 서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 스님들과 미국의 자연사박물관 캔달박사 등 저명한 학자들의 자문과 비평과정을 거쳐 출간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선가의 단상들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의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책이라고 논평한 이 책은 서양인들이 영어로 읽을 만한 한국불교 서적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동양학 관련 학자들과 독자들에게는 유익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은 부록으로 한국의 절에서 중요시 되는 염불문을 수록했으며, 참고문헌, 주까지 덧붙히는 등 한국불교에 대한 깊은 시각에서 서양불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파란눈의 선승이 참여자이면서 관찰자의 시각에서 포착, 한국불교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보아넘긴 절 생활과 수행생활의 사소한 면면들까지 기록하고 있어 선불교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저자 로버트버스웰은 "현대 한국 선승들의 승가생활은 서양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불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는 값진 모델이 된다"고 한국불교를 평가했다.〈예문서원,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부모님을 제외하고 구산스님만큼 삶에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이 없었다는 버스웰교수는 송광사 수행시절 은사 구산스님을 자주 만나 법을 청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시 공 사
4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조계종출판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6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7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8	입산	재 연	문학동네
9	티베트의 지혜	소갈린포체	민 음 사
10	유식학개론	이 만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마음다스리는 법=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문제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는데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깨달음을 성취하여 해탈하는 것보다 바르게 보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것일까.

개정판인 이 책은 공에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김정빈. 〈물병자리, 값 7천5백원〉



▲금강산 유람기= 선인들의 명승지 유람의 뜻과 모습, 형태를 담아 금강산의 실제 모습을 밝힌 금강산 유람의 길잡이. 법종스님의 유금강록 이곡의 동류기 등 선인들의 금강산 기행문 및 시를 연대순으로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금강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으로 본 금강산, 사적과 사승, 전설 등을 모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동주 편역. 〈전통문화연구회, 값 1만원〉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강원도 오지에 있는 작은 물줄기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환경과 개발, 자연과 파괴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의 정점에 위치한 동강. 이 책은 동강을 통해 '생명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함께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다른세상, 값 1만2천원〉



▲글로벌 워크=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는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중 하나이다. 글로벌 사회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 메리오하라 드브로 하와이대학 교수. 전기정·이왕재 옮김.〈한국언론자료간행회, 값 1만8천원〉

일상의 소식 그림으로 글로

수안스님 '참좋다, 정말 좋구나'



선화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한 수안스님이 첫 에세이집 〈참좋다, 정말좋구나〉(늘푸른소나무)를 펴냈다.

에세이집은 30여년동안 구도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 50여편을 모았다. 밝은 수채화풍의 그림 60여점도 곁들여 재미를 더한다.

스님에게 수표를 전해 주기 위해 악수를 청한 순박한 할머니, 종이 위에 물감을 쏟은 철부지 꼬마에게 오히려 그림을 그려주는 스님, 동양의 그림을 배우기 위해 축서암에 찾아 온 서양 화가에게 오직 '먹이나 갈아라' 고 가르친 얘기 등 이름없는 촌부들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자비가 물씬 풍긴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개구쟁이 스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진 스님의 글은 마치 선화같다.

기도생활과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아무리 낯설고 험한 곳이라고 꼭 찾아가고야 마는 수안스님만의 치열함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한 만큼 순수한 내면의 세계도 엿볼 수 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단순한 재미를 떠나 삶의 지혜와 함께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람회장을 찾아온 할머니의 손을 잡고 펑펑울고, 승복의 솜털을 뜯어가는데도 새의 따뜻한 둥지를 위해 기도하는 스님의 인생이야기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값 8천5백원〉

화제의 책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 | 지운스님 옮김

중국 도선율사의 '출가란 무엇인가'



"번뇌가 점점 소멸하면 마음도 밝고 깨끗해져서 선정과 지혜가 생겨나고 대승의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니 보리종성이 사는 곳에 나아가게 된다." 중국 남산율종 도선율사(596-667)가 말년에 제자 자인스님에게 '출가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공부의 의지처로 삼도록 당부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淨心誡觀法)〉이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다. 송광사 강원 강주 지운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수행하고 받아 지니기를 부탁함' 등 35편으로 수행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지침서다. 〈토방, 값 8천5백원〉

화제의 책

선에서 배우는 경영 | 이남재 옮김

경영에 부처님법 응용실천하면…



경영자가 경영에 종교의 가르침을 응용하고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종교의 윤리적인 측면만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지침서가 나왔다.

前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무과장 이남재씨가 번역한 일본 구보 토시요시 스님의 〈선에서 배우는 경영〉은 선이란 수행방법을 경영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책은 물질의 경영에서, 마음의 경영으로 전환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래, 5천원〉

화제의 책

식선식오 | 최진호 엮음

27가지 음식에 얽힌 108번뇌 인생



'선식으로 깨달음을 얻어라'는 부제로 최진호 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엮어낸 〈식선식오(食禪食悟)〉는 일본 요시모토 죠오호우스님이 승려생활을 하면서 느낀, 생활 단편을 적은 수필집.

이 책은 계절별로 각각 27가지의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사고(四苦)와 팔고(八苦)에서 유래되는 108번뇌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포교버섯과 요리주임스님편에서는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며, 선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불교춘추사, 값 7천원〉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반야심경〉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법

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혜원 역/신국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 주 사

통신판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佛教大辭典

最多語彙·最新譯解·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주문가230,000원)
밀교사전 70,000원

♣. 신한은행:324-12-407937
♣. 농 협:053-01-102503 (예금주:김정길)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日 법륭사 몽전관음상 백제 성왕의 등신상"

김상현교수 주장…"위덕왕이 부왕 연모 조성"
성예초 · 일본서기등 분석 백제제작설 입증
日, '성덕태자 관음상' 주장…年 1회 공개 秘佛

일본 법륭사(法隆寺) 몽전(夢殿)에 비불(秘佛)로 전해오는 구세관음(求世觀音)이 백제 성왕(聖王)을 모델로 만든 유상(遺像)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한·일 미술사학계간에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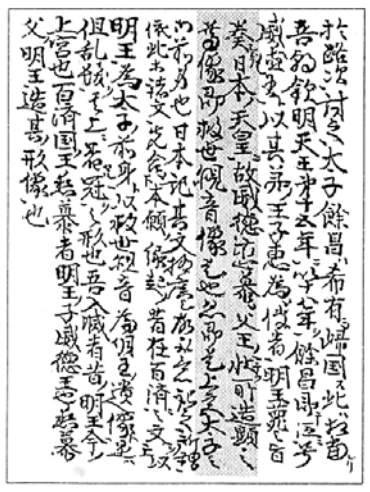
4월24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15세기초에 씌여진 〈성예초(聖叡抄)〉에 의하면 구세관음은 백제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의 모습을 연모하여 그 형상을 만든 존상"이라며, "세계에서 둘도 없는 조선의 걸작품이 일본 최고의 불교조각으로 뒤바뀐 사실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성왕의 유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몽전관음은 일찍부터 일본 불교의 확립자인 성덕태자의 관음화신을 조성한 보살상이라는 설이 제기된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이다. 몽전관음상은 기본적으로 보살상이지만 179㎝의 장신, 유난히 큰 코, 이형의 콧수염 등 속인(俗人)의 모습이 느껴져 '태자의 면상(面相)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후에 만들어진 성덕태자상과 모습이 다르고, 유독 이 상만이 200여년 동안 흰 천에 싸여 비밀리에 보관돼 왔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몽전관음이 성왕의 유상인 동시에 성덕태자의 전신이라는 설'은 백제 성왕이 성덕태자의 전신이라는 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1백명의 백성을 특별히 출가시켰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나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 등의 제작동기에 유의할 때 몽전관음이 백제 성왕의 등신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현 교수

실제로 몽전의 구세관음에 대해 몽전비불이 공개되던 1884년 법륭사 승려들은 이 불상이 '추고천황(推古天皇) 때에 조선에서 전해진 것'이라 했고, 당시 이 상을 조사했던 페놀로자(미국 학자)도 '조선미술의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금자탑'이라고 했다. 조선의 제작품으로 용된 남양(南梁)양식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백제조각으로부터 비롯된 것' '6세기말의 일본문화는 조선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시의 일본 문화수준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등의 견해가 분분했다. 그 결과 공개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몽전관음상을 일본 최고의 불상조각으로 세계에 자랑한다. 몽전관음은 1년에 한번 일반에 공개되는 비불(秘佛)이다.



◇〈성예초〉에는 몽전관음이 백제성왕의 모습을 본따 조성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내학자들 간에도 제작시기, 전래문제, 양식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논문전제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현존하는 재일한국불상의 제작지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교수는 "몽전관음의 제작지가 백제였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한·일 두나라의 미술사전공자 및 불교사를 하는 사학전공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는 공동체적 생명관 중시"

진월스님 '이땅의 철학-생명'서 제시

"불이론적 연기설에 의한 대승불교의 생명사상이 생태학적 생명인식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더불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불교의 연기적 생명사상은 개체적이고 일시적인 한계를 넘어 우주적으로 영겁에 뻗쳐 무한하게 전개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상황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사상연구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최로 '이땅에서 철학하기-21세기 한국철학의 방향모색-생명'을 주제로 4월24일 열린 세미나에서 진월스님(동국대)은 "불교는 생명 자체를 거론하려 하지 않았고 삶의 내용과 의미의 추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개체적 생명보다 공동체적 생명에 중심을 두고 개체의 생명은 일시적인 변화가 있겠지만 공동체는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보며 우주적 생명을 깨닫고 누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후부터 우리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전승되어 온 불교적 생명사상은 민중 가운데에서는 업에 따라 유전함을 믿는 근본불교적 성격이 강하고 학식과 수행이 깊은 이들은 대승불교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불교의 생명사상은 생명 자체에 대한 본질의 규명에 추상적으로 천착하기보다 생명현상에 대한 여러 구체적 측면이 다양한 불교 문화사적 관점에서 인식되어 논의되고 서술되어 왔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스님은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새롭게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니이체의 생명사상'에 대해 발표한 김정현 교수(원광대)는 "니이체의 생명사상은 인간 의 자기 긍정과 세계긍정, 정관적 자기자각과 자기창조, 사랑과 생명의 언어를 통해, 세계와의 진정한 만남을 찾는 것에 있다"며 "유럽문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창된 삶의 긍정윤리는 경제적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지구문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언어의 사유문법을 개발하는 하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부처님의 침묵 실천적 암시설법"

이필원씨 '초기불전에 나타난 무기설 연구'

제자들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붓다는 침묵(무기)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나.

이필원씨(동국대)는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 제 20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초기불전에 나타난 무기설 연구'에서 니카야에 나타난 붓다의 형이상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난문(難問)의 제기에 대해 단순히 침묵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류하거나 버리거나 거부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난문에 대한 붓다의 태도는 단호하고 의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붓다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각자의 견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공허한 논쟁이 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해명 즉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니카야를 살펴보면 붓다는 적극적으로 난문에 대해 일련의 체계와 목적을 가지고 답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붓다는 난문에 대해 '팔정도'라는 실천윤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이씨의 지적이다. 팔정도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을 성취하는 방법론이라는 것. 이씨는 붓다의 무기가 단순한 침묵이 아닌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금강삼매경론은 정혜불이사상"

원영스님 논문발표

선정과 지혜와의 관계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 〈금강삼매경론〉과 육조단경에 나타난 신수와 혜능의 견해를 동시에 살펴본 논문이 발표됐다.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의 제9회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원영스님(성철선사상연구원 운영위원)은 '〈금강삼매경론〉에서의 선정과 지혜'를 고찰한 논문에서 〈육조단경〉에서도 점수주의인 신수는 선정이 먼저이고 이에 따라 지혜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돈오주의인 혜능은 선정과 지혜가 동시라고 하는 등 논의가 분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의는 선종 내에서는 물론이고 불교사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것으로 선종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동시라고 주장하는 혜능의 주장이 정통으로 인식되어 왔다.

원영스님은 "〈금강삼매경〉은 초기 선종의 발전과 큰 관련이 있고 〈금강삼매경론〉은 선종이 아직 융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정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만큼 자유로운 입장"이라며 "금강삼매 역시 〈육조단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선정과 지혜가 다르지 않다는 정혜불이(定慧不二) 사상에 입각해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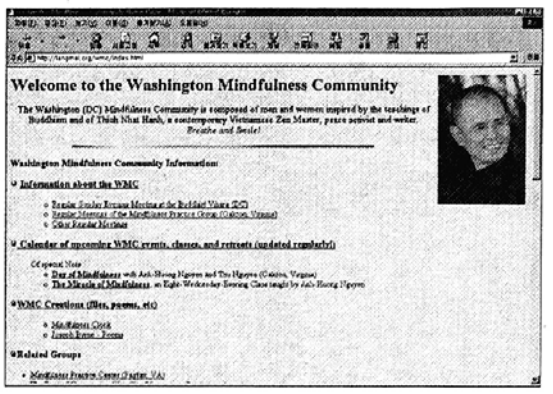
'보조사상' 12집 발간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이 〈보조사상〉 제12집을 발간했다. 12집에는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 〈계초심학인문〉의 연구 등이 실렸다.

8일 백련불교아카데미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제10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8일 개최한다.

주제는 '불교연구에서의 인터넷 활용방법', 발표는 정기문 교수(강원대)가 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베트남 불교

베트남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불자네티즌은 무엇보다 먼저 베트남불교사와 틱낙한 스님의 정념운동의 정수를 모아논 사이트, 워싱톤정념회와 후(Hue) 사원 사이트를 방문해야 한다.

대대적 참여불교운동

▲워싱톤정념회(Washington Mindfulness Community)

워싱톤정념회는 틱낙한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미국 불자들이 1989년 결성한 신행단체로, '다섯가지 놀라운 정념수행(Five Wonderful Mindfulness Trainings)'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틱낙한스님은 공산화된 베트남을 떠나 40여년동안 미국·프랑스 등에서 베트남 선불교의 전통을 가르치며, 전통적인 명상과 평화적인 시민저항운동을 결합시킨 '참여불교운동'을 펼치고 있다.

워싱톤정념회 회원 대부분은 프랑스 남부의 프럼 빌리지에서 정념수행법을 배웠다. 이 수행법은 틱낙한스님이 전통적인 가르침과 수행법을 현대 서구사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수행철학이다.

이 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정념수행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죽음의 고통을 직관하여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 나아가서는 광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정심을 증장하는 것.

2단계 - 착취와 사회적인 부정, 도둑질과 억압을 직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람과 동식물 광물을 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

3단계 - 성행위로부터 오는 고통을 직관하여 책임감을 기르며, 개인과 가족, 사회의 안전과 고결함을 보호하는 것.

4단계 -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

5단계 - 소모로부터 오는 고통을 직관하며, 정심을 다해 먹고, 마시고 소비함으로써 나와 가족 사회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베트남승가공동체-자비의 보트' '프럼 빌리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와 워싱톤정념회에서 마련한 법회 소식지도 열람할 수 있다.

베트남 사원봉안 불상

▲후사원(Hue Temple)

시드니의 대표적인 베트남계 사원인 후사원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베트남불교사와 각국의 베트남 사원에 봉안된 불상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베트남불교의 전통은 테라바다와 마하야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인도를 통해 유입한 마하야나 전통은 엘리트불교와 농촌불교 모두에 영향을 주었고, 그 후 200년 정도 뒤에 중국을 경유한 테라바다 전통이 다시 유입되면서 독특한 베트남불교 문화권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베트남불교사를 정리한 안홍(Anh Huong) 스님은 "베트남불교의 현재 모습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서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후사원을 비롯해 각국의 베트남 사원에 봉안된 20여개의 불상과 불보살상도 열람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워싱톤정념회 : http://langmai.org/wmc/index.html
△후사원 : http://metalab.unc.edu/vietnam/exhibit/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空도 空하다" 반야 공관 해설

대지도론 (하)

글쓴이



김 성 철

〈중앙승가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17

6바라밀 외면 공성 추구 '사견인'
보시·지계·인욕 선수행의 복덕문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선바라밀의 수행은 아비달마 불교적 의미의 선과 대승적 반야바라밀이 결합된 것으로 선에 수반되는 갖가지 규범과 개념들의 공성에 대한 자각의 토대 위에서 무한한 이타심(利他心)을 갖고 선수행을 닦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란함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라든지, 버려야 할 탐욕이나 장애가 그 실체가 없다고 해서 선을 닦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에 대한 반야 공관적(空觀的) 조망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행자에게 아비달마 불교적 선수행은 필수적이다. 비단 선수행의 경우만 그런것이 아니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등의 수행도 반야바라밀의 터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된다. 〈대지도론〉에서는 보시와 지계와 인욕의 세 가지 수행을 복덕문(福德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복덕을 쌓는 수행을 해야 그 동안 지었던 온갖 죄업을 씻어내고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소원을 풀게 되어 비로소 지혜문(智慧門), 즉 마하반야바라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선정으로 단련되지 않은 산란한 마음으로는 결코 모든 존재의 실상(實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바람앞의 등불이 물건을 비출 수 없다고 하면 육심도 내고 화도 내며 교만하고 어리석다. 공을 말하기는 해도 공도 역시 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리고 단지 분별심과 삿된 마음으로 공의 상(相)을 취하여 희론(戱論)을 벌인다. 진정한 공성이란 보시와 지계와 선정등의 수행을 쌓아 그 마음이 유연해지고 번뇌가 희박해진 후 터득되는 것으로 이런 공성을 직관한 보살은 공의 상(相)을 취해 희론을 벌이지도 않고,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육심이나 화를 내지 않으며, 공도 역시 공하다는 공공삼매(空空三昧)에 대한 조망 역시 갖추고 있다. 〈대지도론〉에서는 공성에 대한 지혜만 추구하는 사견인(邪見人)을 다음과 같이 소금의 비유를 들어 비판한다.

'소금의 존재를 모르던 어느 마을에 한 방문객이 왔는데 그는 고기와 채소와 같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금을 쳐서 먹었다. 한 농부가 그를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방문객은 이것은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농부는 "이 소금이란 것은 어떤 음식이건 맛있게 만드니 그 자체가 맛이 기막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그 소금을 빼앗아 입에 잔뜩 털어 넣었다가 짜고 써서 입안이 헐었다. 그러자 그 방문객에게 "당신은 어째서 소금의 맛이 좋다고 하였소"라고 따졌다. 방문객은 "양을 잘 맞추어야 맛이 있지 소금만 먹으면 어떡하나?"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대지도론〉의 비유를 육바라밀에 적용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등의 덕목은 고기나 채소와 같은 음식에 대비되며 바라밀이 의미하는 반야 공관적(空觀的) 조망은 소금에 대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시 등의 여섯 가지 덕목은 도외시하고 단지 반야바라밀적 공관만 추구하는 수행자는 자칫 〈대지도론〉에 의해 비판되는 사견인(邪見人), 즉 악취공자(惡取空者)로 전락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선바라밀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갖가지 선어록(禪語錄)은 선과 바라밀 중, 선보다 바라밀적 측면인 반야공관(空觀)에 중점을 둔 소위 반야어록(般若語錄)이다. 따라서 선어록에 대한 공부 이전에, 또 그와 병행하여, 선정(禪定) 수행은 물론이고 보시와 지계 등의 복덕(福德)을 쌓는 생활이 필수적일 것이다. 선어록이 마치 입안에 한 웅큼 털어 넣는 소금과 같이 공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6

반야바라밀다 문헌 ⑥

"사물을 영원하거나 무상한 것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실로 무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자신의 마음만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相)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이중성은 그릇된 분별심과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밀린다팡하〉 중에서)

행복과 고통은 둘 다 비실제적이다. 고통은 '공중에 퍼지는 꽃향기' 만큼 비실제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의 본래 모습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왜곡의 산물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철학에서는 객관적인 서술로 '고통'을 묘사해 왔다. 그 이유는 사고할 수 있고, 감수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밀린다팡하〉는 밀린다왕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모순되는 부분을 묻고, 이에 대한 나가세나 장로의 대답으로 구성됐다.

이 경전에서 밀린다왕은 왜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는 '자아'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무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게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자아도 없고 무아도 없다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처님은 교사라기 보다는 의사이다. 그는 항상 대화를 상대방의 정신적 혹은 지적 성숙도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쳤다. 물질을 중시하고 거친 사람들에게는 '자아'에 관해서 말했다. 또 세련되고 아직은 이기적이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 추구를 강화는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쳤다. 자신의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그들 속에 열반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열반에 가까이 있고, 자아에 대한 모든 애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아와 무아가 없다고 가르친다.

"행복과 고통 공중에 퍼지는 꽃향기"

사실 자아라는 견해가 진실이 아닌 것처럼 무아라는 견해도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해독제인 것이다. 백내장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이나 파리가 있는 듯이 보여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감지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바보들이 상상하는 자아·무아를 전혀 실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고통과 행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타인을 도와야 할 때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비심'은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서 인내된 고통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추론에만 의존해 고통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다. 사실 대부분의 철학에서 고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차가운 위안일 뿐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조시키는 사람은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신성함'이라는 철학의 논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부처님은 관습을 무시하고 장신적 삶의 리듬을 위해서, 그것을 저 뒤에 남겨 두었던 것이다. 자유롭고 편안하며 소탈한 삶을 가르친 것이다.

따라서 나가세나 장로는 "위대한 현인은 우리에게 모든 견해를 피하도록 가르친다.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모든 주제는 반대주제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 쪽도 다른 쪽도 모두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번역=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감정은 어디서 느끼나

우리는 은연중에 기쁨이나 슬픔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표현을 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감정은 뇌에서만 느끼는 것이지 손가락이나 무릎과 같은 곳에서도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생각은 왠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인드라의 거울처럼 전체가 부분에 들어있고 부분이 전체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깥 세상의 반영, 몸밖의 우주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몸 전체 속에 신체의 각 부분이 들어있고 신체의 각 부분 속에도 전체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은 관계로 서로 얽혀있으니, 우리 몸의 각 부분들 사이, 각 부분과 몸 전체는 서로 서로 얽혀져 전체가 같이 (단어의 정의 그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자연스럽다. 그럼 서양과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먼저 감정의 지각 과정부터 살펴보자.

고통과 쾌락 같은 지각은 자극의 전달을 통해 뇌에 의해 인지된다. 신경 자극은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알려진 화학적 심부름꾼에 의해 전달된다. 신경세포는 자극이 도착하면 일련의 신경전달물질을 만들고 이를 방출한다. 신경전달물질 분자들은 한 신경세포의 끝에서부터 발생해 다른 신경세포에 있는 특별한 수용처와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화학 정보가 전달된다.

신경세포는 호르몬에 의한 정보전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세포막의 일부가 뻗쳐 나와 신경섬유를 형성했다. 신경세포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은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 호르몬과 구별하여 신경전달물질이라 부른다. 뇌를 만드는 신경세포도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즉, 뇌를 만드는 신경세포는 몸 속의 정보전달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인 호르몬 분비세포에서 진화되었으며 신경섬유를 만들어 정보 전달을 신속, 정확하게 해주는 세포이다. 뇌의 활동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해 결정되며 신경세포의 활동은 신경세포 사이를 화학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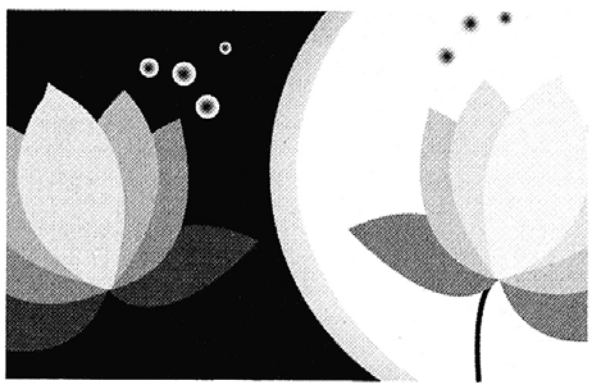
신경전달물질을 포함하여 몸 속의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물질인 펩티드(peptide)라고 불리는 소형단백질이 있는데 호르몬의 일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뇌가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신경전달물질 혹은 신경펩티

슬픔·기쁨·성냄같은 감정
뇌뿐만 아니라 온몸서 느껴
백혈구속 뇌수용체가 전달

'부분=전체' 우리몸 화엄법계

드라는 화학물과 특정 신경펩티드만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필연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은 뇌에서만 인식작용이 일어나므로 이들 화학물과 수용체가 뇌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바뀌어야만 했다. 정신건강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연구가들은 뇌 이외의 장소에서 뇌 안에서의 양만큼이나 풍부한 신경펩티드 수용체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 면역 시스템 안의 백혈구라 불리는 세포에서도 신경펩티드 수용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혈액속의 백혈구 안에 '뇌' 수용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뇌 세포에서는 신경펩티드가 만들어지고 이 신경펩티드를 수용하는 면역세포는 또한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게 된다.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 덕택에 면역세포는 신경세포가 구사하는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 신경계를 따라 고정되어 있는 신경세포와는 달리 면역세포들은 혈관을 따라 신체 어디로든 이동하면서 모든 세포들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면역세포는 뇌의 느낌(화학물)을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가들은 뇌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신경펩티드와 수용체가 다른 기관, 즉, 위, 콩팥, 대장, 심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뇌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신경 펩티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당신의 콩팥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활동'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뇌에서뿐만 아니라 '방어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면역세포에서도, 혹은 콩팥, 위장 등에서도 느낌을 전달하는 화학품이 생산된다는 것은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우리의 몸은 각자 자신의 기능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온몸으로 같이 느끼는, 자유로운 나툼을 보여준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보덕선원
하안거 선방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여기 서울에 초현대식으로 육백명 큰 시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남향집 선원입니다. 저는 40년간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수도의 기본인 원융산림선방으로 원을 세우고 창건했습니다.
저는 대중과 같이 정진하고 탁마하고 영원한 수도장으로 느낌이 오는 분위기로 상좌가 아닌 수도인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인연을 논하지 말고 오십시오.
같이 정진합시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 02)914-4235
삼각산 보덕선원
원장 오본 합장

大道眞人 유불선 일체 육신(육경신) 도통 정진대법회

선천도수 감하시대와 증감시대가 교체되어 15진주 사만다. 사성제. 사구계를 통섭. 지계수복자라! 도깨비를 깨우고 사순과 사역을 통섭. 구천을 평정하는 계론. 시론. 생천론. 예단경 大道心力通天 천안통. 타심통. 천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의 경지를 얻어 도인. 선인. 진인 출현미묘법으로 유.불.선 일체종교를 포용하여 생애의 죄업과 영생의 비법과 지옥의 영가해탈법을 얻는 정진대법회와 말법중생 제도하는 미륵,증상운도의 고집진도 존경합일 만합위일인 근본으로 천복과 천문이 교체되는 낮 정오에 태양과 직접 33초의 광도를 넘어 99초안에 천안통을 즉시 시험하여 삼생의 업연이 소멸되는 과정을 지도하오며 옛 선조인들의 전통적인 연성법인 원.2.방 해인도법은 대은하계의 환웅 천제님께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날인고로 저승명단에서 제외되며 혼미해진 정신 잡신에 끄달리는 신병과 신출괴몰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못하는 비밀장이므로 弓弓乙乙 이재기처 사담칠두락. 석정곤우복동 어차장구의 근본인 육자대명 왕진언과 준제진으로 鬼를 부릴 불 환우불 미륵상생의 본 뜻을 깨달아 수준높은 도를 통하여 도인들의 저변에 자질향상과 마음비우는는 도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입제 : 5월 7일 亥시, 5월 8일 亥시 해제
●회비 : 1박2일. 침식. 일체포함. 일금 5만원
●장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 02)821-6622/923-3110/016)239-3110
(구모자원고개 하차, 삼성APT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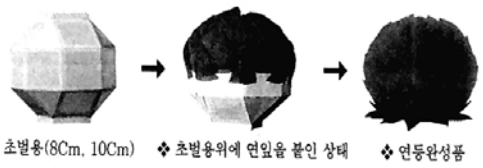
도선예성궁 일류종교 국조원
육신도통 회장 태일대사 합장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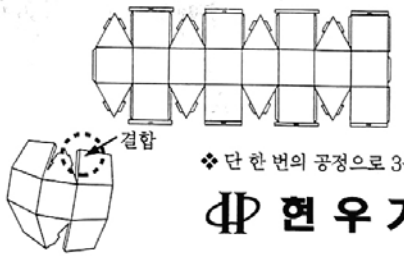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함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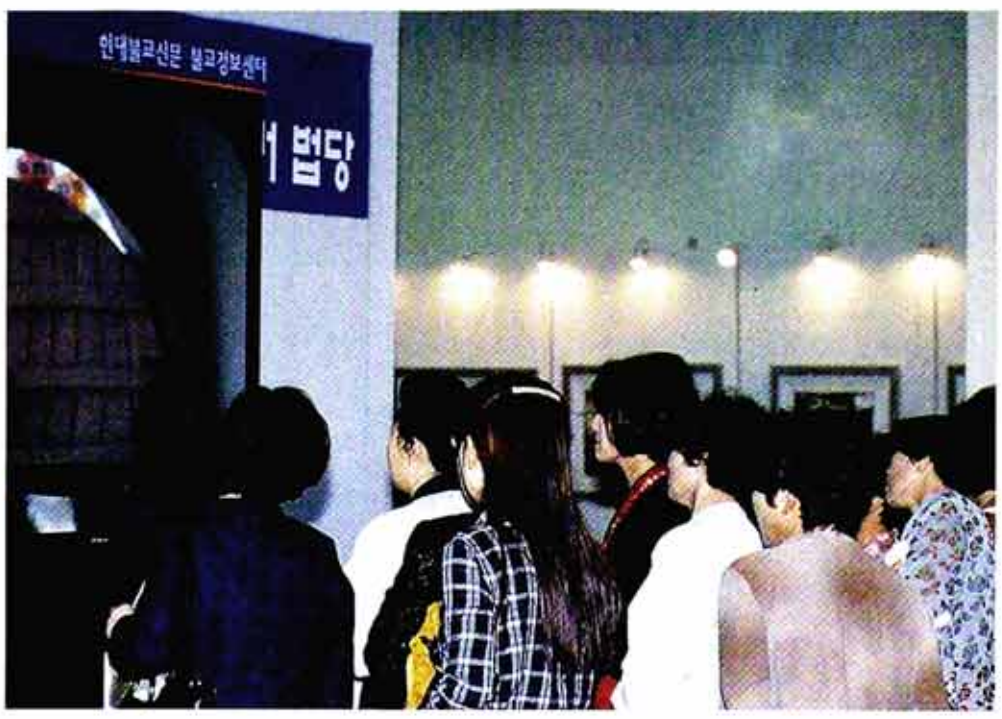
현우기획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완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경주 보문단지내 엑스포 광장에서 열린 불교예술대전 개막법요 의식.



▶이래불교를 체험하게 하는 부다피아 사이버 법당을 참배하고 있다.

'문화의 세기' 불교가 이끈다

'99 불교예술대전

4월 30일~6월5일 경주 보문단지서

주제관 · 전시관 · 예술관등 다양
22m 에어구조물 황룡사탑 '두둥실'
해방후 첫 남북 불교인 서화교류전



◇4월30일 각계 지도자들이 개막테잎을 끊고 있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온 국민이 세계화에 관심을 쏟으면서 식자들 사이에 회자됐던 이 말을 실감케 하는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

유형 무형의 우리 문화유산을 통틀어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예술이 총집결돼 그 우수성과 진수를 선보이는 '99 한국불교예술대전'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주최로 4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37일 동안 보문단지 안 엑스포광장에서 마련되는 이 행사는 1천6백여년 한국불교에 녹아 깃든 예술세계의 과거·현재·미래를 한자리서 체험하게 한다.

문화예술이란 물 흐르듯 늘 교류되는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불교예술대전은 과거의 전통과 오늘의 전승과정을 통해 미래 불교예술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10만 연등이 자비의 불빛으로 울타리와 장내 곳곳을 감싸 안은 행사장은 다채로운 전시·공연·이벤트가 펼쳐지는 속에서 예술의 향기와 사람의 감동으로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 마스코트로 예동이와 예슬이가 사천왕 삼장법사 손오공 등 13종의 캐릭터들과 행사장을 누비며 어린이 청소년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뛰어다니고 황룡사9층탑을 1/4크기로 축소한 22m 에어구조물은 민족화합과 호국불교의 위상과 한국불교예술의 우수성을 환히 드러내 준다.

○… 주제관은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영상관, 한국불교 역사 문화 의식을 전시하는 전시관, 승무 등 예술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중앙에는 백남준씨의 멀티큐브를 이용한 불교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 앞으로 미래 불교를 체험케하는 사이버법당을 조성, 참배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건축관 미술관 유물관으로 전시되는 예술관은 불교예술의 진미를 한자리서 만끽하게 한다. 특히 해방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한 불교서화교류전은 화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덕 중진 스님과 불자 서예가의 작품 50점이 나오고 북한에서는 서예 동양화 문인화 등 100여점이 선보인다.

체험관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시연하고 참관자들로 참여할 수 있다. 팔만대장경 관각, 만다라 선화 불화 민화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한지 제작 과정도 체험할 수 있어 여느 전시회와는 색다른 감동을 받게된다.

특별이벤트로 주목되는 것은 종단의날 행사, 종단협의회 소속 25개 종단은 문화 및 포교 활동을 특색있게 보여주며, 수행법도 체험할 수 있다.

탑돌이, 퍼레이드, 페이스머치페인팅, 불교캐리커쳐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등 상설 이벤트가 열리는 진리의 광장(중앙광장), O×퀴즈 깜짝로드쇼 등 축석 이벤트가 신선함을 더해주는 진리의 광장도 신나는 예술대전의 즐길 거리이다.

○… 때마침 예술대전이 열리는 동안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릴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가족과 단체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는 탑쌓기, 닭싸움, 콩넣기, 줄넘기 등 다양한 놀이마당은 재미와 즐거움을 더한다.

불교예술대전은 37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 일어 통역도우미와 안내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 시설로 병원 경찰서 우체국 은행 미아보호소가 들어서 있고, 주차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위영란 기자(yryu@buddhapia.com)

불교예술대전 조직위(0561)745-0374~5
http://www.buddhismexpo.co.kr





◇'99 불자예술대전의 마스코트 예동이(위)와 예슬이.



◇개막법요에 이어 운제산 자장암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행사장으로 이운하고 있다.

행사 시간표

시간	평일 상설		주말 상설		특별 공연	
	광장	무대	광장	무대	광장	무대
10:00~10:30						
10:30~11:00			오프닝쇼			
11:00~11:30	오프닝쇼		불교O×퀴즈			
11:30~12:00						
12:00~12:30		캐릭터 쇼		캐릭터 쇼		캐릭터 쇼
12:30~13:00		불교 GAME SHOW		불교 GAME SHOW		불교 GAME SHOW
13:00~13:30	ROAD 깜짝쇼				화혼의식 재현	
13:30~14:00					〃	
14:00~14:30	탑돌이 퍼레이드					초청공연
14:30~15:00						
15:00~15:30	불교O×퀴즈					선무도 무술시범
15:30~16:00	티벳스님 공연		탑돌이퍼레이드			
16:00~16:30		무용단 공연	ROAD 깜짝쇼	캐릭터쇼		
16:30~17:00		내장객 장기자랑	불교O×퀴즈	티벳스님 공연		
17:00~17:30		〃		스님퍼레이션		
17:30~18:00				내장객 장기자랑		불자가수 공연
18:00~18:30				〃		초청공연
18:30~19:00				무용단 공연		〃
19:00~19:30						〃
19:30~20:00						

경주 불교예술대전 입장권 할인판매

'99 한국불교예술대전을 후원하고 있는 본사는 독자여러분에게 정가의 15% 할인된 입장권을 배포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입장료 : 1인당 어른 6,000원, 청소년(중·고생) 4,000원, 어린이(만4세 이상) 2,000원
문의 및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사이버 법당 '눈길'

가상공간서 부처님께 꽃 공양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서 개발

"어서오십시오, 사이버 법당입니다."

주제관 안 중앙에 전시된 70인치 초대형 프로젝션 TV 앞에 사람이 들어서면 컴퓨터가 알아차리고 인사를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불교상을 예고하는 가상 공간에서의 부처님 참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이버 법당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개발한 3D 동영상 회첨단 시스템으로 영상과 에니메이션을 합성해 가동된다. 법당 참배 방식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가상공간의 일주문이 열리고 법당으로 들어가게 되며, 입체감을 보이는 사이버 부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맞이한다.



◇주제관 안에 설치된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사이버법당.

음성안내에 따라 합장 예배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 사이버 꽃 공양물이 나타나 불단에 올려지는 것.

"성불하십시오"라는 컴퓨터 멘트에 따라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불단의 향이 피어오르면서 참배를 마치게 된다. 1회 참배에 소요되는 시간은 35초.

불교예술대전 총연출 김진용 감독

"불교예술 진면목 확인 기회"



"흔히 일반 사람들은 불교 속에 녹아든 예술을 말할 때 신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술대전은 신심 못지 않게 예술로서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9한국불교예술대전 총연출을 맡은 김진용감독(38세)은 단순한 불교 내부 행사가 아니라 한국예술의 큰 터전인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의욕을 폈다.

그는 서양미술을 전공하고 지난해 경주문화엑스포 때도 일익을 담당해냈다.

"평소 불교예술이 일반 예술계에서 상대적으로 폄하되는 야릇한 풍토가 안타까웠습니다. 불교예술이 장구한 역사성과 가장 한국적인 독특한 내용을 지녔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전이 불교예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⑱

11. 진심을 밝히는 정법과 보조방법 (眞心正助)

或曰如前息妄 眞心現前
혹왈여전식망 진심현전
且如妄未息時 但只歇妄做無心功夫
차여망미식시 단지헐망주무심공부
更有別法可對治諸妄耶
갱유별법가대치제망야

물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 하시니 만일 망심을 쉬지 못했을 때는 다만 망심이 쉬고 무심해지는 공부만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모든 망심을 다스리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曰正助不同也 以無心息妄爲正
왈정조부동야 이무심식망위정
以習衆善爲助 譬如明鏡 爲塵所覆
이습중선위조 비여명경 위진소복
雖以手力揩拭 要須妙藥磨瑩 光始
수이수력개식 요수묘약마영 광시
現也 塵垢煩惱也 手力無心功也
현야 진구번뇌야 수력무심공야
磨藥衆善也 鏡光眞心也
마약중선야 경광진심야

대답했다. "정법과 보조방법은 다르다.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정법이고, 온갖 선(善)을 익히는 것은 보조 방법이 된다.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이 먼지에 덮였다면 손으로 닦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묘한 약으로 문질러야 비로소 광채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먼지나 때는 번뇌이고, 손으로 닦는 것은 마음 공부이다. 약으로 닦는 것은 온갖 선행을 하는 것이고, 거울의 밝은 광채는 바로 진심이다.

무심으로 망심 쉬는 것이 정법이고 온갖 선을 익히는 것은 보조방법

〈기신론〉에 말하기를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行發心), 증발심(證發心)과 더불어 세 가지 발심 중의 하나)을 한 자는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일까.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진심이니, 이는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심심(深心)이니, 이는 일체의 선행을 모으기 때문이고, 셋째는 대비심이니, 이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起信論云 復次信成就發心者
기신론운 부차신성취발심자
發何等心 略有三種 云何爲三
발하등심 약유삼종 운하위삼
一者眞心 正念眞如法故
일자진심 정념진여법고
二者深心 集一切
이자심심 집일체
善行故 三者大悲心
선행고 삼자대비심
欲拔一切衆生苦故
욕발일체중생고고

問曰上說法界一相 佛體無二
문왈상설법계일상 불체무이
何故不唯念眞如 復假求學諸善之行
하고불유염진여 부가구학제선지행

물었다. "위에서 법계(法界)는 일상(一相)이고, 부처의 체성(體性)은 둘이 아니다고 했는데 무슨 까닭에 진여만 생각하는데에 만족하지 않고 온갖 선행을 구하고 배워야 합니까."

答曰譬如大摩尼寶 體性明淨
답왈비여대마니보 체성명정
而有纇穢之垢 若人雖念寶性
이유폐예지구 약인수념보성
不以方便 種種摩治 終無得淨
불이방편 종종마치 종무득정

대답했다. "비유컨대, 큰 마니보주(摩尼寶珠)의 체성(體性)은 맑고 깨끗하지만 광석의 더러운 때가 있으니, 만일 사람이 (맑고 깨끗한) 보주(寶珠)의 성품을 생각하더라도 갖가지 방편으로써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깨끗한 보배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진여의 법도 원래 체성은 공하고 깨끗하지만 한량없는 더러운 때가 끼었으니, 만약 사람이 진여를 생각하더라도 갖가지 방편으로써 익히고 닦지 않으면 역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

如是衆生 眞如之法 體性空淨
여시중생 진여지법 체성공정
而有無量煩惱染垢 若人雖念眞如
이유무량번뇌염구 약인수념진여
不以方便 種種熏習 亦無得淨
불이방편 종종훈습 역무득정
以垢無量 偏一切法
이구무량 변일체법

대답했다. "비유컨대, 큰 마니보주(摩尼寶珠)의 체성(體性)은 맑고 깨끗하지만 광석의 더러운 때가 있으니, 만일 사람이 (맑고 깨끗한) 보주(寶珠)의 성품을 생각하더라도 갖가지 방편으로써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깨끗한 보배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진여의 법도 원래 체성은 공하고 깨끗하지만 한량없는 더러운 때가 끼었으니, 만약 사람이 진여를 생각하더라도 갖가지 방편으로써 익히고 닦지 않으면 역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일이 곧 수행이니

금봉스님 〈태고종 승정〉



악력
- 1920년 경기 고양 生.
- 1930년 북한산 진관사에서 월현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8년 금강산 유점사 동국강원 대교과 수료
- 1960년 서울 백련사 주지
- 1965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 1981년 적성 범륜사 주지
- 1998년 태고종 승정
- 現 백련사 조실, 범륜사 주지

"초발심 잊지말고 사세요 그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발심한만큼 성과 나와요"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몰라(不知來處何處去) / 마음 마음 유랑한 지 어느 덧 80년(念念流浪卽傘壽), / 본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가(本來主人在何處) / 여래는 옛부터 그 자리에 있었네(誰名如來古不動).

(98년 2월에 금봉스님이 지은 선시)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정의 학인은 1백여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찰 대중은 2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절이었지요. 1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은 무척이나 컸고, 천장에는 학이 나르고 용이 용트림을 하고, 금붕어가 연못을 헤엄치고, 매화 꽃이 만발한 그림이 장엄되어 있었지요.

일제하 31본산 시대에 유점사는 산내, 산외 말사 60개를 관장했던 금강산 제일의 가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51년 6.25동란의 와중에서 절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유점사는 묘향산 보현사와 안변 석왕사와 함께 대표적인 수행처였습니다.

저는 10세 때 동진출가했지만 본격적인 수행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15세 때 아버님이 1년간 병환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면서 인생의 무상을 실감하면서 부터입니다. 작은 아버님이 북한산 진관사 신도 이셨는데, 진관사 성봉 노스님께서 저를 귀여워해주시면 "스님 노릇하면 좋겠다"고 한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사는 진관사의 서명당(西溟堂) 월현(月泫) 스님이시고, 법사는 서울 백련사의 금허당(錦虛堂) 스님 이셨어요. 은사이신 서명당 스님은 92세 때까지 진관사에서 평생 울력을 하며 불사에 매진한 분이셨어요. 법사 스님은 서울 흥은동 백련사에 주석하셨는데, 저는 이곳에서 사집을 마쳤습니다.

이어 철원 심원사에서 다시 사교를 배우고, 유점사에서 대교를 마쳤습니다. 선교양종을 아우르는 통불교의 전통이 있었던 유점사 강원에서는 일우 스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한암스님, 개운사 대운암의 박한영스님과 함께 당대의 큰스님이셨죠. 일우스님은 참선은 집중적으로 시키지 않고 매일 조·석 예불 후 30분씩 참선하는 식으로 하고 자유롭게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참선이란 좌선만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4시간 생활이 참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24시간 가운데 한 찰나도 참선을 여읠 때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면 부처님께 원을 세우고 향을 꽂고 열심히 절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경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받은 화두는 조주(趙州, 778-897)스님의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이었습니다.

중국 당 나라 때 어느 수좌가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하자 조주스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수좌가 다시 묻기를 "일체함령(一切含靈)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개는 어찌하여 없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답하기를 "그는 업식성(業識性)이 있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이 때 또 다른 수좌가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이번에는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이 공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화두를 받고 7-8년간을 정진했으나, 뚜렷한 소식이 없어 정혜사에 계시던 만공스님이 드셨다는 '만법귀일 일귀하처재(萬法歸一 一歸何處在)'를 화두로 잡았어요.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다시 '무' 자 화두가 떠올라 평생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무' 자 화두와 함께 울력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염불이 입에 붙어 굶에서도 부를 정도가 되었지요.

관세음보살 염불은 공부의 기초입니다. 〈화엄경〉의 '신시불모(信是佛母)'라는 말과 같이 불교신행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생각으로 만든 염파(念波)를 끊임없이 내부와 외부로 방사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입과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은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사상체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으니 근기가 낮은 말법시대에 적합한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6.25동란 때 저는 비행기 폭탄 파편과 기관층에 중상을 입어 사흘동안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꿈에서 50대 전후의 퉁퉁한 여인이 나타나 몸을 만져보더니 "뼈는 안 다쳤으니, 곧 낫겠군" 하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움직이지도 못하던 몸이 되살아나 한달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지요. 당시 꿈에서 본 흰 옷 입은 여인이 백의관세음보살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결국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도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일심(一心)을 견지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복은 저절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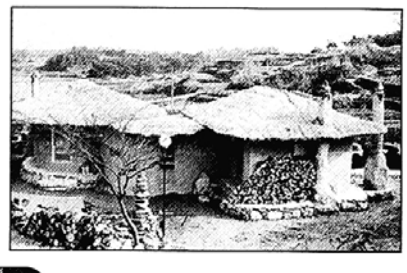
이곳 감악산 범륜사 불사는 30년전에 맨 몸 하나로 시작했어요. 잘 아는 신도분의 따님이 이곳에 절터가 있는데, 참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찾아 온 것이죠. 법륜사에서 40세에 주지로 임명된 뒤 16대부터 18대까지 주지 소임을 본 후 53세에 절터가 있던 이 산으로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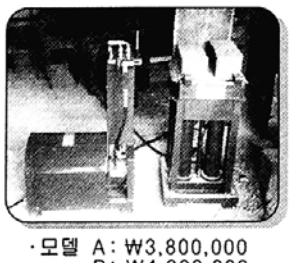
천막을 치고 1년에 2백일 정도는 쉬지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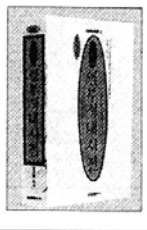
▪ 제 1 편 : 부처의 생애
▪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양장 신국판 정가 40,000
-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 사주학 핵심비결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 혜서 명리진평 양장 신국판 정가 30,000
-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자식가정문제등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 신/ 양장본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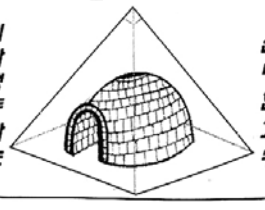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석굴암식 돔형 황토토굴과 피라미드의 기가생동하는 신비한효능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큰스님 수행한담

땀흘려 몰두하세요"

일을 마지못해 하니까 일은 일대로 안되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요"



◇96년 5월5일 중국의 보현도량인 하북성 아미산에서 조성해 온 동양최대(높이 7m, 좌대 4m 규모) 백옥불상인 11면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금봉스님. 30여년간 울력을 계속해 온 스님은 80세의 노구에도 불구, 관음전·지장전 불사에 원력을 쏟고 있다.

"마음밭 농사나 논밭 농사 다 같아요"

인과 모르고 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않고 울력을 했습니다.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하며 추위와 더위를 잊고 불사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보니 일 자체가 수행이 되고 참선이 되었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아픈 줄을 모릅니다.

처음 불사를 시작할 때는 산이 가파르고 길이 없어 어렵게 법당을 지었지요. 대들보 하나 세우는데 보름, 기둥 하나 세우는데 7일이 걸릴 정도였어요. 75년엔 절 주변에 수만 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어요. 잣나무를 잘 길러 불사 기금으로 써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이젠 나무들이 잘 자라 간벌을 하면 서까래용 재목들이 나와요. 때로는 나무들이 자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일을 하다보면 자기 공부하는 것이 성글어지는 것 같고, 공부에 집중하면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본시 무엇을 하는 가만 안다면, 불만이나 불안감 없이 일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예요. 근본 마음이 순일(純一)하게 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단지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願)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행동, 그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나 울력을 할라치면 공부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망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순수한 생각이 있으면 삼매가 되어 일에 몰두해 버립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공부 따로 하고, 일 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온 마음이 일 속에 뛰어들 때 내가 뭘 하나 완성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때로 꿈을 꾸면 좋은 절을 짓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마 전생에도 절 많이 지은 스님이었던가 봐요. 불사를 하는 것은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수행과도 같은 것인가 봅니다. 심전(心田)농사나 보리 심고 벼 심는 논밭농사나 똑같은 것이죠.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이기에 언제나 참선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방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백장 회해(百丈 懷海 : 749-814) 스님의 일화는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백장스님은 마조스님의 "평상심이 도이니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두 선을 닦아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켜 참선을 노동이란 실천에 적용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제도를 실행한 것이지요.

백장스님은 90세의 고령에 이르러서도 제자들과 함께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그가 힘들어 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선사가 사용하는 호미와 망태기를 감추어버렸습니다. 백장스님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단식으로 항의했습니다. 3일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자 스님은 3일간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농구를 내놓을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백장 스님은 다시 흥겹게 대중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밭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은 선원의 정신이 되었으며, 백장 선사는 총림의 모범이 되었죠.

당나라 무종 때에 이르러 사원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경제와 모순관계를 이루자 회창5년에 중국 역사상 가장 심한 법난이 일어났습니다. 4만여 개의 사원이 철거되었으며, 20여만명의 승려들이 핍박을 받아 환속하였고 사원의 전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불교 탄압에도 오직 선종만은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발전할 수 있었지요. 이 모든 공로는 백장 선사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백장선사는 이처럼 신도들의 공양에 의지하던 제도를 혁파하여 선원의 상하가 모두 힘을 합쳐 일제히 노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조스님이 총림을 창건한 이후에 백장스님은 대·소승의 계율을 절충하여 선원의 청규(淸規)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백장 청규〉입니다. 백장 스님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 일을 열심히 해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도 간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는 스님들이 많아진 것은 이런 전통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노스님들은 낡아 떨어진 가사를 직접 기워입고 빨래도 손수 하셨습니다. 신도들의 공양이 얼마나 무거운 인과의 씨앗인가를 알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 하나하나가 수행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스님들은 상(相)을 많이 내고 나태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심은 크게 했겠지만 의식주에 이끌려 발원의 싹이 없어집니다. 초발심은 쉽고도 어려운데,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합니다.

일반 불자들과 시민들도 인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인과를 모르고 멸시하는 사람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탐·진·치 3독 중에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痴)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백장야호(白丈野狐)'란 화두가 생긴 것도 인과의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선사가 "대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는 질문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잘못 대답해 5백년간 여우의 몸을 받았다가, 백장스님의 "인과에 어둡지 않다(不昧因果)"라는 가르침에 여우의 몸을 벗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흔히 말세 중생들은 총명은 하지만 지혜가 없어 깊은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이든 불자든 참선·염불·독경이든 근기에 맞게 한 가지를 갖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대도를 성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대도는 문이 없건만(大道無門)
길은 천차만별이라(千差有路),
능히 이 빗장을 열면(能得此關)
하늘과 땅사이에 홀로 서리라(乾坤獨步).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 준

〈건국대 교수·교불련 회장〉

47살 불교입문…늦은만큼 신행 더 열심

"불교학생회 지도하며 오히려 배워요"

나는 어린 시절 먼 시골 아름다운 농촌에서 자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종교의 무풍지대였다.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면 유교적 규범과 풍토가 생활 속에 넘쳐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잡다한 종교들이 난립되어 서로 각축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노라면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기도 하다.

그 뒤 나는 도회지로 나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기독교를 믿는 동료들의 성화로 그들을 따라 교회나 성당에도 가 봤고, 교회들 간의 갈등도 볼 수 있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종교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 홀로 설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종교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멀리하였다.

내가 종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거친 세상의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 살다 보니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종교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회들을 다니며 대화를 나눠 보았다. 그러나 신의 구원에 기반한 신심과 봉사 정신은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교리가 역설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할 만큼 배타적인 선교 방식이 너무 거부감을 주어서 더 이상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한 친구가 원불교 종로 교당 교무로 오게 되어 그의 권유로 4박 5일 원불교 수련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 수련을 통하여 나는 원불교가 현대인이 접근하기 쉬운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불교의 대종경을 보다가 교주인 소태산 대종사가 금강경을 보고 "석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시다." 또는 "불법은 천하의 도(道)라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의 마음을 크게 울려 그 수련이 오히려 내가 불교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연이 닿는 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내가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것은 봉선사 통신 강원 교양반에 입학하여 테이프를 통하여 월운 스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때 내 나이 47세였으니 비유하면 매우 늦깎이인 셈이다. 나는 거기서 교양반을 마치고 다시 사교과(四敎科)를 수료하였다. 또한 삼일선원에서 각성스님을 모시고 능엄경을 공부하였고, 1987년에 불교를 공부하는 교수들 모임인 불교 교수협회가 세워지면서 이영무 스님을 모시고 원효사상을, 원의범 선생님을 모시고 인도 철학을 오늘까지 공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불교에 대하여 아는 바가 너무 적다. 어디서든 불교에 대하여 토론을 하거나 담론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말이 항상 새롭게 느껴지고, 할 말도 별로 없다. 불법이 항하(恒河)의 모래와 같은데 나의 불교 지식은 모래 알 몇 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리라 여겨지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나의 수행이 부족해서 불법의 진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곤 한다. 그런데도 무슨 인연인지 그동안 포교사의 서품도 받았고, 건국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로 또는 지도법사로 오랫동안 일해 왔으며, 문화예술인법회의 회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막중한 자리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 벙어리 냉가슴이라고나 할까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프다.

나에게는 언제쯤 현실을 모두 탈탈 털어버리고 불법만을 공부하여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절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술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확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희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빚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칠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좌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 02-719-2606, 전송 : 02-719-5052 121-050 서울시 다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 솔바람 수필집 ·
운월스님의 세상사는 지혜
佛國의 아침을 여는 풍경소리



백운월 著 / 종교·불교 / 값7,000원 / 신국판

백운월 스님이 가슴으로만
품어왔던 볼덩이들을
밤낮으로 삼고 삼아
오색 빛 영롱한 비단실로
뽑아 올린
주옥같은 법문집!



운월스님
·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 불교여래원 주지

"노을도 봄과 여름에 나타나는 빛과 가을에 나타나는 빛이 다르다. 가을의 노을은 낙엽색이 되어 마지막 빛을 다한다. 그 노을에 의해 낙엽의 색이 물드는 것인지, 아니면 낙엽의 빛이 노을을 물들게 하는 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낙엽빛 노을이나 노을빛 낙엽을 보노라면 한 세상 힘들게 살다가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본문중에서〉

도서출판 솔바람 TEL : 02) 720-0824 FAX: 02) 722-8760

"사람은 진리에 의해 살고…"



◇보림사 경내. 오른쪽 대웅보전은 조선초 중층건물 형태를 띠고 있다. 가운데는 사천왕문, 왼쪽은 보조체징의 창성탑비로 9세기 말경 석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참선기행단은 가지산문 증찰 보림사에서 총무 원당스님의 지도로 참선에 들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

4월-가지산문

불교의 이해없이 한국문화를 논할 수 없다. 그렇듯 선종의 이해없이 한국불교를 논할 수 없다.

참선기행단은 신라말 고려 초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잡게 된 선종의 맥을 좇아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찾아 나섰다.

25일 새벽 3시30분. 밤을 가로질러 온 참선기행단 90여 명이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에 도착했다. 도량석 소리가 상쾌한 공기와 어울려 새벽 산사의 운치를 한껏 더 하고 있었다.

참선기행단은 대웅전으로 발길을 옮겨 1시간여 동안 새벽 예불을 모시고 보림사 총무 원당스님의 지도로 참선에 들었다. 가부좌를 틀고 단전에 주손을 얹어 지긋이 눈을 내리깔고 자세를 잡아보지만 뒤틀리는 몸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 20분도 안돼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참선기행단답게 대부분 참가자들의 모습은 골동품적 가치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옛 영광을 떠 올리고 그 사상의 편린들을 모아 역사의 공백을 메꾸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결연하기까지 하다.

바쁜 서울 생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 꿔 왔을 사람들. 버스에 몸을 실어 일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마음 속에 여전히 갖가지 망념을 안고 왔을 기행단은 침묵 참구하는 동안 어느새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느낀다. 열린 마음은 망망대해처럼 차별심이 없고 온갖 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도의선사가 가지산문을 연 이후 강조한 '성(性)과 상(相)이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즉하면 뜻이 일어난다(心定意興)'는 화두로 통찰한 것 같다는 추측도 해 본다.

어둠이 걷히고 미명(未明)이 감싸 안은 가지산문의 증찰 보림사는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도서관에 있는 '신라국 가지산 보림사 사적'에 보조 체징 이전에 원표라는 스님이 보림사를 창건하였다고 적고있어 창건주에 대한 궁금증이 서려 있는 곳이다.

보림사는 일주문과 사천왕상만으로도 한 눈에 고찰임을 느끼게 한다. 8백 여년의 모진 세월을 가지산과 함께 숨쉬어 온 사천왕상은 대형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천왕상이다. 그 모양새가 크고 우[illegible] 걷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어둠이 없는 광명편조(光明遍照)를 의미하며 선(禪)이 지향하는 차원을 상징한다. 비교적 윤직한 육계(肉髻), 달걀형이면서 비만한 얼굴, 편편한 못잔등, 가늘고 긴 눈, 사다리 꼴의 두드러진 인중, 작은 입 등 기하학적인 특징으로 묘사된 보림사 철제비로자나불좌상이 흥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가히 짐작해 본다.

그 비로자나불의 가피일까. 비로자나불이 지켜보는 앞마당에 마주서 있는 삼층석탑과 석등(국보 제44호)은 현존하는 통일신라 시대 석탑이나 석등 가운데 매우 드물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살고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서 사는 가운데에 크게 이루어짐이 있음을 모르고 진리 또한 사람의 생활 속에 게달음의 상태가 있음을 저버린다. 어찌 그릇됨이 아니리오. 그릇됨을 그릇됨으로 알면 그릇됨이 아니리라. (衆生爲舍那 舍那爲衆生 衆生不知舍那法界之 中緣構造業 舍那亦不知衆生 在 舍之內 湛然常寂 豈非迷이 知此迷者 大不迷矣)"

보조 체징선사 창성탑비에 수록된 53자의 팔팍한 사나본(舍那本)은 귀경 버스에 오른 기행단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다. 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으며, 면면히 이어온 선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느끼며 귀경길을 재촉했다.

글=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bo@buddhapia.com)

체징선사 창성비 53자 게송 마음 열어주고
주불 비로자나불은 사바세계 광명 비추네



◇9백여년이라는 창건 역사와 함께 하는 일주문. '가지산 보림사'라고 씌여있는 편액이 한 눈에 고찰임을 짐작케 한다.



◇비로자나철불(국보 117호).

보조체징은 당 유학후 보림사 개창



보림사의 실질적 개창주로서 가지산문의 제3조이며 영가화상에게서 법을 이어받은 보조 체징선사(804~880). 웅진(충남 공주) 출신으로 어릴 때 출가해 도의(道義)의 법을 전해받아 스승을 가르침을 펴고 있던 염거를 찾아가 그의 인가를 받은 도의의 손제자다.

837년(희강왕 2)에 동료인 정육, 어회 등과 함께 바닷길로 당나라에 들어가 여러 선지식을 찾아 뵙고 840년(문성왕 2)에 다시 신라로 들어왔다. 귀국 후 많은 신도들의 귀의를 받았으며 858년(헌안왕 2)에는 무주의 황학난야([illegible])에 주석하며 교화를 폈다. 그 때 스님은 헌안왕의 권유로 가지산사로 옮겨 터를 잡고 860년에 대찰을 창건하여 가지산파의 중심사찰로 발전시켰다.

880년 세속나이 77세, 법랍 52세로 입적한 스님은 헌강왕이 유사에 명하여 시호를 보조, 탑호를 창성, 절 이름을 보림이라고 해서 비문을 짓게 해 후대에 회자되었다.

운주사
와불·칠성바위등 천불천탑 볼거리

황호균 학예연구사(전남대)의 안내로 운주사를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사바위에 오른 답사객들은 황 연구사의 설명에 기초하며 바라다보다 보니 무질서하게 보이던 불상과 탑들이 퍼즐로 맞춰가듯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느낀다. 그 궁금증은 칠성바위에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대웅전 오른 쪽 산등성아에 있는 칠성바위. 일곱개의 크고 작은 바위의 배열과 크기가 영락없이 북두칠성의 방위각과 밝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연신 터져 나오는 감탄사를 막은 것은 칠성바위에서 비스듬히 좀더 올라서였다. 거대한 두 구의 불상이 '금실좋게' 나란히 누워있었다. 와불(臥佛)이 아니라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비로자나불좌상과 석가여래불입상이다. 이 누운 부처님이 일어서는 날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겨본다.

쌍봉사
국보 철감선사 부도 조각예술 백미

정조 10년(1786년)에 이조관서 김종수가 사적비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전각 등 건물이 4백여칸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일주문 안의 도량은 어떠면 아담하기까지 하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중건된 쌍봉사에서 답사객들은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철감선사 부도(국보 제57호)와 부도비(보물 제 170호)를 만났다. 특히 부도비의 귀부는 매우 씩씩하고 기운찬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오른발을 살짝 들어 막 앞으로 내디디려 하고 왼발로 땅을 짝어 끌어 당기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거북을 보는 듯 했다.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두 마리 용이 현란하게 새겨져 있는 이수도 눈길을 끈다.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천 조성합니다.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佛紀 2543년 3월 15일(양)에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본 법인의 제3대 이사장에 보현정사 주지인 석정각 스님께서 이사전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에 추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사장 보현정사 주지 석정각
상임이사 보화정사 회주 석탄공

이사 석금암 이사 석일화
이사 석창법 이사 석혜안
이사 석혜우 이사 석봉안
이사 석선종 이사 진각화
이사 석도명
감사 석도광 감사 석일정

제3대 이사장 취임식
- 일자 : 불기 2543년 5월 8일(음 3월 23일) 11시
- 장소 : 논산 지장암 대웅전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사무소
총무 광 진 재무 법 원 사무장 김현태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지장암)
TEL : 0461)732-5629 733-5629
FAX : 0461)733-5628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천안의 명산 태조산 줄기 입장 위례성 자락에
대한불교 천안령락사 대웅전 창건과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 축제에 동참하시어
부처님과의 인연공덕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대웅전 창건불사 봉축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창건 연등
대웅전 법당안 일년 가족등
조상위령 1000일 극 락왕생등

유주무유 선영들의 원혼들을 위로하여 자손만대 부처님의 자비로 한민족의 통일과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민으로서의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조상의 극락왕생 부모형제, 자녀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서원하시고 유생, 무생까지도 내 한 마음 속에 대자 대비심을 발원합니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佛 대한불교 천안령락사 淸一 靈龍 합장 淸林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산 4-22번지
☎ 0417)553-6335,6675
FAX 0417)553-2335

▶시내접수처
천안시 사직동 천일시장 50호 천일만물상회
0417)563-6145

국민은행 452-21-0951-943 천안령락사
농 협 485070-52-175917 천안령락사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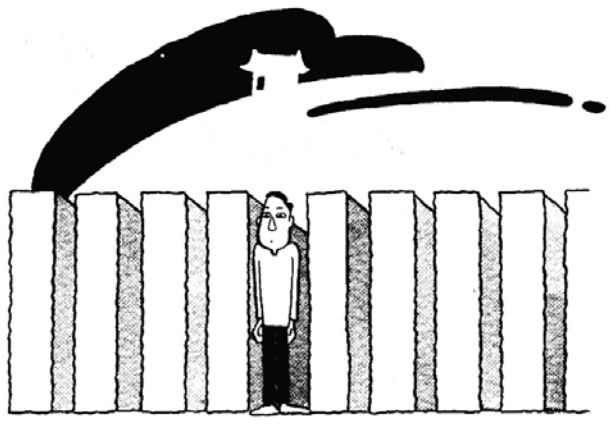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만법 자기가 들이고 내고 합니다

앉아도 참선 서도 참선
누워도 참선 일해도 참선
행선 · 와선 · 입선 · 좌선
한데 합쳐 생활하는
그 자체가 참선이죠


그림 · 최주현

생활이 참선이라는 뜻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수행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에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처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니, 행선 · 와선 · 입선 · 좌선을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일일이 참선이다, 참선이 아니다 따지지 말고, 일상생활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하며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믿고 놓으며 돌아가면 이것 저것 따로따로 챙길 것 없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지켜보고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 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가오는 거 그저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다 사고가 난 걸 보았는데,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요, 차를 받쳐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구요. 차 운전수 블들고 야단이죠. 안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것이니, 운전수에다 모든 걸 한데 모아서 맡겨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으며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오가는 인연 걸리지 않으려면…

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려되옵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답 우리가 수행을 할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좇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하다 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끌꺽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끌꺽 삼킬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이 도리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는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되며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 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에,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주인공을 상대로 보게 됩니다

문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하고 놓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고, '네가 벌려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 하고 놓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마음없는 마음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 둘로 보지 마세요. 주인공하고 상대를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 아니됩니다. 그것은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만든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가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장난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를 하고, 형성을 해서 모든게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헤어졌으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부모가 됐을때 자식이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것이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마음 운전수에 다 맡겨놓고 지켜보세요
수행자는 가고오는 인연 걸리지 말아야

꿈을 너무 많이 꿉니다

문 저는 수원에 사는 불자입니다.

늘 부처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새기며 그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꿈을 많이 꿉니다. 별 이상한 경계, 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꿈에 보이는지요. 생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던 영혼들, 애,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보이고 제 주위를 몰려다닙니다.

어떤 염불, 어떤 마음을 내면 이 많은 영혼 귀신들을 떼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제 남편은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 관계의 쇼크로 간혹 술을 마신 후면 땅 밑바닥까지 훤히 보이고, 평소 눈 시력이 마이너스인데도 안경 벗고 문꼬리 꽃모양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스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답 꿈에 보이는 갖가지 현상에 대해 일일히 이렇다 저렇다 따질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꿈이지요. 생시도 꿈, 꿈도 꿈입니다. 본래는 그게 다 과거 생으로부터 찰나 전까지 내가 입력시켜 놓았던게 풀려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대로 놓고가라, 놓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떼어내고 싶다하시는데 실체가 없는것을 떼어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정히 마음에 걸린다면 좋게 한생각 돌려 버리세요. 모두 다 나를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구나, 알았다 오바! 하고 말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기해 하거나 두려워 할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생각에 매어달린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놓아버리세요.

외롭다는 생각에 살기 싫어요

문 금왕 지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저의 시기심,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걸 보면 정말 외롭다는 생각에 살기가 싫어집니다. 모든것이 주인공이 하는것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정성부족인지 몰라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잡을수 있는 법을 듣고 싶습니다.

답 믿고 놓는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라고 자신이 생각한대로 되어지지를 기대하면서 놓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놓은게 아닙니다. 놓는데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잘 놓아지질 않는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모두 내 스승이요, 스승으로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하고 한생각 고쳐 먹는거 말입니다. 사실 모든 경계는 설사 내게 고통을 준다해도 그건 고통이기 이전에 나를 성숙케하는 공부재료 입니다.

'독존'이라는 말 궁금합니다

문 인간은 다 각자가 독존이라는데 그 독존이라는 개념이 각자에게 불성이 있어서 독존이라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떤분이 독존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분이라는데 저는 그말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존은 각자가 자기 본성을 발견하여 임의적인 의식없이 모든 일이 그냥 되어가는 자체에도 독존이라는 개념이 성립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모든 중생은 다 부처될 자격을 갖고 있어 평등합니다.

높다 낮다 할게 없습니다. 다같은 물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가도 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광대하게 벌어져 있다해도 내가 없으면 우주가 다 뭡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우주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기에 나로부터 우주가 널어졌노라,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 어찌 독존이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고 합니다. 나부터 알아야 모두를 알 수 있고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고서는 알았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또 독존이지요.

마음을 자주 놓칩니다

문 저는 부산에서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마음을 잡아도 놓치고 또한 잡았다가도 곧 흘려버리니 한마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잠에 떨어지면 곧 무명에 휩싸여 오매일여하지 못하니 수행에 진척이 없는가 합니다.

제 마음잡기에 큰 도움이 될만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5)

부처님 형상에만 공양할 줄 안다면…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처 형상만 공양할 줄 알았지 자기부터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불자로서 부처님 잘 모시겠다고 하며 역으로 부처님을 욕되게 한다면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콩 한쪽을 부처님 전에 놓을 수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인공에 모든 걸 종합해서 공한 도리로 함이 없이 놓았다면 우주 전체의 일체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그 콩 한쪽은 다시 남아서 또 먹을 수 있다. 부처님 전에 돈을 놓지 못했다, 공양을 넉넉히 올리지 못했다 해서 개운치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은 남보다 많이 놓았다 해서 든든하다 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 놓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향 한 개를 꽂아도 그 향기가 우주를 다 쌀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게 정화수 떠 놓고, 내게 돈 놓고, 내게 공양 올리라고 가르친게 아니다.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빌어야 나 잘되고 가족 잘되는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 부처님 법을 모르고 죄업을 잔뜩 짊어지는 게 된다.

많은 불자들이 '판세음 보살' 을 염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가슴에는 불을 켜지 않고 바깥으로만 불을 켜려 하니 밝아지질 않는다. 본래로 밝은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기를 제도하고 주변을 윤택케 할 것인가.

경배는 주인공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독경을 해도 그 독경 소리가 삼라 대천 세계에 모두 퍼지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경을 읊조리면 불보살께서 들이시고 온 누리에 두루 퍼지게 된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닌 마음으로 경을 읽고 주를 송할 때 진정한 공덕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그저 주는 주고 송은 송일 뿐이다. 그 깊은 이치를 모른 채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외고 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망에는 그 정성이 걸리지 않고 그저 자기나 들을 뿐이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나 천수경을 외울 때면 우리는 찰나찰나 여여하게 돌아가는 유위법과 무위법을 외우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법을 따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옴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잊지 않고 꼭 해야만 염불인 줄 아는데 세울 게 없는 사람에게는 한생각이 곧 염불이 될 수 있다. 한생각이 그대로 활용이요, 그대로 법륜이니 어찌 그 법을 어기고 입으로 외워야만 맞는다 하겠는가.



지극한 정성으로 불을 켠다면 그 불은 우주와 더불어, 내 마음과 더불어 하나로 합쳐서 항상 켜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로 인등을 켜야 한다 하고, 석달 열흘 그렇게 밝혀야 한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인등이 아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의 불을 켜면 항상 인등을 켜 놓은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인등이다. 마음이 밝아야 항상 밝은 것이니 인 등을 켜 놓았다고 밝아진 것은 아니다.

인등을 백일 간 켠다, 천일 간 켠다 하는데 이 지구가, 아니 우주가 백 일만 돌아가나, 천 일만 돌아가나? 또 우리는 백 일만 밝게 살것인가, 천 일만 밝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일 초도 머무름이 없이 항상 불을 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등을 켠다, 안 켠다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

식구 숫자대로 인등을 켜 놓고 잘 되기를 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찌 불 켜 놓은 것이라 하겠는가. 불은 이미 자나 깨나 마음의 불로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켰다가 꺼지는 그 불로 정성을 들인다고 하니 그 불 꺼지고 나면 그 후로는 그만 빌고 그만 살겠다는 것인가.

법당에 촛불을 천 개 밝히는 것이 마음에 촛불을 한 번 밝히는 것만 못할 수가 있다. 마음의 불을 켜면 우주 전체가 알지만 촛불을 촛불로만 켜면 그 켜는 곳에서밖에 모른다.

잘되고 잘못되고, 좋고 나쁘고가 전부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주인공에게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일체가 그 자리라 일심이 만법으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니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둘로 보아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다.

마음 한 번 내면 일체 제불이 다 아는 것이라 따로 법당이 없고 기도처가 없으니 생활 가운데서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진실하게 관한다면 생활이 그대로 기도요 수행인 것이다.

내 안에 관세음 보살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아서 주장자 하나 탁 던질 때 어디에고 적응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부터 알아야 삼라만상 다 알수있어

☞ 15면에서 계속

답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게 마음인데 어디에 붙잡아 두시려 합니까? 흐르는 물은 흐르게 두어야지 그걸 잡아맬수가 있겠습니까? 흐르게 놓아두세요. 일여는 잡아두는 걸 말하는게 아니라 놓아두는 걸 말합니다. 옳으니 그르니 맞느니 틀리느니 따질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놓고가라, 맡기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럴때에 걸리지 않으면서 무심아닌 무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놓고 관하는 걸 배우세요.

몸이 잘 안따라 줍니다

문 스님을 오늘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도 자꾸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러는데 스님 조금만 용기를 주십시오.

답 공부하는데,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몸이 아프면 마음이 허황해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 놔버리고,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것,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맡겨놓고 가는 길이지, 공부하는 데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용기를 누가 주고 말고 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래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지원적인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이 세상 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살아나가는데도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 나가면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제자신에 너무 속고 지내요

문 제가 저에게 마냥 속는것을 줄이고 싶습니다 속는줄 알고 속고 속는줄 모르고 속습니다

이렇게 마냥 속아넘어가는 저를 때려잡고 싶습니다.

저의 게으름으로 진전도 없이 마냥 그날이 그날인것같기도 하고 조금 나아졌나 싶으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을 진정 줄이고 싶습니다

답 속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요, 속이는 놈도 나요 속는 놈도 나이지 따로 있던가요? 모든 건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데 전자에 먹었던 생각이 입력이 되었다가 수시로 솔솔 풀려 나오니 나오는 구멍도 거기요 드는 구멍도 한 구멍 거기입니다. 그러기에 속는다 속았다 하는 그것까지도 놓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 속았다는 타령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속이게 하는 것도 주인공, 속았다는 것도 다 주인공 몫이니 네가 맡아라 하고 놓고 가세요.

재가자도 깨칠수 있나요

문 1.재가 불자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요?

2.기독교 신자등도 죽은 후에 영가천도가 가능한지요?

3.왜 무속인들이 신성한 절에서 자신의 신으로 부터 영감을 얻으려 하나요?

4.굿당에 부처님이 모셔진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인가요?

5.집에서 매일 참회 기도등을 할려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6.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1. 물론입니다.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불성은 누가나 다 같고 한마음엔 따로 이름표가 없습니다.

3. 어리석은 탓이지요. 그래서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없다면 빼앗으리라 했습니다. 빈집엔 온갖 짐승, 벌레들이 제멋대로 드나들게 마련 입니다.

4. 하루 24시간 행주좌와가 모두 참선입니다. 마음의 준비면 족하겠지요.

5. 생활과 불교가 둘이 아니니 따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렵니까. 내 주위에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고 내게 부딪쳐 오는 일치고 공부재료 아닌게 없습니다.

동료 어머니 화병 앓습니다

문 저의 회사 동료 모친께서 화병이 있어 치료 할 수 있는 방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고민 끝에 한마음선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가와 인연을 맺은지 10년 넘게 지내오면서 기공에도 관심이 있어 실제 얼마간 수련해 보기도 했고 해서인지 그 분이 기치료 잘 하는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지만 불자로서 한마음을 찾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스님께 여쭈어봅니다.

화병을 다스릴 수 있는 법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화가 나게하는 것도 울고 웃게 하는것도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주거나 어디서 오는게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니 제 속에서 나온걸 대신 누가 어떻게 해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자리에다 되놓으라는 겁니다.

주인공, 화가 끓어 오르게 한 것도 너, 안 나게 하는 것도 너, 네가 해결해! 하고 놓아버리세요.

'놓고 관한다'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안녕하셔요.

저는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 세면장에 가서 잠시 걸어둔 수건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값은 얼마하지 않는것이지만 아침부터 무척 짜증이 났습니다. 이 마음을 빨리 없애야겠다 싶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것이 주인공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없어진 것이 없다. 또 그 수건의 주인도 한마음이니 내가 잃은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종종 의식적으로 나 자신도 주인공자리에서 나온다고 스스로에게 일러줍니다. 근본자리에 놓고 관한다는 것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인식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주인공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큰스님 가르침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 찰나찰나에 놓고 관하는 겁니다. 처음엔 앨 써야 하는 면이 없지도 않으나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거 자동적으로 놓고 관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잎새를 군사로 만드는 방법

문 스님 법문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 법문중에 노간주 나무 잎새를 모두 군사로 만든거예요. 상대쪽에서 전부 군사로 보이게 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원의 영가 위패를 태우는 영가탑이 영가에게는 적멸보궁처럼 보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잎새를 군사로 보이게 하고 영가탑을 적멸보궁으로 보이게하는 것은 일체제불의 마음을 군사로 보이게 하여서 일체제불로하여금 일체 중생들을 이끌어서 하는것인지요. 어떻게 관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마음을 쓸수 있을까요.

답 죽어야 너를 보리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죽어야 보리라. 그래야 내가 나를 알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알고 나와 너가 둘 아니게 나툼을 알 겁니다.

큰스님처럼 마음 쓰고 싶어요

문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큰스님처럼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나 하는 생각으로 큰스님 마음을 답으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도 큰스님 마음속을 들어가서 그렇게 본받아 가지고 나온다면 큰스님 처럼 마음을 쓸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답 심성통신을 아십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아야 불이 들어오듯이 한생각이 찰나에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자신이 믿지않고 몰라서 그렇지 일체는 다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소를 건지려면 또 그속으로 들어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 나를 둘로 보는 한 심성통신은 요원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말기라 하는 겁니다.

우주 법계 다 바친다는 뜻은

문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사대오온 우주법계 개공을 문 없는 문을 열고 더불어 다 바치오리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답 '나'라고 할 건 하나도 없다. 실오라기 하나, 건덕지 조차도 없으니 깨끗이 설겆이를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쯤만 아세요.

남들과 조화롭게 살고 싶어요

문 이세상 만물은 마음에 의해 생겼으며 마음에 의해 변화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제 주인공과 둘이아닌 한마음이라 우주 삼천 대천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나와 하나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져야 하는지요.

답 내가 죽어야 나를 포함해 일체를 건질 수 있습니다.

나, 나의것, 나다, 하는 그 나가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둘아닌 도리도, 둘 아니게 나투는 순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놓고 또 놓고, 버리고 또 버리고, 맡기고 또 맡겨야 하지요.

'마음없는 중심' 대해 의정일어

문 저는 울산지원에 다니는 법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뜻으로 푼 천수경을 세번 읽다가 순간, "주장자" 또는 "마음없는 중심"에 대해서 간절한 의정이 일어나 아직도 모르기에 여쭈게 되었습니다.

감로의 문을 열어주시어 법을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의정이 간절하게 일어났다면 간절하게 놓고 관하세요. 주인공, 의정이 일어나게 한 것도 너, 답을 알게 하는 것도 너, 하고 놓고 관하세요.

내가 설명해줄 수도 있으나 내가 설명해서 알고나면 다음번 갈증은 또 어떻게 푸시렵니까.

'자신을 쓰레기통에 버리라' 뜻

문 오늘 정토회관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로법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꼬깃 꼬깃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인공 너만이 이자리에서 한 티끌도 없이 완전히 죽게 할수있어 오로지 주인공 당신만을 믿겠어.

오로지 주인공 당신만을 믿겠어.

스님 사랑해요.

큰스님 사랑해요.

답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내 이 형상을 믿지말고 각자 자성부처를 믿고 법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 고깃덩이야 때가 되면 벗어버릴건데요. 뭘.

한마음의 도리 알고 싶습니다

문 스님의 법문중에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한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을 잘 친견할수는 없어도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드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질문을 하고 나면 내면에서 답이 나오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그 답은 제 수준의 답이고 큰 스님의 답변은 훨신 크고 한단계 이상 높은 수준의 답을 만나게 되서 공부하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 신문에 실리는 내용들을 열심히 읽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도 내 속에서 나오지만 답도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씩 터득을 하게 되지요. 매번 물어서 알려고 하다보면 그것도 습이 됩니다.

남이 떠다주는 물은 한번 목을 추기면 그뿐이지만 내 샘물에서 내가 길어먹을 수 있어야 세세생생 목을 추기고 남에게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마음으로 귀신제도하고 파요

문 스님께서 귀신들린 정신이상자를 제도하실때에 컵을 들어보이시며 마음으로 아름다운 국토를 그려 보이셨고 실제로 그 귀신은 그 국토를 보았고, 결국 제도 되었읍니다.

스님께서도 또한 실제로 컵에 그려보이신 국토는 존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도방편문은 하나의 나툼이며 또한 그러한것은 마치 석존께서도 석존의 털구멍하나속에 온우주을 넣어도 넘치지 않는다는 법문과 같다고 이해해도 좋습니까?

답 꿈보다 해몽이십니다. 진실로 그런 의정이 일었다면 스스로 답을 구해 보세요.

말끝에 알아맞히려 해서는 국 맛을 볼 수 없습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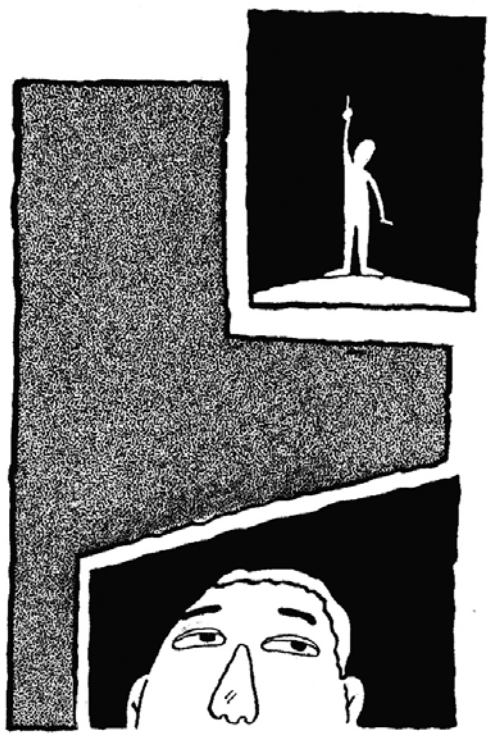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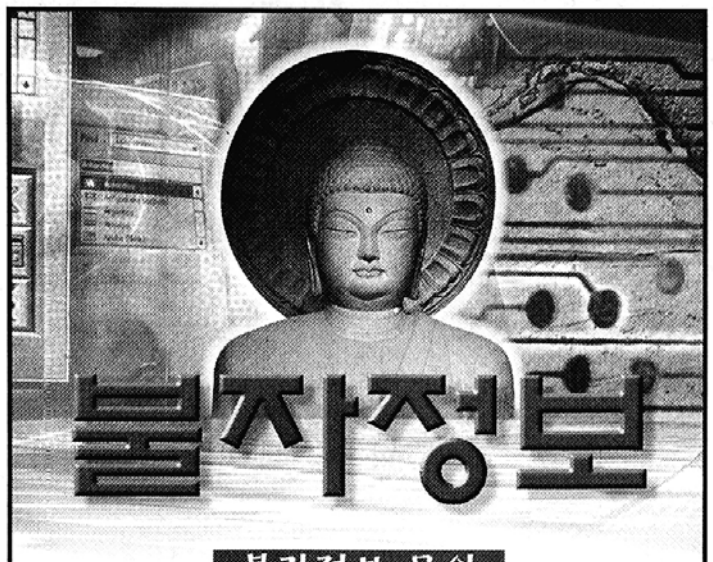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말고
닥치는대로 놓으세요
그때 걸리지 않으면
무심아닌 무심됩니다

흐르는 물처럼 마음잡지 말고 놓으세요
의정도 답도 내속에서 나와야 물리깨쳐

가볍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주지 : 진 성

불자님의 치아건강
全燦齒科醫院
JEON CHAN DENTAL CLINIC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97
(5호선 오목교역 6번출구)
상담환영 02)645-9746
頓悟 全 炳 燦 합장

강좌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 역학교육의 1번지 易학교육전문학원 에서 만들었습니다.
· 원장 박규병(교직경력25년, 고려大58)이 역학보시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 흩어져 있는 실력을 쉽게 체계정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기존의 학습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8회 완성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042)525-5774

水脈 찾기 강좌
1.신비추 L-로드 사용법(목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
010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경(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동양·역학 강좌
▶사주학, 성명학, 궁합, 택일, 개운법◀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책임지도
◆ 金東炫 선생 직강 ◆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도연 역학 연구원 ◆
문의 : 02)894-5233
·경기 광명시 하안동

특별 상담
중국 국제 침구사 자격시험
1. 포교활동 하실 분
2. 해외 이민 또는 취업 하실 분
3. 해외 포교활동 하실 분
4. 침구학을 연구나 공부하실 분
5. 장래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실 분
6. 기타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02)875-8310~3

구인

스님 모십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
「성 불 사」
053)768-5788
011)9590-2448

불교용품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
2234-2198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태 광 에 너 지
심야전기보일러
심야전기온수기
심야전기 온 돌
전기온돌판넬
확실한 시공
철저한 A/S
062)526-5345/ 019)612-0301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뜻으로
반야심경사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저 합니다.
■ 규격 : 33cm × 130cm(8폭)
■ 가격 : 액자용 2만원
병풍 5만원
0558)632-2826
011)837-2826

순수한 토종 염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달마도 전문 표구사
30년 전통의 병풍, 표구, 달마, 사찰작품 전문
달마의 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수기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도의 영험함은 氣에 있습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氣가 상하지 않도록
특수비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님을 모시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명표구사로 문의 바랍니다.
(代)02)374-9886 **유명표구사** 합장
택배·전국 어디나 보내드림 서울 은평구 응암4동 585-8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 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박민수 참선 교육원 T.(062)251-2733
무엇이 그 몸을 끌고 다니는가?
Hint 물질도 허공도 이름도 아니다. 그럼 뭘까?
최면-전생상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정진 - 개발을

귄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달마사

보이자
직판합니다.
■100g×10봉지(10만원)
■100g×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2평
◇법당 : 23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3천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포교원 안내
◆위치 : 의정부 중앙로 시내
◆평수 : 30평
◆법당 : 법당(방2), 주방
◆가격 : 2천만(전세)
권리금 시설비 없음.
◆포교원 역사 10년
0351)848-3661
011)762-5282

토굴 터 암자 안내
◆위치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지 : 60평 ◆밭 : 120평
◆시골집건물 1채
◆가격 : 2천만원
0581)555-5084

산속에 위치한 기도도량
암자나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 주십시요
◆위치 : 서울시내나 근교 부산
011)791-1133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전남
■법당 : 33평(목조)
■요사 : 90평 ■부지:2,300평
■가격 : 2억 5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암자(절)
◆평수 : 120평
◆가액 : 4,900만원(인수하실 분)
◆신축건물
016)590-2656/011)557-8949
0557)641-0088/0556)674-2656

사찰 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아파트 앞(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전세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011)563-4454

사찰 안내
◆위치 : 천안 목천
◆부지 : 약 1천평 (종중땅)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칠성각
요사채2동 석물미륵 탑등
◆가액 : 8천만원 (절충가)
02)838-2929
0417)566-5892

사찰 안내
◆위치 : 통영시내에서 차로
10분거리
◆평수 : 법당20평 요사채50평
총 72평
◆산밑에 위치 (큰마을 有)
0557)644-1054
017)590-1900/012)581-9295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권
(전망 좋습니다.)
◆대지 : 300평
◆법당 : 50평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6천만원
011)608-2669
017)602-266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주지일반
◆사찰명 : 도통사
◆평수 : 13평 요사채2동(방5)
부엌2, 건물만
◆가액 : 1천만원
0397)574-1358

사찰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APT앞
(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1)563-4454

납골당 터(지장해)
◆ 서초구 청계산 납골당 터
◆ 2평 500만원
◆ 100명 모집
◆ 불자에 한함
◆ 영구보존
011)512-3730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의성
◆대지 : 1천 12평,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지하수 170m, 주차시설 완비
◆가격 : 8천만원
0576)862-0319
011)9570-353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토굴(별장)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소재
◆부지 : 대지 200평, 건평, 32평
(방3개, 거실, 부엌, 목욕탕2개)
◆가격 : 1억(절충가능), 단층
벽돌집, 신축 3년(전원주택)
※ 부곡하와이 온천에서자가용 20분,
밀양에서 40분, 마당까지 진입가능)
051)891-7255/051)891-7255

포교당 전세 안내
◆위치 : 동대문 답십리2동
◆평수 : 30평 건물 3층有
◆가액 : 전세 5000만원
◆ 스님 면담후 가격 절충 가능
최적의 교통요지에 있음
◆시설완비
02)2214-3529
011)446-4527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 500평
◆법당 : 40평 ◆요사 : 30평
◆가액 : 2억 7천만원
◐ 전국사찰 양도·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다량보유)
좋은인연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강진 근교
◆부지 : 2,300평
◆목조 : 대웅전 32평,산신각 4평,
주지실 5칸 28평, 대중방 5칸 20평
◆스레이트조 : 주방 20평, 가건물
15평, 토담집 12평, 사택 25평 등
◆가격 : 사정상 매가 7억상당->
1/3가격으로 절충해 드림
※도시근교 사찰과 교환도 함, 비구니스님 환영
019)554-3484

포교당 안내
◆위치 : 길음역 3분거리
◆평수 : 50평
◆시설 A급 (시설비 없음)
◆전세 : 7,000만원
02)941-3195 수도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지리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876번지 외 2필지
◆현재 밭 210평(준농림지 1,500만원)
◆함양읍 또는 생초 I.C →남호리
소재 한남마을 서측 근거리(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50m위치
⊙지리산(천왕봉)밑 중산리 계곡 옆 토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428번지 550평,
위 같은 리에 산 50번지 3,060평)
▶합 3,610평 ◆가격 : 7만원(준농림지)
0596)972-4968

사찰이나 암자와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고급주택
◆전세 융자포함
◆대지 46평, 건평 95평
◆가액 : 3억 7천만
융자 3,500만,전세 8,800만
◆주인거주 3층, 상가지역. 위치좋음.
◆고급식당으로도 사용가능
◆현대식 건물
0346)566-7606/011)496-7706
※팽화 필요하신분 전화요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국세관련 증명서 팩스발급

(생활)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팩스민원 발급제도 시행방안의 하나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인에게 국세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절차가 간소화된 민원서류는 납세증명서,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5종이다.

99봄 분수대광장 축제

(축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이달 31일까지 회관 뒷뜰 야외무대에서 '99봄 분수대광장축제'를 연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펼쳐지는 분수대광장축제에는 시립무용단의 전통무용과 미8군 군악대 연주 등이 열린다. (02)399-1626

볼만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 어린이 시즌인 5월에 볼만한 '어린이 뮤지컬'.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극단 신시가 펼치는 '미녀와 야수'는 9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며, 정동극장의 가족 뮤지컬 '나무꾼과 선녀'는 3일부터 30일까지 정동극장에서 계속된다.

신문지 띄우면 목욕물 깨끗

(상식) 받아놓은 목욕물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이 하는 방법. 신문지를 넓게 펴서 물 위에 띄우면 신문지가 더러움을 흡수해준다.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깨끗해진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

(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가 권장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 ▲수시로 업데이트하면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최선. ▲인터넷과 PC통신 등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때 바이러스를 체크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PC와 디스켓, CD롬 등은 주의한다. ▲매월·매주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체크해 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02)525-2141

건축장인의 땀과 꿈전

(전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이 6월 7일까지 '건축장인의 땀과 꿈'을 주제로 잊혀진 건축장인의 세계를 재현한다.

이번 전시회는 1부에서 고대에서 근대까지 당대의 목수들이 집을 짓는 데 썼던 연장과 관련 사진 250여점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95년과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담은 사진 10여점이 전시된다. (02)720-3138

아동학대 심각한 사회문제

5월5일 어린이날…"밝게 자란 아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

한국어머니 72% "자녀 잘못했을때 체벌"
선진국도 심각…인류공동의 고민거리

"부모는 다섯 가지로 자식을 경친해야 한다.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고, 착한 것을 가르쳐 주며, 학(學)과 도(道)를 가르쳐 주며, 좋은 며느리를 구해 주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장아함 선생경〉

지난달 27일 모 방송의 9시 뉴스에 보도된 미국 어느 보모의 어린이 학대는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두세살로 보이는 어린아이 머리를 향해 우유병을 던지고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학대방지센터'가 최근 밝힌 미취학 아동을 둔 동경 거주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중 1명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울도록 내버려 두는 등의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41%의 아동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보고나, 지난 1월 유네스코가 아동성학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의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월5일 어린이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5월을 가정의 날로 정해놓을 정도로 '어린이 천국'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아동학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의 4살난 아들에게 마리화나를 피우게 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엄마, 6살짜리 아들을 굶기고 매질하며 심지어 다리미로 등을 지진 친아버지와 계모, 친아버지와 친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2살 소녀,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못하 가출한 어린 남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다.

게다가 우리나라 어머니의 72%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한다는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는 우리 부모들이 매질이나 체벌을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친권이나 교육권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못 심각하다.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결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97년 91건에서 98년에는 180여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이나,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 상담센터가 제시한 97년 15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98년에는 3백여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는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난사사경〉은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전의 말씀처럼 늘 자애롭고 푸르러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사회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 상처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오길"

인터넷 그림동화서 만난 '세 어린이의 대화'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세상엔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엔 온통 다툼뿐인걸. 집과 이웃, 심지어 나라끼리도 말이야"

"그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지구를 돌보지 않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화목하게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모든 게 바뀔지도 몰라"

스티브 다이아몬드와 로버트 앨런 실버스타인이 글을 쓰고 진저 닐슨이 그림을 그린 그림동화 '평화의 날, 2000년 1월1일'의 첫대목. 사이버 평화운동 단체인 '세계평화 2000'의 인터넷사이트(www.worldpeace2000.org.story)에 들어가면 지구촌에 단 하루라도 평화의 날이 깃들기를 바라는 세 어린이의 대화가 펼쳐지는 이 동화를 만날 수 있다.

다른 한 친구는 "전세계에서 축하행사가 펼쳐질 새 천년의 첫날을 평화의 날로 하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하고, 이내 아이들은 학교에서 '평화의 날 클럽'을 만들고 전세계 대통령아저씨, 국왕할아버지께 편지를 띄운다. "어린이들은 전쟁과 죽임, 고통에 지쳤어요. 새 천년 첫날만은 총성을 멈추게 도와주세요"라고.



한명우 기자

청소년 컴퓨터게임 중독 확산

과민성 발작 일으키기도
시간줄이도록 관심가져야

청소년들의 컴퓨터게임 중독에 따른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중독은 그냥 놔두면 과민성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TV게임을 하다가 전신 경직증세를 나타낸 사례도 있다. 이같은 사례는 90년대 초 학계에 최초로 보고된 이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막기보다는 시간을 점차 줄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다른 취미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라고 권한다.

한명우 기자

우유서 세포추출 송아지 복제

日 도마코마이연구센터

우유에서 추출한 세포를 통해 복제된 송아지가 태어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홀스타인 젖소의 우유에서 추출한 세포에서 2마리의 송아지를 복제했다고 발표했다. 어미소의 체세포가 아닌 우유에서 송아지를 복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험을 실시한 도마코마이연구센터 연구팀은 홀스타인 젖소에서 유선(乳線)세포를 추출한 뒤 이 세포의 세포핵을 미수정란에 이식, 2개월간의 배양기간을 거쳐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복제송아지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시론

데바닷다의 경우

7세기경 중국의 구법승 현장은 서역 138개국을 순례하고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라는 12권짜리 기행문을 남겼다. 당시 인도의 풍속과 문화, 종교에 관한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은 고대 인도불교의 사정을 추정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꼽힌다. 그런데 이 기행문을 읽다보면 한군데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제10권에 있는 카르나수바르나국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서 현장은 이렇게 쓰고 있다.

"별도로 세 곳에 절이 있는데 유락(乳酪)을 입에 대지 않고 데바닷다(調達)의 유훈을 따르고 있다."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데바닷다는 다 아는대로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한때는 총명한 수행자였다. 부처님에게 불교상가의 엄격한 율법과 교단의 주도권을 요구하다가 거부되자 배반의 길을 걸었다.

경전에 따르면 아사세왕을 속여 새로운 교단을 세우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경전은 이런 데바닷다의 예를 들어 끝까지 개과천선을 하지 않는 인간말종을 일러 일천제(一闡提)라 했다.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그래서 해탈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현장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보니까 7세기경까지 이 데바닷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다. 현장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잠시 머리가 멍멍해진다.

> "죄 지었다 해도 성불 가능성 인정 허물 다스리되 사람 버리지 말자"

이 의문은 대승불교의 이상을 담은 〈법화경〉을 읽으면 실마리가 풀린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진 존재요, 성불의 가능성을 함장한 '부처님의 아들(佛子)'임을 가르치는 종교다. 만약 일천제라고 해서 성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은 허구가 된다. 따라서 〈법화경〉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한 데바닷다까지도 성불의 수기를 준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불의 가능성을 박탈하고서는 불교의 이상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장의 기행문은 이같은 대승불교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인도의 대승불교는 데바닷다를 따르는 무리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불과 구제의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데바닷다가 대승불교의 관용성에 의해 성불을 약속 받은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위대함이다. 지옥이 무너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이야말로 대승불교의 자랑인 것이다.

데바닷다에 관한 〈법화경〉의 태도는 지난해 있었던 조계종사태의 주동자들과 부화뇌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문제에 하나의 좌표를 제시한다. 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원칙이다. 이는 무조건 관용하고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천제도 성불할 가능성의 존재이므로 허물은 다스리되 사람은 버리지 말자는 의미다.

세속에서도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조차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그 대신 '징역 365년' 하는 식으로 평생 죄 값을 치루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승불교의 구제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부처님은 99명을 죽인 살인마 앙굴리마라조차 교화해서 제자로 삼았다. 그런 종교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사람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들이 큰 잘못을 범한 것은 수행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려로서의 목숨을 끊는 멸빈으로 징치하기 보다는 무문관에서 10년 또는 20년 동안 묵언정진토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혹시 아는가, 오히려 이를 인연으로 대도인이 탄생하게 될는지, 무더기 징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해보는 말이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방울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담골공원 맞은편 지사빌딩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보일러·온돌 심야전기 온수기·온풍기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우려가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지장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 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 (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저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 만일기도 1년 동참비 : 1만원(30년 30만원)
■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자 5치)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 협 045-01-202971
우 체 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택은행 415637-01-002302
▶ 예금주 :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리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우리집 네 식구 모두 포교사"

◇네 식구가 모두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성만씨 가족. '모범불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불자가정 양성만씨 가족

아버지 전주운불련 창립에 기여
어머니 소년·양로원 봉사 열심
장 남 파라미타 학생법회 지도
차 남 한불어린이법회 이끌어

네 식구가 14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에 참석해 온 가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신행생활과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가족포교사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그 주인공은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양성만씨(46) 가족.

양씨에게 부인 김명자씨(43)와 두아들 창주(19)·창민(17)군은 소중한 가족이자 불법(佛法)의 길을 함께가는 도반이다. 양씨 가족은 모두 '우리는 선우' 전주지회 회원이면서 전북불교회관 신도로, 매주 일요일이면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선다. 일요일을 이용해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라도 가고싶을 법한 창주·창민형제는 오히려 부모님 보다도 일찍 일어나 법회에 갈 준비를 할 만큼 불심이 깊다.

양씨는 전주운전불자연합 창립멤버로, 교화부장 홍보부장 등을 맡으며 5년 연속 개근상을 받았다. 94년 당시 25명의 동료기사들에게 운불련 창립에 관한 편지를 밤새워 써서 보내기도 했다. 양씨가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은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인 김명자씨 덕분. 김씨는 서로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절에 다닐 것을 특별히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은 양씨가 스스로 따라주었다는 것.

김씨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년원과 양로원 봉사는 물론 금산사에서 각종 수련회가 열릴 때면 두팔 걷어붙이고 공양간 일을 도맡아 한다. 남원 실상사 농장에서 나오는 무공해 채소가 관로가 없어 낭패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실상사에 직접 연락을 했다. 매주 일요법회가 끝날 무렵이면 김씨는 전북불교회관에 좌판을 벌여놓고 실상사에서 갖고 온 농산물을 판다. '실상사 채소가 깨끗하고 맛도 좋다'는 주위의 칭찬이 봉사료를 받는 것보다 기쁘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부모님의 불심깊은 모습을 보고 자란 탓일까. 창주와 창민군 역시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의젓하다. 창주와 창민군은 모두 한불어린이회와 파라미타 전주지부 회장을 지냈다. 특히 지난해 파라미타 전북연합 기장을 맡았던 창주군은 지난 2월, 고3 진학을 앞두고 스스로 3천배 기도를 올렸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이기 보다는 각오를 다지고 싶었어요. 7시간 정도 걸렸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자 고3 생활도 힘들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창주군은 고3이 되면서 학업에 전념하느라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활동을 접었지만 시간을 내 일주일에 한번씩 파라미타 학생법회를 지도하고 있다. 창민군도 한불어린이회 법회를 이끌어가는 등 어릴적부터 키워온 불심을 후배들에게 회향하고 있다.

양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니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는 것 같다"며 "신행활동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이나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 지내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집 거실 벽에는 죽비가 걸려있다. 스스로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죽비를 바라보며 경책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회의 목탁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에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⑬



김 무 조 〈토향회 회장〉

"나이 아흔은 돼야 건강 얘기를 하지, 이제 겨우 칠순 넘었는데 무슨 건강비결이냐"고 김무조 박사(72·토향회 회장, 국문학 박사)는 건강에 대해 무심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안좋다 하는 분별심을 일으켜 본적이 없어요. 담배만 해도 하루 한갑은 피우는데 담배가 몸에 안좋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건강에 대해 이런 저런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활합니다."

향토문화연구소와 토향회를 창립해 고향 사랑하기, 민족문화 사랑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김박사는 대학원 강의, 집필, 초청강연 등 바쁜생활로 나이를 잊고 산다. 토향회에서 두달에 한 번 가는 답사는 17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신라불교 속의 스님, 임금, 평

분별심 없고 무심하면 절로 건강
하루 2번 '지압샤워' 유일한 운동

민을 재조명하는 3부작을 구상하고 〈신라불교 신라스님〉이라는 저서에 이어 〈신라임금 박·석·김〉(가제)을 집필 중이다. 과중해 보이는 이런 일들조차 김박사에게는 밥먹고 잠자듯이 욕심없이 해 나가는 일과일 뿐이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불교방송이 끝나야 잠자리에 드는 김박사는 하루 2번 꼭 샤워를 한다. 샤워할 때는 자신이 개발한 혈을 뚫어주는 방법으로 얼굴과 뒷목을 손으로 때린다. 김박사가 20년째 하고 있는 자신의 유일한 운동인 독특한 샤워법이다. 아침식사는 녹즙, 우유 등의 가벼운 마실거리로 족하다. 일과 학문에 대해 욕심이 많을 것 같지만 김박사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욕심을 없앤 마음의 평정이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평정을 따르고 마음의 평정은 욕심을 없애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를 없애버리고 고요한 상태에 드는 '적멸'의 마음상태를 성취하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장수술 때 외에는 아직 한 번도 병원에 간적이 없는 김박사의 건강은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조차 놓고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한데서 오는 보너스처럼 보였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푸른 오월' 교계 행사 다채

백일장·인형극·효도관광 등 눈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계 복지관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개념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올해 어린이 날 행사는 단순히 먹고 노는 차원을 벗어나 어린이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줄만한 문화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4일 영화상영을, 솜초종합사회복지관은 5일 거리에서 얼굴에 그림그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모전사회복지관이 5일 개최하는 백일장 등도 눈길을 끌만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교계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

복지관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전화번호
강북장애인복지관	-	어르신 하루 나들이(20일경)	(02)989-4214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놀이마당(4일)	민속공연/경로잔치(7일)	(02)985-0161
낙동종합사회복지관	-	영화상영(4일)	(051)271-0560
상무성림사회복지관	'민속어울마당'(20일경)	경로잔치(8일)	(0582)32-5687
인천덕유사회복지관	-	노인정 행사(5월중순까지)	(032)325-2161
대전서구노인복지관	-	공군군악대 위문공연(12일)	(042)488-6297
문경모전사회복지관	백일장(5일)	효도관광(8일)	(0581)555-0108
분동사회복지관	'즐거운 우리들 세상'(1일)	노인콘진치(19일)	(02)817-8064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위안잔치(7일)	(0662)662-4242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가족 이름표 달아주기(5일)	은빛여행스케치(5월중순)	(0392)31-8761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인형극 공연(3일)	노인잔치(8일)	(062)941-8248
양지마을	가족 봄 나들이(7일)	-	(0415)862-7003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대공원 나들이(7일)	-	(02)564-9294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효도 큰잔치(7일)	(02)2282-1100
자양사회복지관	-	거동불편노인 봄나들이(7일)	(02)458-6796
제천장애인복지관	소풍(5일)	효도관광(4일)	(0443)652-0900
학산사회복지관	-	노인무료 합동결혼식(7일)	(0562)248-6165
한솔종합사회복지관	-	한솔어르신 큰잔치(3일)	(0342)716-4215

"여성불자 보살공동체 조직"

여불련 '21세기 여성불자 역할' 세미나

통일·복지등 사회참여 확대 제안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21~22일 청주시 대한불교 수도원에서 제3회 여성불자 지도자 양성 연수교육을 주최하고, '여성정책의 발전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기영 교수(동국대)는 '21세기 여성불자의 역할과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불교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직화와 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교수는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과 관련, 여성불자의 역할과 실천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연교수가 제시한 실천목표는 먼저 여성불자도 불교계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보살도의 실천으로 사부대중의 의식개혁, 종단의 제도개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로 분단의 아픔인 민족고(民族苦)를 극복하고 통일정토를 실현하는 통일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또 인류복지 불국정토의 '보살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체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연교수는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정치분야의 참여 확대는 여성불자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대선이나 지자제 선거에 여성불자 후보를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여성불자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범불교적으로 '여성불자발전기금' 조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찬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한국 사찰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창했던 인사들이 가장 보수적인 관변인사였다는 점을 간과할수 없다"며 "한국불교계도 승단이 지니는 여성 폄하적인 집단편견을 불식하지 않는다면 종단과 여성불자들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성문제의 사상적 기원과 한국여성정책'에 대한 이영애 교수(단국대)의 발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김정은 기자



명성여고에 나툰 청동 관음보살상

종립학교로는 처음으로 명성여고(교장 우하수)가 교정에 '관음성상(聖像)'을 봉안한다.

17일 교정에 봉안될 '관음성상'은 높이 2m(좌대포함)의 청동 관세음보살반가상으로, 불모(佛母) 이상배씨가 제작하고 불교 어머니회인 수심회(회장 이미자)의 120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온 2천여 만원을 불상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기탁해 마련됐다.

김정은 기자

청소년 단신

환경 백일장·사생대회
청정국토만들기본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청소년 통일과 환경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9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최한다.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당일 행사 본부에서 받는다. 입상자 발표는 6월1일. (02)722~7552

5일 어울마당 행사
옥련 청소년개발원

충남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대표 이종인스님)은 5월 청소년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일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즐거운 세상, 함께하는 세상, 우리들 세상! 손에 손잡고 앞으로! 앞으로!'를 주제로 신정호국민관광단지내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0418)548~9316

제1회 어린이 그림대회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9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제1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며 참가비는 무료. (062)228~9098

소리없이 팔리는 책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502 - 문화·학술편	102 - 교리·입문편	501 - 문화·학술편	401 - 문학편	301 - 선(禪)	303 - 선(禪)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법수로 배우는 불교	불성이란 무엇인가	허공의 딸꾹질	참선요지 (參禪要旨)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갈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36 변형 242쪽 / 값 5,500원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6쪽, 값 4000원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울.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울,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수암옥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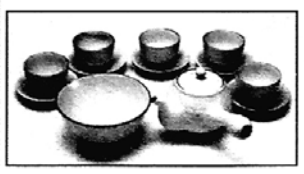
가 격
₩ 45,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석풍 건강옥 카페트



가격 ₩ 138,000

크기 170㎝×240㎝
옷감 국내산 연옥 분말 1kg
코신 필트지
바닥재 미끄럼방지 (우레탄-바이오 세리믹 처리)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십기도~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촘부다라니 불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연꽃금한직 실크로 천후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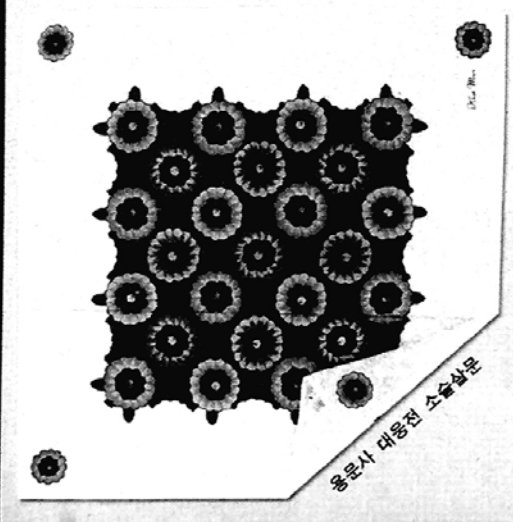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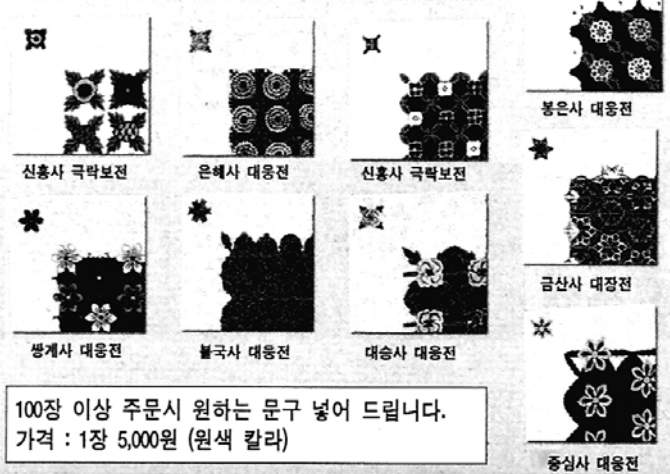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황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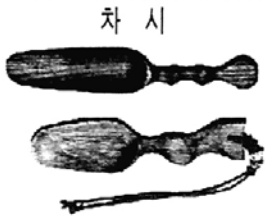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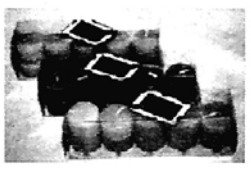
가 격
₩ 20,000
순금 99.9%

대나무 잔



크기 9㎝로 6~7치정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재질 전통 실크
크기 99㎝ 기본
40㎝ 세트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헨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만 자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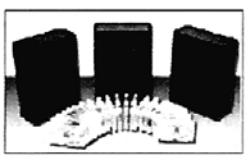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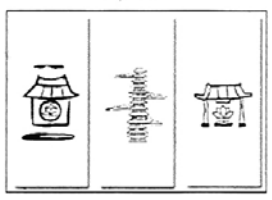
색상 :금색, 검정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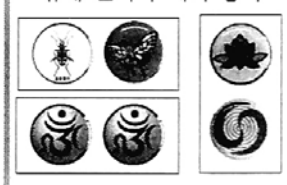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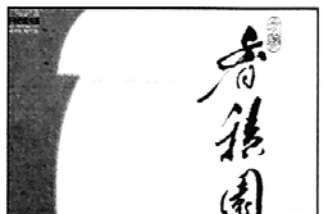
가격 ₩ 1,600 / 가장 54㎝ 폭 39㎝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무궁화 염주



가격 : ₩ 45,000

청화대선사 법희 비디오



가격 : ₩ 15,000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한국불교 총 람

4×6판 / 1144쪽
양장제본
가격 ₩ 120,000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거산 죽염

죽산지 죽산 가격 ₩ 30,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유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전통식품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 (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무방부제, 무조미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판매가
· 고추장 1kg기준	12,000원	· 무 장아찌1kg	12,000원
· 된장 1kg기준	7,000원	· 마늘쫑 장아찌1kg	12,000원
· 쌈장 1kg기준	7,000원	· 된장 통임 1kg	12,000원
· 간장 1.8L	8,000원	· 된장 깻잎 1kg	12,000원
· 더덕 장아찌1kg	30,000원	· 된장 고추 1kg	12,000원
· 오이 장아찌1kg	12,000원	· 산초 장아찌 1kg	30,000원
· 감 장아찌1kg	12,000원	· 울외 장아찌(나나스키)1kg	12,000원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의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희망소매가격 : ~~1,000,000~~원
•특 판 가 : 495,000원

강석주 대선사님은
1909년 경북 안동출생
1923년 신학천에 출가
1929년 부산 범어사서 득도
1930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 금강산 마하연 · 건봉산 · 정혜사 · 묘향산 보현사 선방서 안거
1953-84년 은천사 · 불국사 · 봉은사 · 은혜사 · 관음사 주지
1955년 범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신학원 이사장
1965년 월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1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중앙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작품보증서 첨부■
송정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디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상평하던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이어 우리 민족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외 일본, 대만의 각종
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쳐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
이분청자기후 씨입하게 세련시킨
이시대의 전통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정적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법회안내

정토회·무불선원 법문



성수스님(활대선원 원장) 9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법회 '자기 성찰과 지혜의 삶' 법문. 2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수요초청법회. (02)587-8994

법명사 10돌 기념설법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13일 오전 10시 30분 법명사 창건 10주년 기념 대법회. (032)576-9741

매주 정기 일요법회



지장스님(익산 관음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후 7시 특별다라니법회. (0653)854-1578

9일 괘불 점안법회

원경스님(심곡사 주지)9일 오전 10시 심곡사 괘불점안법회. (02)943-085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5월5일 (수)

■ 능인불교문화강좌 개강=능인선원은 6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능인불교문화강좌를 실시한다. 한국사찰의 건축미 탐구,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사상과 경영학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02)577-5800

■ 봉은사 봉축 부처님 그리기 대회=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 주관으로 봉은사에서 봉축 부처님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02)420-3200

5월6일 (목)

■ 봉축 동국문화 예술제=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봉축맞이 동국문화예술제가 펼쳐진다. (02)2260-3607

■ 반야사 위빠사나 산림법회=여주 반야사는 오전 10시 미얀마 스님 초청 위빠사나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0337)884-0107

5월7일 (금)

■ '한국불교 승직제도의 역사와 현실' 학술회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오전 10시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에서 '한국불교 승직제도의 역사와 현실' 학술회의를 연다. (02)732-4923

■ 삼사구도법회=삼천사는 경북 예천 용문사, 영주 부석사, 문경 김용사 등지로 삼사구도법회를 떠난다. (02)359-7766

■ 불교사바로보기 '교단개혁의 시도와 좌절' 강좌=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모임은 저녁 7시 조계사 제2교육문화회관 강의실에서 불교사바로보기 '교단개혁의 시도와 좌절' 강좌를 진행한다. (02)736-0386

5월8일 (토)

■ 조계사 우리옷 바자회=16일까지 조계사 내에서 우리옷 바자회가 펼쳐진다. (02)720-1390

■ 삼소회 북한어린이돕기 음악회=삼소회 북한어린이돕기 음악회가 오후 3시, 7시 KBS홀에서 열린다. (02)723-2996

■ 정토회 장사익 노래공연=오후 3시 정토회에서 가수 장사익의 '땅의 절규, 한의 외침' 공연이 펼쳐진다. (02)587-8994

■ 보경사 대전사 답사=옛돌은 9일까지 포항 보경사와 청송 주왕산 대전사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02)2266-1233

■ 우리는선우 토요법회=오후 3시 우리는선우 토요법회에서는 이병철씨가 '왜! 지금 귀농인가'를 주제로 법문한다. (02)2278-8672

■ 오어사 불국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운제산 오어사 철야 및 경주 불국사 참배법회를 떠난다. 오전 7시에 출발한다. (02)2279-1191

5월9일 (일)



◇푸른 5월 동심이 그리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 장기기증 생명나눔 자비실천법회=부루나포교원은 오전 10시30분 장기기증 생명나눔 자비실천 법회를 봉행한다. (032)576-9741

■ 광주불교교육원 어린이 그리기대회=광주불교교육원은 제1회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무등산 증심사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까지 연다. (062)228-9098

5월11일 (화)

■ 부처님오신날 시청앞 봉축 점등식=저녁 7시 서울시청앞. (02)735-5861

5월12일 (수)

■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연다. (02)723-5101

게 시 판

♣ 알림

▲창작등 공모=강남포교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의 창작등을 공모한다.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창의적이고 정성이 담긴 창작등을 출품하면 된다. (02)539-2631

▲노인 무료한방진료=능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무의탁노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3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2)571-2988

▲장애인 보장구 지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장구를 구비하지 못한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02)989-4215

▲상담실 운영=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의 특성과 문제 이해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한다. 심리검사, 지능검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한다. (02)2282-1100

▲해람합동법률사무소 개업=변호사 배금자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에 해람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02)3474-5555

♣ 강좌

▲〈반야심경〉 대강좌=정토회는 1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저녁 8시 두차례에 걸쳐 〈반야심경〉 대강좌를 실시한다. (02)587-8993

▲최면참선치료 워크숍=박민수 참선교육원은 최면상담치료를 통해 심인성, 만성적 장애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워크숍을 실시한다. (062)251-2733

▲취미메이크업=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취미메이크업 강좌를 연다. 기초화장과 피부관리, 신부화장, 코디까지 지도한다. (02)2282-1100

▲어린이시사토론반=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2시 어린이 시사토론반 교실을 운영한다. (02)571-2988

▲두뇌개발 마인드맵=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두뇌개발 마인드맵 강좌를 연다. (051)405-5223

♣ 모집

▲나눔의집 후원자=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집에서는 지속적으로 후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347)768-0064

▲능인선원 자원봉사자=능인선원은 컴퓨터 입력, 컨설팅 전문가, 회계전공자, 공양간 구매 등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577-5800

▲이미용자원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 이미용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전현직 이미용사로 봉사활동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02)2282-1100

▲아동속셈·논술·미술지도교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속셈·논술·미술지도교사를 각 1명씩 모집한다.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험자여야 한다. (02)2282-1100

▲사랑의 돌보기 지원=청담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돌보기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31일까지. (02)806-376

▲자원봉사자=경불련 자비의집에서는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전통침 봉사, 공양준비 등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75-4200

▲양식조리사 수강생=신도림복지관에서는 양식조리사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에 지도하며, 3개월과정이다. (02)631-9792

▲성인 피아노 수강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피아노 수강생을 모집한다. 반주, 째즈, 클래식, 동요 등을 지도한다. (02)817-8052

▲이동목욕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중풍노인과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을 직접 찾아가 목욕봉사를 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급식 및 도시락지원사업 후원자=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결식아동, 청소년들의 급식 및 도시락 지원 사업을 도와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421-6077

▲어린이도서 후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어린이도서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82-1100

▲국군장병 위문품=강남포교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군장병에게 발송할 위문품을 모집한다. (02)539-2631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6-1376

♣ 답사

▲고성산성·동강 유역=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강원도 고성산성과 마지막 비경 영월 동강을 찾아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상임포교사 선발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4명의 상임포교사를 선발, 동화사 산하단체 및 직장 직능 단체의 정기법회를 지도, 청소년법회 및 청년법회의 법사를 맡으며 불교관련 자료 및 포교자료의 개발을 담당한다.

송광사 보살계 수계

승주 송광사(주지 현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보성 원명 종진 스님이 계사로 10일 입재에 들어가 12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식을 갖고 오전 10시에는 보조국사 789회 종재도 봉행한다.

태고종

김용옥교수 초청 강연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9일 오전 10시 삼천불전에서 철학자 김용옥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공과 깨달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 김용옥 교수는 해박한 지식으로 21세기를 선도해 갈 불교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02)392-3007

천태종

남부어린이 체육대회

남부지역 천태 어린이 체육대회가 2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부산 대구 등 남부지역 천태종 사찰 어린이 2천여명이 동참, 피구·단체줄넘기·사찰별 릴레이 등 각종 경기로 친선을 도모했다.

진각종

불우학생돕기 문화공연



밀각학생회는 불우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문화공연을 4월 24일 동숭동 마로니에 노천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천지소리 풀물공연 사랑나루터 노래공연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이날 수익금 전액은 학비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비지원에 쓰여진다.

관음종

열쇠부대 OP 점등식

4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연천 5사단 열쇠부대에서 OP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일붕선교종

국태민안 기원 수륙재

경남교구(교구원장 현각)는 4월 26일 경남 고성 당항포 국민관광지에서 국태민안을 위한 괘불 점안 및 수륙천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원효종

원효성사 열반대재

원효성사 열반 1313주기를 맞아 14일 총본산 부산 금수사(오전 11시)와 서울 효창공원(오후 2시)에서 원효성사 열반대재 및 제50회 순국선열 33위 추모재를 봉행한다.

한국법화종

불사리 친견법회

총무원(원장 김광태)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 불사리는 1978년 네팔에서 이운해 온 것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 친견법회를 가져왔다.

조동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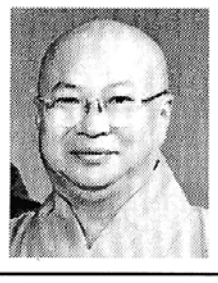
우암사 화곡동 이전

서울 우암사(주지 법성)는 강서구 화곡본동 24-198로 법당을 이전하고 4월 25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전법회에는 지명 승정원장 학봉 총무원장 등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02)698-6100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아미타대불 점안

영천 만불사…높이 33m

재단법인 만불회(회주 학성)는 지난달 25일 영천 만불산 만불사 극락도량에서 아미타영천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영천대불은 아미타불로는 국내 최대인 33m크기의 입불로서 인조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해발236m의 산중턱에 위치한 영천대불은 표면을 도금처리하고 1백여개의 직간접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구간 일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불의 팔각좌대 외벽은 가로12.5cm, 세로20cm의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1만불로, 미간의 백호는 지름20cm의 수정유리로 장엄되어 있다. 이윤호 기자

지리산내 사찰 봉축프로 '합심'

'뭇 생명 건강기원' 23회 종소리
영화제·산중한담·시화전도 열어

쌍계사, 화엄사, 벽송사, 대원사 실상사 등이 있는 지리산은 한민족의 영산이며 골골마다 사찰과 암자를 품고 있는 불교인의 성지이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민족의 성지 지리산 지역의 모든 사찰이 같은 시간 같은 수의 타종을 하는 등 새로운 봉축문화를 선도한다.

지리산 봉축행사를 주도하는 실상사(주지 도법)는 사중 2명, 화엄학림 2명, 화림원 1명, 농장 1명, 귀농학교 1명 등으로 봉축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를 구성하고, 17일~22일 컵등제작 판매, 기념깃발달기, 산중한담, 지리산 작은영화제, 시화전, 타종식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실상사 창건이래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봉축행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사찰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의견이 모아져 추진하게 됐다.

실상사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결식아동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컵등을 경내 찻집에서 판매하고, 지리산내 5개 면의 도로변에는 청년회에서 직접 제작한 봉축 깃발을 설치해 부처님 오신날 분위기를 한껏 북돋우게 된다.

봉축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인월북지회관(또는 뱀사골 야외무대)에서는 지리산 작은 영화제를 열어 부처님생애, 생태영화 등을 상영하고, '좋은 시와 그림이 만나면 마음은 봄날' 주제 시화전을 경내에서 연다. 현재 주지 도법스님을 비롯, 화림원, 학림, 농장, 귀농학교, 신도회, 청년회 대표들이 시화전에 전시할 시작에 여념이 없다.

18일에는 실상사 귀농학교와 농장 주최로 '현시대 지역사찰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산중한담을 열어, 실상사가 하는 일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봉축행사의 하일라이트는 부처님 오신날인 22일 오전 10시 지리산 지역의 모든 사찰이 같은 시간 같은 수의 타종을 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총 23회 울려퍼지는 종소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짝 세계관에 입각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의 모든 생명이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지리산 생태보호의 염원을 담는다. 23회의 타종수는 지리산에 소속된 행정구역 3도 5군 15개면을 종합한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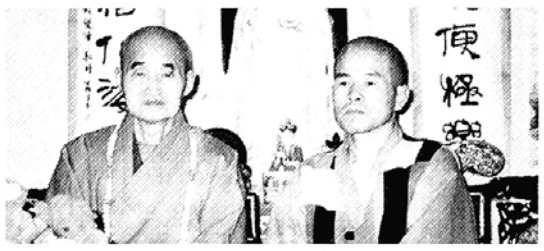
위원장인 도법스님은 "부처님의 생애와 뜻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올바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점차 지리산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지난 95년 육신보살로 화현한 통혜비구니스님(오른쪽은 생전의 진영). 젊은 스님들을 양성하면서 중국선종의 중흥을 서원한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과 함께한 자명스님(사진아래 오른쪽).



세계 최초 비구니 육신보살 탄생

95년 99세 입적 中통혜스님 법신보존
구룡사 자명스님 답사후 국내에 알려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육신보살(肉身菩薩)이 탄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육신보살은 지난 95년 99세의 나이로 입적한 통혜사의 통혜스님.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중국 고승의 수행처와 선종 사찰을 답사하고 돌아온 자명스님(시인·구룡사)에 의해 밝혀졌다. 그동안 신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육신보살이 된 김교각스님 등 비구 육신보살은 여럿 나타났으나 비구니 육신보살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육신보살이란 일체 중생과 같이 육신을 가진 보살이란 의미. 〈육조단경〉에는 선지식(善知識)의 존칭으로 쓰이기도 했다. 현실적으로는 청정한 수행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력을 세운 스님이 입적후에도 육신이 썩지 않고 법신을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국 선종 유적의 답사를 통해 한국 불교가 방향, 나아가 새로운 인류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느꼈다"는 자명스님은 "중국 공산당과 문화혁명의 법난속에서도 이러한 육신보살이 나타난 사실은 중국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에서 〈한산의 시세계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승이자 시인인 자명스님은 94년 4월부터 그리스와 유럽을 시작으로 인도 미얀마 태국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등을 순례하며 문화의 원형을 탐구해 왔다.

스님의 이번 중국 선종 유적의 답사 코스는 고승과 그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자명스님은 "중국 선종의 회미한 그림자를 통해 한국 선종의 뿌리를 확인하고 선종의 유일한 법통이 한국불교에 이어져 있음은 물론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육신보살에 경이감을 느끼기에 앞서 스님의 깊은 신심과 수행력을 불자들의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히말라야 녹차 개발했어요"

한국불교문화진흥원 네팔서 차밭 경작키로

부처님 고향 네팔 히말라야 산록에서 재배되는 차로 동양인들의 입맛에 맞는 녹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룸비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금정스님)은 지난 4월8일부터 11일까지(2박3일) 네팔 동부 히말라야 산록에 산재한 차밭을 순례하며 차를 덖는 차문화 행사를 갖고 우수한 품질의 녹차를 개발한 것.

히말라야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이번 차문화 행사에는 한국에서 대흥사 주지 보선스님과 일지암 여연스님이 동참했고, 금정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문화진흥원 회원과 현지인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여연스님은 "수십년 동안 차를 덖어왔지만 이렇듯 훌륭한 녹차를 덖어본 일이 드물다"고 감격을 표했고, 대흥사 주지 보선스님도 "좋은 차에 좋은 도반들이 함께해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금정스님은 "동양인의 입맛에 맞는 고급 녹차를 히말라야 산에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한국 네팔과 공동으로 히말라야 산중에서 차를 덖고 차밭을 일구는 신행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스님들이 네팔 현지인들과 함께 차를 덖고있는 모습.

운문승가대 277명 졸업



진광스님 강사 전강

대한불교조계종 청도 운문사(주지 혜근)는 4월24일 만세루에서 운문승가대학·대학원 졸업법회와 강법을 전수하는 전강식(傳講式)을 봉행했다(사진).

운문사는 이날 지환스님등 승가대학 졸업생 2백71명과 영담스님등 승가대학원 졸업생 6명을 배출했으며 운문승가대 중강(仲講)인 진광(眞光)스님이 명성스님의 전강제자로 탄생했다.

승가대학은 31회부터 35회까지의 수료자가 동시에 졸업식을 가졌으며 승가대학원은 개원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로써 운문사는 58년 강원개설 이래 총1천62명의 졸업생과 5명의 강사스님을 배출하게 됐다.

명성스님은 훈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엄숙한 순간"이라며 "각자 나아가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유통 교해하는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포교대상 안성이 보살
부산 불교신도회 시상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달 26일 코모도호텔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갖고 포교대상 및 청소년 단체 지원금을 전달했다.

류진수 회장을 비롯 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부산보현회 회장 안성이보살이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날 중학생 불교연합회, 고등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 등에 지원금으로 총 6백만원이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영전사 노숙자시설 위문

경북 영주 영전사(주지 해득)는 지난달 26일 노숙자들이 수용돼 있는 부산보현의 집을 방문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신도 1백20여명이 함께 한 이날 위로방문에서 영전사는 쌀, 떡 등과 1백만원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北 비료보내기 모금 캠페인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등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계사와 관악산 연주암에서 불교추진위가 벌이고 있는 북한에 비료보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료보내기 동참법회'를 열었다.

불교추진위는 이날 법회에서 "오는 6월말까지 비료보내기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한국JTS,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국제옥수수재단 등 14개 단체는 '99북한 농업·식량·의료지원 위한 공동모금추진위원회를 결성, 30일 천도교 중앙총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국민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모금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강화 군부대 위문
연천 향지모임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지난달 13일 강화도 전등사와 보문사에서 사찰순례 행사를 가졌다.

향지모임은 이날 사찰순례 행사를 마친 뒤 강화 애기봉을 찾아가 군불자 위문행사를 가졌으며, 이어 의정부의 한 고아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위로했다. 김원우 기자

실직자 급식비지원
경북도, 김천사암련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는 4월14일 김천불교사암연합회에 실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배정했다.

김천사암련은 작년 5월부터 옛 금릉군청 자리에서 매주 목·금요일 두차례 무료급식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협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사면/경감/복권 신청 절차에 관한

공 고

佛紀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본 종단에서는 자비문중의 대화합을 위하여 1962년 통합종단시부터 1998년 12월31일까지 종헌종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승려중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 경감, 복권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비행을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수 있다는 종헌 제 128조에 의거 심사과정을 통하여 사면, 경감, 복권 심사대상자를 확정코저 하오니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들은 아래와 같이 사면, 경감, 복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면, 경감,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경감, 복권 신청자중 심사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종헌종법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면, 경감 복권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 1962년 통합종단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징계를 받아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 (멸빈자 제외)
2 신청기간 : 1999년 4월29일 - 5월6일
3 제출서류 : 사면, 경감, 복권 신청서 (총무원 호법부 내방하여 작성할 것)
징계기간중 수행정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등)
호적등본, 사진1매 (가사수한 사진)
※대상 승려는 본인이 직접 총무원 호법부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을 것
4. 문 의 : 총무원 호법부 (전화 02-735-5865, 팩스 02-735-0613)

불기 2543년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고 산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소원 발원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기도 발원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원인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저 펜을 들었습니다.
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 잘못은 유산한 어린생명을 살인한 죄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병이 많고 궁핍하고 제명대로 살지못하는 까닭은 유산이 그 근본이라"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 하나하나가 저항도 못한 채 갈기갈기 찢긴 채 죽어가는 피덩어리 생명체이며 그 생명도 소중한 나의 아기입니다.
현재의 나의 자식만 사랑하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영혼들이 갈곳이 없어 내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기들이 놀고 있는 자리가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이 되고 애들은 방황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산만하고 공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애들, 또 잘하던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는 돈이 없어 매일 허덕이는 생활의 연속이 되는 것은 태아(유산한 아이들)들의 한 때문입니다.
저 법장(비구니)은 이 어린 생명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천도를 시켜 부처를 만들겠노라고 시방세계 부처님께 굳게 맹세하고 서원을 세워 현재도 그 생명들을 천도하여 대광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떠나보낸 가정이 하나하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기에 1999년을 맞이하여 대불사 단체 천도식을 거행할 것을 서원하여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생명들을 바르게 부처님 곁에 보내고자 합니다.

· 천도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전화 : 02)929-9807, 휴대폰 011)398-9807 (법장)
유산한 아기천도 비용은 아기 한 명당 3만원
옷과 과자, 우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도 함께 포함, 천도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식구, 주소,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아래 주소지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천도하여 대광명을 찾아줄 것입니다. 동참하실 분은 동참 바랍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2-17호
수자 성 불 사 법장 합장

※ 송금 온라인 번호 : 제일은행 153-20-227927 장 봉 임

부처님을 믿으시는 마음으로 의심없이 이 생명들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뜻한 소원성취가 꼭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평생 사주

1人 무료간명권

본 무료 간명권을 신여(보살)님들께 드리오니 본권을 절취하시여 신여님의 가족중 간명의뢰인 한분을 선정하시어 아래 간명의뢰인난에 음력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가녕서 수취인 난에는 신여님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하시어 우편으로 본원에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간명의뢰인의 평생사주 간명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명의뢰인	남여	음력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	기혼 미혼
▶ 남, 여 기혼 미혼 해당난에 O표하여 주십시오.			
간명상 특별히 알고자 하는 사항			
간명서 수취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본 무료간명권의 작성인과 수취인은 반드시 신여(보살)님에 한하오며 신남(거사)님과 스님은 본권 작성과 간명서 수취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801-57
해동명리연구원
전화 02)713-4852 FAX. 02)713-4853

'카루나의 모임' 1400회원 십시일반 경주지역 소년소녀가장 집 짓는다

'카루나의 집' 6월기공 올말 완공

부모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보금자리가 후원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오신날을 한층 뜻깊게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결손가정 등의 가정을 방문,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경주 카루나의 모임(회장 성형스님)은 창립이후 10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카루나의 집을 건립한다. 결식아동을 돕기위해 지난 88년 1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봉사단체 카루나의 모임은 10년 만에 1천4백여 회원으로 늘어났고 십시일반 모금한 회비로 마침내 카루나의 집 건립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 경주지역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주시 보문동 417번지에 80평의 부지를 매입해 현재 기공을 준비중인 카루나의 집은 오는 6월 건립에 착수하며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 6세대가 입주할 건물과 법당이 1차로 완공되면 단층 연립식으로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 구조의 카루나의 집에는 월세 및 전세 계약만기로 오갈데 없는 소년소녀가장 6세대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카루나의 모임은 카루나의 집 건립이 숙원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차불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1백여평을 추가로 매입, 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2층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이는 현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40세대를 비롯 지역내 소년소녀가장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루나의 집에는 부대시설로 독서실, 컴퓨터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어진다.

한편 카루나의 모임은 소년소녀가장들의 보금자리를 보다 원만하게 건립하기 위해 모금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불국사와 불교문화대전 체험관에서 부채및 달마, 안동 하회탈그림 전시회를 6월 5일까지 열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건립에 보태게 된다.

카루나의 모임 명예회장 종수스님은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풍요롭지 못한 가정환경과 역경을 극복하고 어릴 때의 꿈을 키워가도록 자비로써 도와줘야 한다"며 "카루나의 집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고 이웃에게 발현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송광사 효봉영각 누전추정 전소

송광사 경내에 있는 효봉스님 영각이 4월 27일 새벽 1시 30분경 화재로 완전 전소됐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송광파출소 백종학 경장은 "순찰도중 효봉영각 천장 부위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곧바로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전기 누전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강원도 홍보용 계간지 불교비방 내용 '물의'

강원드의 홍보용 계간지인 〈동트는 강원〉 봄호에 불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강원도 불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양양군 한남초등학교 이재풍 교장은 〈동트는 강원〉에 기고한 '기미 3·1운동과 양양감리교회'란 글을 통해 "역사와 더불어 원시신앙과 불교문화가 오랜 흐름을 탔지만 미신과 우상, 그리고 무지몽매한 탓으로…" 등 불교를 모독하는 글을 실었다.

1만6천부나 발행하는 공공 기관지에 이같은 불교비방의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 월정사(주지 현해)는 발행기관인 강원도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필자인 이재풍 교장은 월정사에 사과편지를 보냈으나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재발방지와 주의환기를 위해 발행인인 강원도지사의 사과와 홍보지 회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천진동자 30일간 출가" 조계사는 4월 29일 오전 대웅전 앞 마당에서 부주지 지홍스님을 계사로 '동자승 삭발 수계의식 및 출가 30일' 행사를 가졌다. 동자승으로 출가한 4~7세의 5명 어린이들은 출가 의식절차를 통해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절생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하게 된다. 또 16일 제등행진과 22일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여해 일반대중과 외국 관광객들의 눈길을 모으게 된다. 김재경 기자

민족화합 사찰순례법회 추진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 창립…임원진·사업계획 확정

불교를 통해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동서화합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가 지난달 29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는 불교의 원융사상에 입각한 공동체적 모델 제시와 동서화합을 모토로 내걸고 △동서 사찰 결연과 본사별 공동방생법회, 민족화합 공동순례법회 등의 지역사찰 교류운동 △타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문화 서로알기행사 등의 지역문화교류운동 △지역소외 정책이나 유언비어 감시운동과 사찰이 주도하는 지역화합을 위한 지역·계층별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갈등 조장 세력에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동서화합 불교운동본부는 이날 법장(수덕사 주지) 도후(신흥사 주지) 성타(불국사 주지) 보광(해인사 주지) 중원(제주 관음사 주지)스님 등 5인을 상임공동대표, 진관스님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기구 및 임원진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6면〉

창립식에는 청화(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타(은해사 주지) 스님과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씨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이웃 아픔 나누는 연등달자"

사찰·복지단체 '자비의 등달기' 캠페인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등달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소쩍새마을이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02)928-0750, 자광원에서도 치매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자비의 등달기를 호소하고 있다(0342)759-5320.

경불련 자비의집과 서소문 아침을 여는 집에서도 실직자와 노인을 위한 연등을 접수하고(02)945-4200, 한국불교연구원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등 만들기를 실시한다(02)3411-6167.

나눔의집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중국거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자비의 등을 접수한다(0347)768-0064. 맑고향기롭게에서도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 동참금의 일부를 결식아동 후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02)741-4696.

우리는선우(02)2278-8672, 광명시 금강정사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이웃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자비의 등, 나눔의 등 달기를 펼치고(02)893-2700, 조계종 봉축위도 9일 서울역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등을 밝히는 작은 마당을 펼친다(02)725-6641. 이은지 기자

해인골프장 백지화 범대책위 연대집회

해인골프장 건설반대범대책위는 4월29일 노골프데이(세계골프 없는 날)를 맞아 28일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해인골프장 예정부지에서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한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범대책위는 '99년은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투쟁 승리의 해입니다'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호돼야 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야개발측에서 요청한 공원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불허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책위는 또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해 승리를 이끌어낼 것을 결의했다.

세계골프없는 날 행사는 92년 11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행동, 제3세계 관광포럼'에서 제안돼 세계골프장 반대 국제운동으로 확산돼 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19일 조계사서 불교인권문화제

매년 봉축행사로…종교계 500인 인권선언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가 19일 오후 6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된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양심수들을 되돌아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격려사와 김상근 목사의 축사 등 제1부 개막식과 제2부 함세웅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종교계 500인 인권 선언문 낭독, '이 땅의 자비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제3부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불교인권문화제'를 매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로 치르기로 하고, 공연 등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민가협과 장기수 후원회 등 인권단체에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영호남 불자 문화교류 1천여 사부대중 동참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회장 이주성)는 4월25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호·영남 청년불자 문화교류 및 철웅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문화행사와 2부 법요식 및 철웅스님 법회로 이어졌으며, 천운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성호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벽상스님(흥룡사)을 비롯해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 자민련 박철언 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철웅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선악의 분별하는 마음으로 동서의 벽을 만들고 그 지역감정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에 따라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주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천년,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호·영남 처연불자들이 하나의 작은 씨앗을 뿌려 대화합의 장을 열자"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뉴스 & 뉴스

불교방송 개국 9주년법회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3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본사 및 지방사를 포함해 17명의 직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축하메시지를 보내 "불교방송이 부처님의 법을을 통해 평화와 화합된 사회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감사 드린다"며 "21세기에도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깨침의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부대중 사찰운영' 심포지엄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1일 오후 6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 실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봉은사를 예로 든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 사례발표 및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의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을 어떻게 확산,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홍(조계사 부주지) 법안(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스님 서정법성(능인선원 총간사장) 박희승(조계종 교육원 교육과장)씨 등이 참여한 토론회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전불련 배영진의장 취임식

전불련은 8일 오후 3시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배영진 신임 의장 취임식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전불련은 이날 행사에서 교단 개혁과 재가불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재가불교운동'을 펼쳐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장기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 우용각씨(41년 복역)가 '내가 생각하는 통일'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명우 기자

중신회 봉축열기구축제 취소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신도회·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5월 20, 21일 공동주관할 예정이던 '부처님 오신날 기념 서울 열기구 축제'가 취소됐다. 김재경 기자

정화회의 종정 추대 무기 연기

정화개혁회의(총무원장 정영)는 7일 강남 구룡사에서 열기로 한 종정 추대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4월26일 밝혔다. 김재경 기자

고침 일부지역에 배포된 본지 220호 4면 교차로중 '월주 구 조계종…'을 '월주 조계종…'으로, 23면 톱기사중 '자민련 이신범의원'은 '자민련 이원범의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내사랑 부산! 부처님과 함께!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시민 연등 축제

1) 시민과 함께 (전시회·공연·화합의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불자친선 축구대회	5/2(일) 9시	남산동외국어대운동장	사대련불교청년회 부산지구 ☎ 469-6345
연등만들기대회	5/2(일) 14시	범어사탑전	조계종부산불교청년연합회 ☎ 867-8048
불교영화상영	5/3(월)~4(화) 18시~20시	양정 청소년 회관	양정 청소년 회관
연등만들기 및 나누어 주기	5/4(화)/15(토)/16(일)	부산역 광장	연미회선원 부산지원
거리 등달기	5/4(화)~22(토)	부산시내 일원	부산불교고등학교/해원정사 진시장 청불회/육천선원 불교신흥합동조합/연미회선원 금정정사/정양불원/부산불교방송
미술전	5/6(목)~10(월)	국제문화센타 제2전시실	대한민국불교미술작가협회
서예전	5/6(목)~10(월)	국제문화센타 제1전시실	묵구 서상구서단연합회
꽃꽂이전	5/6(목)~10(월)	국제문화센타 제1전시실	연미회선원 부산지원/통도사부산포교원 ☎ 464-2020
우리차 시연 시음·전시회	5/6(목)~10(월)	국제문화센타	옥천사 복천다도회 연미회선원 감로회
도자기·공예전	5/7(금)~20(목)	부산역 삼성화재	천마재활원 ☎ 464-2020
봉축탑 점등	5/8(토) 18시	동명오거리/충호삼거리	동명불원 ☎ 624-7667
환경을 생각하는 기족등산대회	5/9(일) 10시	구덕산 및 승학산 일대	부산불교신익회 ☎ 464-2020
외국인 연등만들기	5/9(일) 14시	통도사 부산포교원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봉축탑 탑돌이	5/10(월)~21(금) 매일 19시	부산역 광장	삼광사
전통등 전시 및 만들기	5/10(월) 13시~19(수)	부산역 문화관	부산불교교육원
불교도서전시회	5/10(월)~19(수)	부산역 문화관	부산불교신도회
고현 미술전	5/12(수)~22(토)	국제문화센타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부산시 차 잔치마당	5/13(목) 11~16시	문화회관 소강당	부산차인연합회
야외 미술 전시회	5/13(목)~16(일)	범어사 탑전	부산불교문화원
비구상묵전	5/14(금)~20(목)	롯데화랑	비구상묵전 후원회
거리찬불가공연	5/15(토) 17시	부산역 광장	사대련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동래학춤/진도북춤	5/15(토) 16시	부산역 광장	보현회
부처님오신날 찬탄시 낭송회	5/15(토) 18시	부산역 문화관	부산불교문인협회
심천배 참회기도	5/15(토) 20시~16일(일)4시	부산역 광장	통도사부산포교원 금정정 ☎ 636-2041
"열린 종교로 가는 길"강연회	5/15(토)~17(월)	미륵사	미륵사
우비이 무용단 공연	5/15(토) 18시	부산역 무대	통도사부산포교원 우비이무용단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선무도	5/15(토) 19시	부산역 광장	금강심/진무사
사물놀이 및 가야금 찬불가 공연	5/16(일) 14시	부산역 광장	대전지정신흥회/보현회/보현선원/동래교육불교대학/연미회선원/부산불교교육대학/통도사부산포교원
외국인 불자 안내	5/16(일) 16시	부산역 광장	통도사포교원 국제포교부
부산·영남어린이 사경대회	5월 말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 806-7111
사진전	5/18(화)~20(목)	양정 갤러리	대한불교신문사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초청한마당	5/22(토) 10시	미륵사	부산불교자비원

2) 나눔의 장(복지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1(토)~22(토)	노인 각 세대	부산진구가정봉사원 광견사업소
영정사진 찍어주기	5/5(수) 10시 5/16(일) 10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본진가사회 ☎ 624-4892 전국무진기사불자연합부산지부회 ☎ 011-856-2340
결식청소년 금식지원금 전달	5/5(수)	내원정사	사회복지법인 내원
교도소 위문 및 지원	5/8(수)~20(목)	경북교도소/부산지소 외 5개교도소/부산지소 외 5개교도소	삼광사/연미회선원/진여원/불법지회
장학금 전달식	5/5(수)~20(목)	해원정사/금정정사 외	남구수암구 사회연합회 감로사/금샘합창단/금정정사
어린이에게 봉 나누어 주기	5/5(수)~20(목)	연신로타리	해원정사
보시용컵등 나누어 주기	5/5(수)~20(목)	각 병원	해원정사
어린이 포교비 전달식	5/5(수)~20(목)	감로사	감로사
북녘동포 돕기 모금행사	5/8(토)/15(토)/16일(일)/22(토)	부산역 광장	대학생 불교연합회 부산지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전달	5/8(토) 14시 5/15(토) 15시	삼광사법화당 광래구청대강당	삼광사 광래구사집연합회
택시연등 및 염주달기	5/9(일) 11시	조방앞	부산불교무진기사회
기름의 쌀 108	5/10(월)	두송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늘 거룬마을
무차법회(무료급식)	5/10(월)~15(토)	부산국제여성연합개발원/부산여성회관/부산여성정책연구원/부산여성발전센터/부산여성회관	통도사부산포교원/금정불교대학 자비회, 법/공덕사/수덕사 보현회원/전여원/연미회선원
사회복지시설위문	5/10(월)	한마음원/영주원/정화원	삼광사
경로잔치	5/10(월)~15(토)	복지관 및 사찰내	동문대사회복지관/정광사/두송종합사회복지관/용궁사/금정사회종합복지관/감로사/부산천주교봉사협의회전시업소/개금사회복지관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이·미용 자원봉사	5/11(화) 10시	부산역 광장	금정종합사회복지관
임원환자위문법회	5/15(토) 5/18(화)	부산대학교병원 보훈병원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불교교육대학보문분원성화
노인을 위한 열린음악회	5/15(토)	동명불원	동명불원
의료서비스	5/16(일) 10시	부산역 광장	시/불국토
군부대 위문 법회	5/16(일) 13시 5/23(일) 8시 5/9(일) 19시	해군캠대서병부53사단 신교대 및 제8시/논산훈련소 해병신병대	삼광사/해월심종법원/감로사/불교교육대학/이성불지회/통도사부산포교원/여래미륵정진단
10원짜리 동전모으기	5/16(일) 14시	부산역 광장	연합회 시민복지원 ☎ 867-0501
자비의 씰모으기 및 전달	5/16(일) 16시	각시장/부산역광장	연합회 시민복지원 ☎ 867-0501
북녘동포돕기 성금전달	5/16(일) 16시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 북녘동포돕기 운동본부
치매노인을 위한 위로 한마당	5/17(월)	노인건강센타	부산불교자비원/육비리힐링
헌혈행사	5/22(일) 10시	영주암	시/불국토

3) 미래의 장(청소년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어린이 연꽃문화제	5/2(일) 10시	해운대 백사장	부산불교어린이지도지회 ☎ 853-5486
걸손가정 아동 나들이	5/5(수) 9시	동도환타지아	시/불국토/개금사회복지관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5/9(일) 10시	금정중학교	미라이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 ☎ 817-2648
청소년예술제 20 그리고 21	5/9(일) 15시	양정 청소년회관	부산불교중학생지도위원회
장애청소년나들이지원	5/9(일)	경주/감포일대	부산교사불자연합회
대학생노문발표대회 수상자 및 심광한글 학술상 시상식	5/13(목) 18시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거리환경보전 봉사활동	5/15(토) 14시	시청~부산역	부산불교고등학생지도위원회 한국불교자원봉사회 ☎ 817-2648
청소년참작예술제	5/17(월)~23(일)	양정청소년회관 1.3.7층	시/불국토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회관
종리학교봉축행사	5/17(월)~23(일)	금정종합학교/해동중학교 동해중학교/해동고등학교	금정종합학교/해동중학교 동해중학교/해동고등학교
삼광백일장/삼광찬불가 경연/삼광독경대회	5/22(토) 13시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 806-7111

시민 연등 축제 점등식
일시 : 5월 4일(음. 3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
장소 : 부산역 광장 분수대 옆

부산시민의 화합과 정제회복을 기원하는
부산불교 연합합창제
일시 : 5월 6일(음.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KBS 부산홀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
일시 : 5월 15일(토) 오후8시~16일(일) 오전4시
장소 : 부산역 광장

봉축 연합대법회
일시 : 5월 16일(음. 4월 2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 부산역 광장

제등행진
일시 : 5월 16일(음. 4월 2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 : 부산역 광장(출발) - 범냇골로타리(회향)

※ 표시 문화행사는 시민여러분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가신청은 주관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주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후원 : BBS부산불교방송, 대한불교신문사 외 교계 각 언론사
■특별후원 : 부산광역시·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전화 : 867-0501~3, 전송 : 867-0504)

신행수기 당선작(진흥원이사장상)

사섭법을 애인삼아 ②

양보리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남편의 병세나 우리집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이 무엇일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지만… 밤새워 예배올리는 것은 자기 낮추는 하심의 자세 '지은 죄 조금은 소멸되겠지'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엔 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꽉차 있었다

낮에는 직장일 밤에는 철야기도를 했다 나의 현실은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이며 결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이렇듯 어설프게 시작한 직장생활이지만 성실을 밑천으로 꾸준히 일을 하여 나중에는 보증수표란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원은 고정 급여가 없다.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자연히 수입도 올랐다 내렸다 하여 늘 안정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낮에는 직장일을 하고 저녁때는 산사를 찾아서 철야기도를 자주 했다. 처음은 삼백배 그 다음은 오백배 천배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절을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을 굳게 믿었지만 남편의·병세나 우리집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차츰 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 절에 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밤을 지새워가면서 예배를 올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자세이니 결국은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無明)을 굴복시키는 일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전생에 지은 죄가 무거워도 조금은 소멸이 되겠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도 내마음 한 구석은 언제나 그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꽉 찼던것 같다. 무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마음 가는데로 살아보자' 혼돈을 거듭하는 동안 차츰 신행생활도 익숙해 져서 나는 무엇보다 부처님의 교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항상 바쁘게 살다보니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시간이 없어 생각끝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불교와 관계되는 서적을 읽기로 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한 나는 수금 가방속에 언제나 책 한권을 들고 다녔다. 〈선가귀감(법정스님 역)〉, 〈유마경 강설(이영무스님 역)〉, 〈소설 화엄경(고은 작)〉, 〈원효대사(이광수님 작)〉, 그밖에 불교설화집 등을 즐겨 읽었다. 그러나 절에 다닌지 몇년이 지난후에야 겨우 나의 현실은 과거생에 지은 업장 때문이며 내가 겪는 이 시련도 결코 남이 대신 할 수 없는 내것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1981년 그해는 나라가 어수선했다. 자고나면 데모군중에 최루탄 가스가 천지를 뒤덮을때 우리집 사정도 나라 사정만큼이나 복잡했다. 그해 장남은 어느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해야했고, 딸은 대학 4학년에 올라가고 막내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지지고 볶는 악순환 속에 서로 아무 탈없이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나의 봄이 자꾸만 최약해진다.

시절이 어수선하여 학생 아르바이트도 허용이 안되고 보험 세일즈맨은 발바닥이 닳도록 다녀야 성과가 있는데, 나는 그때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부서지듯 아프고 길을 걷다가도 주저앉아야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리고 아프며 머리가 자주 어지러워서 활동에 큰 지장이 왔다. 하루걸러 한번씩 쉬어야 하니 너무도 안타까워 불안했지만 가족들까지 불안하게 할수 없어 내색을 하지 않았다. 다음 학기에는 세아이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도무지 앞이 안보였다.

나는 건강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어코 산사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매달려 보리라' 하며 한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랜만에 산을 올랐다. 계절마다 특색이 있는 삼각산의 새소리 바람소리는 나의 힘겨운 산행을 도와주듯 한결같이 동행을 해주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숲사이 오솔길은 내가 어려울때 가장 많은 위안을 받은 내마음의 고향같은 곳이기도 하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법당에서 나는 혼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력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살을 때리며 지나가는 스산한 바람소리마저 좀 으시시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나를 보호해 주는 신장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다.

지난밤 꿈에도 몸이 너무 아파 끙끙 앓다가 잠이 들었는데 법당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뒤에서는 커다란 소방차 한대가 요란한 소음을 내면서 달려오고 앞에서는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어슬렁 내게로 다가왔다. 곰이지만 호랑이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았고 붉은색의 소방차는 나를 싣고갈 영구차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중년의 남자 한분이 내앞에 나타나서 손을 번쩍 들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었다. 소방차에게는 직진을 지시하고 호랑이에게는 길건너편을 가르키니 순순히 따라 가는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 중년의 남자는 아마 그 법당안에 계시는 호법신장님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몇시간이나 흘렀을께 컴컴산중에 상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시각인데 미풍이 지나가는지 처마밑 풍경소리가 댕그랑댕그랑 밤의 적막을 깨트렸다. 무심코 고개를 들고 상단을 바라보았다. 하늘하늘 타고있는 촛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초를 꽂아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절반이 탔았으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순간 하늘거리는 촛불속에서 부처님의 상호가 흔연히 나타났다. 내 눈에도 부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얘야! 네가 무척 힘들겠구나' 하는 소리도 들렸다. 환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분명한 인자한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랫동안 참았던 내 눈에서도 눈물이 빙그르르 돌면서 염주위로 뚝뚝 떨어졌다. 〈계속〉



그림 · 문병성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ASH(느릅 원목)
■규격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卍 佛子 반야빈지 卍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초가),의력(용가),행력(유가),참력(환가),강력(금가),지력(持力),바력(破가),적력(변가),변력(辯力),색력(色力),신력(身力),재력(財力),심력(心力),신족력(神足力),총법력(摠法力),항마력(降魔力)



商品名: 반야반지
재질: 금,큐빅(18K,14K-1.5돈)
가격: 18K-₩ 130,000, 14K-₩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몰 · 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접등과 조립등은 몰 · 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 합니다.

접 등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 는 모습
④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시는 모습
⑧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 입니다.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자비충만 일체법계)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만법일여 일체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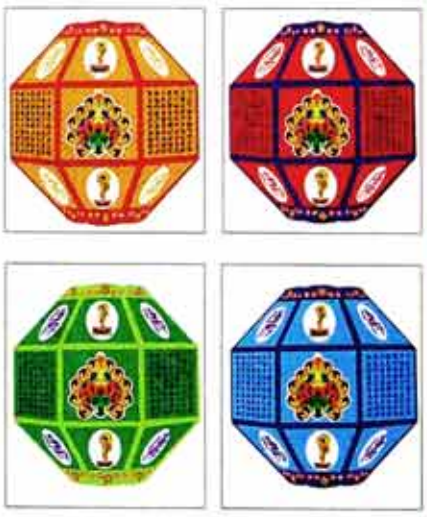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200원

조 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홈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가격 : 1,840원